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5-16

연구보고 05-16-04

청소년 유해행위 개선대책 연구

- 청소년 성관련 문제행동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탐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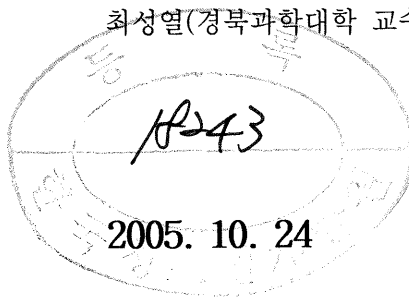
책임연구원 : 한상철(대구한의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김남선(대구대학교 교수)

이수연(대구한의대학교 교수)

이미연(경동정보대학 교수)

최성열(경북과학대학 교수)



한국청소년개발원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문제연구소

【 연 구 요 약 】

청소년보호법이 1997년 제정·발효된 이후,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의 근본 목적은 현실적으로 각종 업소들의 영업적 이익추구와 경제적 논리에 직면하면서 상당 부분 좌절되거나 수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유해업소, 유해매체, 유해약물, 그리고 유해행위를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청소년보호법, 제2조 정의). 이 가운데 유해업소와 유해매체, 유해약물 등은 청소년이란 대상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업소와 매체, 약물로써 그 실체가 비교적 분명하지만, 유해행위는 우리 사회의 일부 성인들이 청소년을 이용하거나 착취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들을 일컫는 것으로,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와 선행 연구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행위는 사회 성인들이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이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유린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청소년 인권(생존권과 성장권, 학습권, 행복권 등)침해사례에 속한다. 이것은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이 되며, 장기적으로 청소년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의 건전한 문화조성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청소년 유해행위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인지, 어떤 범위와 기준에서 파악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성인들의 특정 행위가 청소년들의 무엇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이다. 청소년 유해행위가 성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유해한 행위를 하는 성인들을 식별해 내고 이들의 승인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당신들이 청

소년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했을 때, 이들의 반응은 매우 적대적이고 반항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유해성의 정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영업장의 업주들 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반 성인들 모두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유해한 행위를 하는 성인들의 경우 분명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되어지지만, 이들의 실체와 모집단을 파악하고 표본집단을 선정하여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이들 성인들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행위가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의 어떤 문제행동을 야기시키는지를 추론한 뒤,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성인 사회의 위험요인(risk factors)을 파악하고, 이런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을 확인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할 때, 청소년 유해행위는 가출 청소년이나 가정 및 학교에서 소외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리고 성인들의 유해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년 문제행동은 대부분 성적 접대 및接客행위와 음란행위, 혼숙행위, 빠끼행위, 티켓다방 등에서의 배달행위 및 성매매 행위 등이다. 결국 성인들이 그들의 영업적 이익과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을 이용하고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청소년들은 다양한 형태의 성 위험행동에 노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성매매나 성폭력, 부적절한 임신, 성병, 절도와 폭력 등의 문제행동을 야기시키며, 이와 더불어 정신적 장애와 장기적으로 개인의 인격성을 파괴시키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들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년들의 성 관련 문제행동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성인 사회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된 성관련 행동의 보호요인이 실제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상쇄시켜 주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인들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행위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먼저, 청소년유해행위의 법적 개념 및 현황을 살펴보고, 성관련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청소년유해행위는 '청소년을 유해하게 하는 성인 사회의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청소년에게 각종 성적 퇴폐행위를 시키는 행위(성적 접대행위, 유흥접객행위, 음란행위), 청소년에 대한 각종 가혹행위(장애기형 등 관람행위, 구걸행위, 학대행위), 호객행위를 시키는 행위, 풍기문란 장소제공 행위, 청소년 이용 다류배달 행위 등을 포함한다. 한편, 청소년들에 대한 성인들의 유해행위는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의 성관련 문제행동 즉, 성적 접대 및接客행위와 성 매매행위, 음란행위, 혼숙행위 등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유해행위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의 관련 내용을 해석하고, 성관련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성인들에 의한 청소년유해행위는 청소년들의 유흥접대행위와 거리에서의 빠기행위, 티켓다방 등에서의 배달행위 및 성매매 행위 등을 양산하며, 다양한 위험요인들 즉, 흡연, 술, 금품, 억압, 구금, 회유 등과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의 성관련 문제행동이란 성과 관련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지칭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구체적으로 성인 및 청소년들에 의해 자행되는 강간이나 성추행, 성희롱, 그리고 원조교제를 포함한 매매춘 등이 포함된다.

청소년 성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은 매우 많다. 먼저, 개인적 요인으로 충동성 및 공격성의 증가, 감각추구성향, 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의 확산, 음주 및 흡연, 성 가치관의 혼란 등이 지적되고 있고, 가족 요인으로 가족해체, 이혼 등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 가정의 성교육 부재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또래 요인으로는 비행친구와의 접촉, 성경험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며, 학교 요인으로는 낮은 학업성취도,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족 등이 지적되며, 지역사회 요인으로는 퇴폐 및 향락업소, 유해매체, 성인사회의 왜곡된 성문화, 사회의 왜곡된 음주문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연구의 제3장에서는 유해행위로 인한 청소년성폭력 및 성매매 사례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학교 관계자와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성매매의 특징과 유형을 분석하고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다. 청소년 성매매는 가출을 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살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 다니면서 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충격적인 사실은 수업 중에 잠깐 외출해서 성매매를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사례도 보고 되고 있다. 가정형편이 나쁘지 않은 중산층 가정의 청소년이 전체의 45%나 된다는 보도도 있고, 전교 1-2등인 성적 우수 청소년이 성매매에 참여한 사례도 보도되었다. 최근 일부 청소년들은 성행위에 그치지 않고 협박과 사기를 동반하는 대담성까지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성인 사회의 다양한 유해행위가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조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유해행위를 차단하는 것만이 청소년 성매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정책임을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관련 문제행동의 보호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처리함으로써 문제행동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보호요인의 개념과 역할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앞서 설명한 성관련 위험요인은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원인 변수라고 한다면, 보호요인은 위험요인이 문제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상쇄하거나 완충작용을 해주는 요인을 의미한다. 이것은 단순히 위험요인의 부재 혹은 낮은 위기 수준이 아니라,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중재하거나 완화시켜서 결과적으로 문제행동의 발생 확률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성관련 문제행동에 작용하는 개인적 보호요인으로는 자기 통제감, 자기 효능감, 자기 존중감 등이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은 자기 통제(self-control)로 밝혀지고 있다. 가족요인으로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안정적 애착, 부모의 권위적 양육 태도 등이 주요 보호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요인으로는 또래와의 대인관계, 모범행동을 하는 친구, 지역사회의 사회적 지지망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성관련 보호요인이 성인사회의 유해행위로부터 청소년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지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 보호요인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생각에 기초하여 연구자들이 개발한 보호요인 강화 프로그램을 제시해 두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의 수용 청소년 216명과 실업계 여자고등학교 청소년 1,0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가운데 자료처리 대상은 특수집단 179명과 일반집단 950명이다. 그리고 가출청소년들의 성문제행동 실태와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10명의 사례를 확보하여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크게 4가지 측정영역의 8개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4가지 측정영역은 피험자들의 생활현황과 문제행동, 성관련 위험요인, 성관련 위험행동, 보호요인이다. 생활현황과 문제행동 척도는 피험자들의 일상생활 수준과 만족도 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6개)과 일반적인 문제행동(가출, 흡연, 음란물 접촉, 유흥업소 출입, 성관계 등)을 묻는 문항(14개)으로써, 모두 선다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관련 위험요인 및 성행동 척도는 전체 31개의 선다형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성인들의 유해행위 및 성관련 위험요인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관련 위험행동 척도는 전체 21개 문항의 5점 평정척으로 되어 있으며,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성관련 위험행동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보호요인 척도는 모두 5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긍정적인 가족기능, 부와 모 각각과의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 자기 효능감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처리는 빈도분석과 Chisquare 분석법,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과 정준판별분석 등이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청소년유해행위와 성관련 문제행동의 개선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극단적 위험요인 감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책제안 모형에서 밝혔듯이, 청소년들의 성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영향을 주는 극단적인 위험요인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극단적인 위험요인은 위험행동 및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특히 성관련 문제행동과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권태감과 열악한 가정환경 및 부모의 역기능적 양육태도, 일탈 또래들과의 관계, 가출, 이성친구 사귀, 낯선 사람과의 채팅 등이다.

② 보호요인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처치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유해환경 및 유해행위로부터 비롯되는 성 관련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이것의 부작용을 차단 또는 중재할 수 있는 보호요인을 발견하여 이를 처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호요인은 매우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 것도 있고, 특정 문제행동에 작용하는 구체적인 것도 있다. 물론 구체적이고 특수한 요인의 효과가 더 크며, 직접적이다.

선행연구들에서 다양한 문제행동의 보호요인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도 성 문제행동의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된 보호요인들은 자기 통제감, 자기 효능감, 자기 존중감, 사회적 지지, 가족 기능강화, 부모-자녀 의사소통 등이다. 이들 요인들은 특정 문제행동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위험요인의 작용을 완충시켜 주며 문제행동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청소년 개인을 둘러싼 사회 맥락적 요인들 역시 청소년 문제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며, 특히 지역사회의 유해환경과 성인들의 유해행위는 성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 맥락적 요인 가운데 먼저, 또래집단의 특성 및 이들의 지도방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들의 건강한 또래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동아리를 중심으로 창조적인 청소년문화가 생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동아리는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모임체이며, 창조적인 활동 공간이 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들의 사회 체험활동을 지원해 주고, 그들의 이성관계가 건강한 사회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청소년의 파티문화, 만남과 대화 문화, 캠핑과 놀이문화 등을 통해 이들이 자연의 맑은 환경 속에서 이성간의 만남과 상호 부딪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이성에 대한 비합리적 또는 환상적인 사고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현재 시행 중인 청소년 문화존 사업을 각 자치단체별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문화 거리조성과 동아리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유해행위가 성인들의 영리 욕구에 의해 청소년들을 이용하는 가운데 발생하며, 성 문제행동 역시 성인들의 왜곡된 문화가 청소년들에게 전이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소년 세대의 노력과 역량에 의해 각 지역별 특성에 부합되는 문화를 창조하고, 이를 유지·발전 시켜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④ 가정의 심리적 기능적 환경을 개선하고 부모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안정적 애착과 관심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것은 청소년상담원을 비롯한 일부 기관에서 추진해 온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그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가정의 구조적 환경은 어찌할 수 없는 과제라고 하지만, 기능적 환경과 가정의 심리적 풍토를 조성하는 작업은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해 나갈 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화기법을 개발하고, 활동과 문화에 동참하도록 독려하는 등의 내용이 필요할 것이다.

⑤ 학교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 정책과 교육정책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청소년 정책과 학교 교육정책이 공존하고 상호 협력적일 때, 청소년 성관련 문제행동의 예방 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청소년들이 사회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안전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 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간 상호 협력 채널을 구성함과 동시에 학교 내 청소년 전문지도사 및 청소년 상담사의 배치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성 교육은 성 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과 성 문제 치료를 위한 교육으로 이분화 될 필요가 있으며, 학교 외부의 전문가(상담전문가, 의사, 변호사) 팀에 의해 분기별로 의무화 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⑥ 지역사회의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성인들의 유해행위 관련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성인들의 유해행위 관련 요소들은 경제적 요인(금전적인 부분; 용돈, 차비, 숙박비, 생활비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잠자리 제공, 식사 제공, 의복제공, 술과 담배 제공, 기타 요인으로의 유혹(연예계 데뷔) 등 매우 많다. 이들 요인들을 통해 청소년들을 유인하거나 강압적으로 억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성을 상품화 또는 매개하거나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의 행위가 성인들에 의한 청소년 유해행위이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성관련 문제행동이다.

우리 사회의 성인들이 부적절한 의도를 가지고 청소년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 환경을 정화하는 일과 함께 모든 사람들의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매스컴을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와 국민 토론회 및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행위인지, 그리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비양심적인 일인지를 깊이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을 줄이고 자동차 안전띠 착용을 계도함으로써 자동

차 사고를 급격하게 줄일 수 있었던 것 역시 대국민 홍보와 철저한 단속 때문이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대해 높은 경각심을 갖기에 이르렀다. 청소년유해행위에 대해서도 성인들의 경각심을 유도해야 할 때이다.

⑦ 가출 청소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 성인들의 유해행위에 쉽게 노출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가출 청소년이고, 경제적 궁핍과 가정에서의 무관심 및 학대가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가출 청소년 가운데 특히 생계형 가출자와 유기된 가출자들의 경우 이들을 귀가시키는 방법보다 안전한 장소에서 숙박과 생활을 보장 받으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가출과 학교 중도탈락 이후 청소년들의 삶은 궁핍할 수밖에 없으며, 많은 위험요인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된다. 이들이 성인 사회의 유해요인에 의해 희생되지 않고 사회적 안전망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의 청소년정책이 추진해야 될 핵심과제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확대·개선하고 직업교육 및 자활센터 기능을 확대하는 등 그들의 진로를 도와 줄 수 있는 기관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⑧ 학교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된 청소년은 물론이고 성폭행이나 성매매, 약물, 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 청소년들을 치료하고, 심리적 안정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청소년심리치료센터’(또는 청소년정신건강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상담사와 의사, 변호사 등을 고용·매치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하고 성인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에 불완전한 정신건강을 유지한 상태로 그들이 성인기로 진입할 때, 이들이 성인 유해행위를 일삼는 주요 인물이 되며, 유해환경을 조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청소년정책은 지금 현재 청소년들의 행복을 확대시키는데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미래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밝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정된 생활 터전을 제공하기 위해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사회에 만연된 유해환경과 비양심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으며 만성적인 빈부격차와 상대적인 박탈감에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 미래 사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며, 이것은 사회 환경과 시설의 개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하며, 청소년에 대한 투자만이 대안이 될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모형.....	6
1) 연구내용.....	6
2) 연구의 개념모형.....	8
3. 연구의 제한점.....	9
II. 청소년 유해행위와 성관련 문제	11
1. 청소년 유해행위의 개념과 현황	13
2. 청소년보호법 관련 내용 해석	16
3. 청소년 유해행위와 성관련 문제행동과의 관계	22
1) 성관련 문제행동의 개념과 특징.....	23
2) 성관련 문제행동의 위험요인	28
4. 청소년 유해행위 관련 선행연구 분석	38
1) 청소년 유해행위와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구.....	38
2) 청소년 유해행위 개선대책에 관한 연구	41
III. 유해행위로 인한 청소년 성폭력 및 성매매 사례	45
1. 청소년 성폭력의 사례와 대처방안	47
2. 청소년 성매매의 사례와 대처방안	60
IV. 청소년성관련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접근.....	71
1. 보호요인의 개념과 구분	73

1) 성관련 보호요인의 개념과 특징.....	73
2) 보호요인의 구분	77
2. 성관련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보호요인 강화 프로그램	81
1) 프로그램의 의의 및 운영조건.....	81
2) 프로그램의 개요	83
3) 프로그램의 차시별 내용	84
 V. 연구방법	89
1. 대상.....	91
2. 도구.....	93
3. 자료처리.....	95
 VI. 결과 및 해석.....	97
1. 피험자 특성과 문제행동 경향	99
2. 성관련 위험요인과 성행동에 대한 반응 분석	112
3. 성관련 위험행동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138
4. 보호요인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144
5. 성관련 문제행동 사례분석-질적 연구	150
1) 조사대상 청소년의 특성.....	150
2) 결과 분석.....	151
 VII.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55
1. 요약 및 결론	157
1) 연구과정 요약.....	157
2)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160
2. 정책 제언.....	180
1) 정책제안 모형	180
2) 정책제안.....	181

참고문헌.....	189
-----------	-----

부록.....	197
---------	-----

표 차 례

<표 IV-1> 보호요인 강화 프로그램의 내용	83
<표 V-1> 연구대상 집단의 분포	93
<표 VI-1> 동거가족형태	99
<표 VI-2> 부모님의 본인에 대한 관심도.....	100
<표 VI-3>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 지각.....	101
<표 VI-4> 가정생활 만족도	101
<표 VI-5> 부모와의 대화시간	102
<표 VI-6> 학교생활 만족도	103
<표 VI-7> 가출경험	103
<표 VI-8> 흡연 여부.....	104
<표 VI-9> 이성친구 유무.....	105
<표 VI-10> 음란물 관람 경험.....	105
<표 VI-11> 익명의 사람과 채팅 여부	106
<표 VI-12> 착취나 부당한 대우 경험	107
<표 VI-13> 유흥업소 출입경험	107
<표 VI-14> 친구들과의 싸움 경험.....	108
<표 VI-15> 부모님 속인 경험.....	109
<표 VI-16> 휴일에 시내 배회 경험	109
<표 VI-17> 어린 후배 골탕먹인 경험	110
<표 VI-18> 용돈 흠친 경험.....	110
<표 VI-19>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유무.....	111
<표 VI-20> 무단결석 유무	111
<표 VI-21> 성충동이나 폭력충동을 가장 많이 느낀 매체.....	112
<표 VI-22> 청소년이 성인매체를 이용한 것에 대한 생각.....	113
<표 VI-23> 성인용 매체를 잘 아는 것과 친구관계와의 관계	114
<표 VI-24> 명함형태의 음란 광고전단을 접촉했을 때의 느낌.....	115
<표 VI-25> 19세 미만 시청불가 프로그램을 보고 난 후 느낌.....	116

<표 VI-26> 채팅유무와 대상	117
<표 VI-27> 채팅 시 이야기 주제	118
<표 VI-28> 가장 많이 이용하는 채팅 사이트.....	118
<표 VI-29> 화상채팅 경험과 채팅 방법.....	119
<표 VI-30> 채팅 후 실제로 만난 경험	120
<표 VI-31> 음란, 폭력, 엽기 사이트 접속 장소	121
<표 VI-32> 음란사이트를 처음으로 이용한 시기.....	122
<표 VI-33> 인터넷 음란사이트 접속 경로.....	122
<표 VI-34> 유흥업소 이용 시 업소 주인들의 반응.....	123
<표 VI-35> 청소년 출입금지 유흥업소 최초 출입 시 경위.....	124
<표 VI-36> 키스나 애무 등의 성 접촉 경위	125
<표 VI-37> 아르바이트 중 동료나 업주로부터의 성추행.....	126
<표 VI-38> 피임기구 사용에 대한 생각.....	127
<표 VI-39> 성지식 습득 경로	128
<표 VI-40> 성교육 받은 횟수	129
<표 VI-41> 첫 성교육을 받은 시기	129
<표 VI-42> 학교 성교육에 대한 생각	130
<표 VI-43> 성 접촉 경험에 관한 사항	131
<표 VI-44> 첫 성관계 경험 대상.....	132
<표 VI-45> 임신경험	133
<표 VI-46> 성매매 제안을 받아본 경험.....	133
<표 VI-47> 청소년 성매매 제안 경로.....	134
<표 VI-48> 친구가 성매매 제의를 받은 경우 대처방법	135
<표 VI-49> 청소년 성매매 발생의 가장 직접적인 동기	136
<표 VI-50> 우리 사회에 청소년 성매매의 발생원인.....	137

<표 VI-51>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지도방안.....	138
<표 VI-52> 가출경험 여부에 따른 집단별 성 위험행동 특점의 평균과 표준편차	139
<표 VI-53> 집단별 가출경험 여부와 성 위험행동과의 관계 분석.....	139
<표 VI-54> 흡연경험 여부에 따른 집단별 성 위험행동 특점의 평균과 표준편차.....	140
<표 VI-55> 집단별 흡연경험 여부와 성 위험행동과의 관계 분석.....	140
<표 VI-56> 이성친구 유무에 따른 집단별 성 위험행동 특점의 평균과 표준편차.....	141
<표 VI-57> 집단별 이성친구 유무와 성 위험행동과의 관계 분석.....	141
<표 VI-58> 유흥업소 출입경험 여부에 따른 집단별 성 위험행동 특점의 평균과 표준편차	142
<표 VI-59> 집단별 유흥업소 출입경험 유무와 성 위험행동과의 관계 분석.....	142
<표 VI-60> 성관계 여부에 따른 집단별 성 위험행동 특점의 평균 과 표준 편차.....	143
<표 VI-61> 집단별 성관계 경험 유무와 성 위험행동과의 관계 분석...	143
<표 VI-62> 특수집단의 가출 여부에 대한 정준판별함수.....	144
<표 VI-63> 일반집단의 가출 여부에 대한 정준판별함수.....	145
<표 VI-64> 일반집단의 가출 여부에 대한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	145
<표 VI-65> 일반집단의 가출 여부에 대한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의 분류결과.....	146
<표 VI-66> 특수집단의 흡연 여부에 대한 정준판별함수.....	146
<표 VI-67> 일반집단의 흡연 여부에 대한 정준판별함수.....	147

〈표 VI-68〉 일반집단의 흡연 여부에 대한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	147
〈표 VI-69〉 일반집단의 흡연 여부에 대한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의 분류결과.....	148
〈표 VI-70〉 특수집단의 성관계 여부에 대한 정준판별함수.....	148
〈표 VI-71〉 일반집단의 성관계 여부에 대한 정준판별함수.....	149
〈표 VI-72〉 일반집단의 성관계 여부에 대한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	149
〈표 VI-73〉 일반집단의 성관계 여부에 대한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의 분류결과.....	150
〈표 VI-74〉 면접대상 청소년의 특성	151

그림 목 차

<그림 I-1> 연구의 개념 모형	8
<그림 VII-1> 청소년 성관련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정책제안 모형.....	18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모형
3. 연구의 제한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보호법이 1997년 제정·발효된 이후,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의 근본 목적은 현실적으로 각종 업소들의 영업적 이익추구와 경제적 논리에 직면하면서 상당부분 좌절되거나 수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갈등 상황에서도 청소년분야의 전문 연구기관들은 청소년 유해환경을 보다 정확하게 개념 규정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예, 한국청소년개발원, 1990; 김문조, 1994; 김준호, 박정선, 1996; 청소년보호위원회, 1999; 2003). 일반적으로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유해업소, 유해매체, 유해약물, 그리고 유해행위를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청소년보호법, 제2조 정의). 이 가운데 유해업소와 유해매체, 유해약물 등은 청소년이란 대상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업소와 매체, 약물로써 그 실체가 비교적 분명하지만, 유해행위는 우리 사회의 일부 성인들이 청소년을 이용하거나 착취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들을 일컫는 것으로, 실체가 매우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와 선행 연구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행위는 사회 성인들이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이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유린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청소년 인권(생존권과 성장권, 학습권, 행복권 등)침해사례에 속한다. 이것은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이 되며, 장기적으로 청소년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의 건전한 문화조성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유해행위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인지, 어떤 범위와 기준에서 파악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성인

들의 특정 행위가 청소년들의 무엇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이다. 청소년 유해행위가 성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유해한 행위를 하는 성인들을 식별해 내고 이들의 승인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당신들이 청소년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했을 때, 이들의 반응은 매우 적대적이고 반항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유해성의 정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영업장의 업주들 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반 성인들 모두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청소년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건전한 환경과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청소년 분야의 주요 연구 과제라면, 이 모든 과제의 주요 대상은 청소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 유해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는 그 대상이 사회의 성인들이며, 이들의 불법·탈법적인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성인들의 잘못된 행위는 사회법(형사법, 행정법)에 따라 선별되고 처벌되어야 마땅하며, 관계 행정기관에서는 이들의 잘못된 행위와 그러한 행위유발 요인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청소년의 성장과 사회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성인들과 사회 환경도 청소년 연구의 주요 대상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이들의 행동과 환경이 청소년의 특정 행동 및 특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는 것이 검증되었을 때 청소년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유해한 행위를 하는 성인들의 경우 분명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되어지지만, 이들의 실체와 모집단을 파악하고 표본 집단을 선정하여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이들 성인들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행위가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의 어떤 문제행동을 야기시키는지를 추론한 뒤,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성인 사회의 위험요인(risk factors)을 파악하고, 이런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을 확인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유해행위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둘째,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여흥을 돋우는接客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셋째,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넷째,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다섯째,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여섯째,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일곱째,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여덟째,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아홉째, 주로 다류(茶類)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1999. 2. 5일 신설)를 일컫는다.

이와 같은 법적 해석에 근거할 때, 청소년유해행위는 가출 청소년이나 가정 및 학교에서 소외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리고 성인들의 유해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년 문제행동은 대부분 성적접대 및接客행위와 음란행위, 혼숙행위, 빠끼행위, 티켓다방 등에서의 배달행위 및 성매매 행위 등이다. 결국 성인들이 그들의 영업적 이익과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을 이용하고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청소년들은 다양한 형태의 성 위험행동에 노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성매매나 성폭력, 부적절한 임신, 성병, 절도와 폭력 등의 문제행동을 야기시키며, 이와 더불어 정신적 장애와 장기적으로 개인의 인격성을 파괴시키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다(한상철, 김혜원, 설인자, 임영식, 조아미, 2003). 청소년유해행위 위반사범 단속결과(청소년보호위원회, 2000)에서도 청소년에게 풍기 문란한 장소제공행위(44.5%), 성적 퇴폐행위(27.2%), 대가성 성적 교제(21.4%) 등 청소년들의 성과 관련된 성인들의 유해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으로써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들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행위로 인해 파생되는 청소년 성관련 문제행동에 초점을 두고, 이에 영향을 주는 성인 사회의 유해요인을 확인함과 동시에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보호요인의 역할과 영

향력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성인들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행위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모형

1)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의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유해행위 관련 법적 조항과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1997년에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유해업소와 유해매체, 유해행위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전반에 걸친 통제와 단속의 근거가 되고 있다. 여기서는 유해성에 관한 개념적 논의와 더불어 청소년보호법을 중심으로 유해행위의 법률적 규정과 유형 분류, 그리고 법조항에 의거한 규제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유해행위와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선행연구와 관련문헌을 분석하고 연구문제를 구체화한다.

(2) 유해행위 접촉 실태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들을 개관하고, 주요 결과를 통해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검토한다. 지금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연구는 주로 청소년들의 이용실태에 집중되어 왔다. 고용의 측면은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997년 청소년보호법의 제정과 더불어 청소년 고용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유해행위 가운데 특히 티켓다방 고용, 유흥업소 고용, 전단지 배부 및 빼끼 고용 등의 실태와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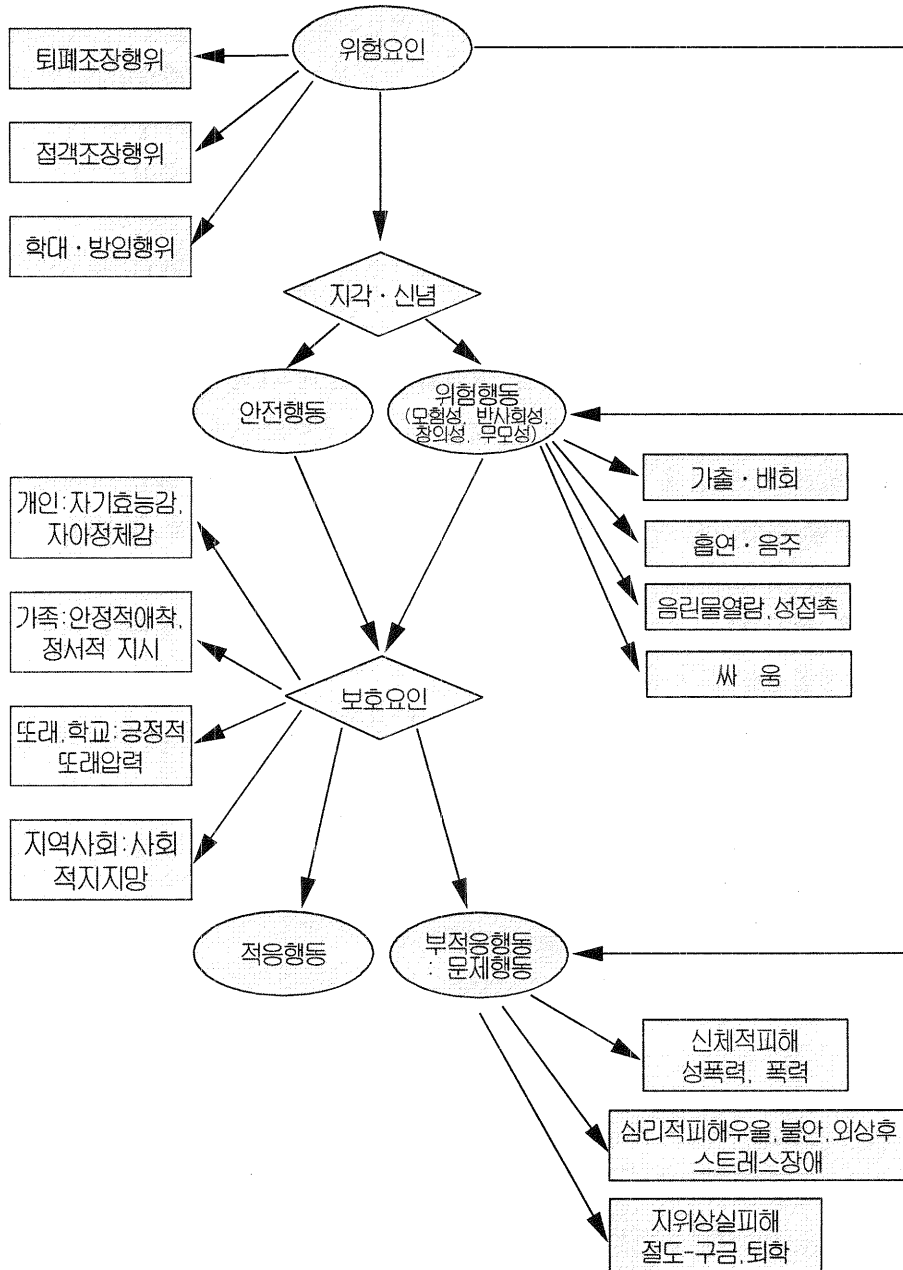
(3) 특정 지역(대구시)의 일반 청소년(실업계 여자고등학교)과 특수집단 청소년(소년원, 보호관찰소)을 대상으로 성인들의 유해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성관련 문제행동을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

요인을 확인하며, 이와 더불어 몇 가지 대표적인 보호요인(자기 효능감, 부와 모의 자녀양육태도-의사소통, 사회적 지지 등)의 상대적 중요성을 검증한다. 성관련 문제행동에 대한 위험요인은 무수히 많지만, 이 가운데 성인 사회 및 청소년들의 생활주변에 상존하고 있는 위험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것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어느 정도 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4) 특정집단(여자 가출 청소년)의 소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성인들의 유해행위에 접촉하게 된 경위와 유해행위로부터 다양한 문제행동으로 연결되는 경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 가출 청소년의 경우 일반적으로 성인사회의 유해행위에 가장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착취 및 인권침해 사례를 통해 성인 사회의 유해행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5) 유해행위 관련 개선책을 강구하고,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종합 모형을 제시한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유해행위 접촉에 대한 정책적 쟁점들을 도출하고, 실효성있는 정책방안과 문제행동 예방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규제 중심적 정책 대안에 대한 보완책과 더불어 성인 세대와 청소년 세대가 더불어 향유할 수 있는 유익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것의 운영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개념모형



<그림 1-1> 연구의 개념모형

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청소년유해행위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성인들의 유해행위에 의한 청소년들의 피해행동 즉, 성관련 문제행동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결과를 법적 개념으로서의 청소년유해행위 전체에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유해행위가 청소년들의 행위가 아니라 성인들의 행위이고, 이 또한 음성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그것이 청소년들의 개인적 성장과 사회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추측은 충분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행동의 실태를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성인들이 청소년을 이용하여 영업적 이익을 창출하거나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파생되는 대표적인 문제행동이 성관련 행동이라고 보고, 청소년들의 성관련 문제행동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따라서 연구결과는 유해행위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행동 가운데 특히 청소년 성관련 문제행동을 설명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둘째, 설문조사 과정에서 일반 청소년들 가운데 실업계 여자고등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실태 부분의 결과를 청소년 전체에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것은 성관련 문제행동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인과 대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나 대표성을 고려하지 않은 탓이다.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한 것 또한 이들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성인들의 유해행위에 가장 많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청소년비행에 개입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생각하고 있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은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인한 문제행동 발생과정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면접조사를 통해 문제행동의 요인과 경위 및 경로, 사후 행동 등을 심층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하였는데, 면접 대상자가 10명의 여자 청소년

년들로 한정될 수밖에 없어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조사는 전문 연구자(상담 전공)가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면담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지 않은 점 또한 연구결과의 객관화에 한계가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II. 청소년 유해행위와 성관련 문제행동

1. 청소년 유해행위의 개념과 현황
2. 청소년보호법 관련 내용 해석
3. 청소년 유해행위와 성관련 문제행동과의 관계
4. 청소년 유해행위 관련 선행연구 분석

II. 청소년 유해행위와 성관련 문제행동

1. 청소년 유해행위의 개념과 현황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인 유해환경에 대한 해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사회 환경’을 말한다. 이에 대해 윤수현(1989)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저해하는 제 요소”, 임형진(1991)은 “환경이 건전하지 못하여 도리어 청소년의 발달을 저해 내지 침해함으로써 건전 육성을 방해하는 생활환경”, 한준상(1991)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성장에 비교육적이고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과 그런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과 인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 환경을 의미한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을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유해매체물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심의기관의 심의결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간주되는 매체물로 구분된다. 전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과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하여 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을 말한다. 후자는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로 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매체물로는 ①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음반·비디오물 ② 게임물, 공연법 및 영화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③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 정보

및 문자정보 ④방송법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⑤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분야를 제외),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 분야를 제외),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를 제외), 잡지(정치·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를 제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간행물과 동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 중 만화·사진첩·화보류·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 출판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⑥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간판·입간판·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 선전물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 선전물 ⑦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이다.

이 가운데 정보통신매체물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은 매년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유해매체 접촉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유해매체접촉 순위는 음란사이트 접속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채팅사이트이다. 최근에는 자살사이트, 범죄사이트도 급속하게 증가 추세에 있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2).

둘째, 유해약물이다. 청소년유해약물로는 ①술, 담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②마약법의 규정에 의한 마약 ③대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대마 ④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⑤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 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이다.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해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쳐 판단력장애 등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신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 청소년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신체발육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 습관성, 중독성, 내성, 금단증상 등을 유발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상적인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로 정의하고 있다.

셋째, 유해물건이다. 청소년유해물건이란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

구,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사행성을 조장하는 완구류를 의미한다.

넷째, 유해업소이다. 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와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로 구분된다. 전자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학원, 무도장, 사행행위장(복표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 등), 노래연습장(청소년 출입허용시설을 갖춘 업소에의 출입은 허용), 비디오물감상실, 전화방 등이다. 후자는 숙박업소, 이용업소(다른 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은 제외), 목욕장업중 안마실을 설치·영업하거나 객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소, 담배소매점, 유독물제조·판매·취급업소, 종합게임장, 만화대여점, 음반판매업소,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소 등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의 출입구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출입 실태를 보면, 연평균 약 1만 여건 정도의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2002년 이후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관련 위반사범이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에, 청소년고용과 관련된 위반 사범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유해행위이다. 유해행위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 접촉·노출·성적접대·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장애·기형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하는 행위, 학대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게 하는 행위, 이성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금전 또는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으로 약속하고 성교 또는 유사성교 등을 하는 행위이다. 청소년유해행위 위반사범 단속결과(2000)를 보면 주로 청소년에게 풍기문란한 장소제공행위(44.5%), 성적 퇴폐행위(27.2%), 대가성 성적 교제(21.4%) 등 청소년 성과 관련된 유해행위가 전체의 50% 정도를 점하고 있다.

청소년유해행위는 ‘청소년을 유해하게 하는 성인 사회의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청소년에게 각종 성적퇴폐행위를 시키는 행위(성적 접대행위, 유흥접객행위, 음란행위), 청소년에 대한 각종 가혹행위(장애기형 등

관람행위, 구걸행위, 학대행위), 호객행위를 시키는 행위, 풍기문란 장소제공 행위, 청소년 이용 다류배달 행위 등을 포함한다. 이 법에 따른 경우, 청소년 유해행위는 성인들이 영업적 이익과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을 이용하거나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것은 명백히 사회법에 따라 처벌받거나 규제되어야 마땅한 행동들이다. 한편, 청소년들에 대한 성인들의 유해행위는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의 성관련 문제행동 즉, 성적 접대 및接客행위와 성 매매행위, 음란행위, 혼숙행위 등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청소년보호법 관련 내용 해석

1) 청소년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1999. 2. 5>

2) ‘청소년’의 정의(제2조 1항)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3) 가정의 역할 (제3조)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친권자 등”이라 한다)는 청소년이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 및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학대 등(이하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한다)에 접촉이나 출입을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4) 사회의 책임 (제4조)

①누구든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폭력·학대 등을 행하고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제지·선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안 때, 또는 청소년폭력·학대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안 때에는 제 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등에 신고·고발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매체물과 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의 경영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 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5)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제26조의 2)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0.2.3, 2004.1.29)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여흥을 돋우는接客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3.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주로 다류(茶類)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1999. 2. 5일 신설)를 일컫는다.

6) 청소년유해행위 등에 대한 규제 해설

청소년유해행위에 대한 규제(법 제26조의 2)

1.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각종 성적퇴폐 행위를 시키는 자

가. 성적접대행위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제1호)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법 제49조의2)

○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종전에는 단순히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왔으나, 단순 고용에서 나아가 애무, 안마 등 신체적 접촉 및 소위 “홀딱쇼”등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각종 성적 유희나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 등을 하게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거, 중형으로 처벌

- 안마시술소, 퇴폐이발소, 윤락업소 등 각종 퇴폐향락업소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퇴폐적 안마, 목욕보조, 알몸접대 및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 등을 시키는 행위도 모두 처벌 대상
- 숙박 '호스트바'에서 19세 미만 남자 청소년에게 성적접대를 시키는 행위도 처벌 대상

※ 풍속업소의 경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윤락행위 또는 퇴폐 행위를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 그 대상이 19세 미만 청소년인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되는 것임

※ 윤락업소의 경우,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거 폭력·협박이나 위계를 사용하여 미성년자로 하여금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제24조 제3항, 제1항) 그 대상이 19세 미만 청소년인 때에는 이 경우에도 폭력·협박이나 위계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됨

- 성적 접대행위의 알선, 매개행위도 동일하게 처벌
- 여관, 모텔,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19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행위 알선 및 일부 보도방 등의 성행위 알선이 처벌 대상
- 윤락업소에서의 19세 미만 청소년 윤락행위 알선도 이에 포함

※ 윤락업소의 경우, 윤락행위를 알선한 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제25조 제1항), 윤락행위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인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거 더욱 무겁게 처벌

나. 유흥접객행위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제2호) ⇒ 10년 이하의 징역(법 제49조의3)

-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하여금 각종 술집에서 옆자리 술시중을 들게 하거나 노래, 춤 등을 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도 형사 처벌
- 유흥주점에서의 유흥접객행위는 물론 여성 접대부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이나 일반음식점에서의 불법변태영업 또는 무허가 영업의 경우도

모두 처벌 대상

- 속칭 ‘호스트바’에서 19세 미만 남자 종업원에게 술시중 등을 시키는 행위도 처벌 대상
- 알선·매개행위도 처벌
- 모든 보도방·무허가 직업소개소 등의 19세 미만 청소년 접대부 소개행위도 모두 처벌 대상

다. 음란행위금지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제3호) ⇒ 10년 이하의 징역(법 제49조의3)

- 극장식 유흥주점 등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소위 누드쇼, 성행위 묘사춤 등을 시키는 행위 등도 처벌

※ 형법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제245조), 이를 시킨 자는 교사·방조범으로 같은 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대상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거 가중 처벌

2. 19세미만 청소년에 대한 각종 가혹행위 처벌

가. 장애인행동 관람행위 금지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인행동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제4호) ⇒ 5년 이하의 징역(법 제49조의4)

- 19세 미만 장애아 공연, 19세 미만 기형아 이용 구걸행위 등 중형 처벌

나. 구걸행위 금지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제5호) ⇒ 5년 이하의 징역(법 제49조의4)

- 속칭 ‘앵벌이’등 19세 미만 청소년을 이용하여 동정심을 자극하는 구걸행위 등 중형처벌

다. 청소년 학대행위 금지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제6호) ⇒ 5년 이하의 징역(법 제49조의4)

- 보호·감독의 관계에 있는 자는 물론 그 외 누구라도 학대행위를 한 자는 모두 처벌
- 학대행위에는 옷을 안 입히거나 굶기거나 잠을 안재우는 등 인간의 의식주 공급을 하지 않는 행위, 정도를 넘어서는 징계행위,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등 생명·신체의 완전성과 인격권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일체의 가혹한 대우 포함

※ 형법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는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제273조 제1항)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그 대상이 19세 미만 청소년인 경우 누구라도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

3.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호객행위를 시키는 자 처벌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제7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0조제4호)

- 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호프집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호객행위(속칭 “빼끼행위”)를 시킨 경우 처벌
- 노래방·비디오방 등, 기존에는 호객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던 업소에서 호객행위를 시킨 경우도 처벌 대상

※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업자가 “손님을 꺾어서 들이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77조 제5항, 제31조), 19세 미만자로 하여금 호객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거 그 업종을 불문하고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 신설

- 호객행위자(속칭 “빼끼”)는 별도의 처벌 규정으로 처벌
- 빼끼 행위자는 경범죄처벌법 상의 “여러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

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에 해당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함.(제1조 제10호)

- 특히, 업주의 불법 퇴폐·변태영업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공범으로 처벌

4.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풍기문란 장소 제공한 자 처벌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제8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0조제4호)

○ 여관, 모텔, 호텔 등 숙박업소, 비디오방, 만화방 등에서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이성 혼숙을 허용하는 행위 등이 처벌 대상

※ 공중위생법 관련조항 폐지에 따라 신설

3. 청소년 유해행위와 성관련 문제행동과의 관계

청소년 유해행위는 가출 청소년이나 가정 및 학교에서 소외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유흥접대행위와 거리에서의 빠기행위, 티켓다방 등에서의 배달행위 및 성매매 행위 등은 성인들의 유해행위에 따른 구체적인 위험행동 또는 문제행동에 속한다. 청소년들의 이러한 행동은 대부분 성인들의 영리 목적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성인들의 유해행위 가운데 다양한 위험요인들 즉, 흡연, 술, 금품, 억압, 구금, 회유 등이 청소년들의 성관련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된다.

이러한 행위는 청소년들의 외현적 문제행동 즉, 폭력이나 절도, 부적절한 성행동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또한 정신적 장애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개인의 인격성을 파괴시키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다(한상철 등, 2003). 청소년 유해행위 위반사범 단속결과를 보면 주로 청소년에게 풍기문란 장소제공행위(44.5%), 성적 퇴폐행위(27.2%), 대가성 성적 교제(21.4%) 등 청소년들의 성과 관련된 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이러한 유해행위는 청소년 스스로 지각할 때 분명 유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성인 사회가 청소년들의 인격과 존엄성을 파

과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다.

퇴폐 및 유흥업소 등에서 청소년들을 이용하거나 고용하여 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성인들의 행위가 청소년의 성적 문제행동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행동을 야기시키고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적 연구결과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성인들의 청소년 유해행위로 인한 청소년들의 성관련 문제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원인과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성관련 문제행동의 개념과 특징

청소년 유해행위는 주로 퇴폐·유흥업소 등에서 성인들이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이용하여 영업적 이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성인 유해행위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자 청소년들이며 그 결과는 성관련 문제행동으로 귀착된다. 여자 청소년들이 접대나接客을 위해 고용되거나 성적 도구로 활용되거나 음란행위와 성매매 행위에 개입하게 됨으로써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나 존엄성보다 자기 몸을 상업적 도구로 비하시키고 금전과 향락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것은 대체로 강압적인 환경과 조직 속에서 그들이 겪게 되는 또 다른 인권탄압의 사례가 되기도 한다.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문제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해 왔고, 현대 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 중의 하나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 사회로 변모하는 과정 속에서 상업주의, 황금만능주의와 성 개방 풍조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고, 이러한 성 개방 풍조와 상업주의의 성행은 청소년들에게 성 혁명, 즉 성해방을 경험하게 하면서 성을 사랑과 분리시키고(조성연, 2000), 청소년들의 성을 상품화하는 등의 청소년 성관련 문제행동을 야기시켰다.

사회변화에 따라 성규범 역시 크게 변했으며, 이에 따라 성행동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 역시 변했다. 정절을 중요시 여겼던 시대에는 결혼 전 성행

동과 혼인관계 이외의 성행동을 일탈로 간주하였으나, 최근의 동향은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줄 아는 경우의 성행위는 문제를 삼을 수 없는 분위기로 변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행동이 기존에는 폭력이나 절도와 같은 중 비행으로 분류되었으나, 성에 관한 행동은 개인적인 일로 간주되는 등 성 개념의 변화와 함께 점차 지위비행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다(고성혜, 전명기, 박창남, 이희길, 1995). 학자별 청소년 비행의 유형 분류를 보면 김동일(1993), 김준호와 박해광(1994), 김준호와 이동원(1996a)의 연구에서는 강간 뿐만 아니라 이성과의 성관계를 성 비행으로 분류하였으나, 김준호와 이동원(1996b)의 연구에서는 성관계를 성인이 하였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지위비행’으로 분류하였다.

청소년 성 문제행동은 청소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성과 관련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지칭하는 매우 포괄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성혜, 전명기, 박창남, 이희길, 1995). 성 일탈행동(sexual deviance)이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양식”이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개념에는 강간이나 성추행, 성희롱, 매매춘과 같은 성범죄, 미성년자와 성인 또는 미성년자들 간의 성관계 및 성적 접촉과 같은 지위비행, 심리학적으로 이상행동(abnormal behavior)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도착증상(paraphilia) 등이 모두 포함된다. 즉, 청소년 성문제는 넓게 보아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의식적, 행위적 측면에서의 모든 규칙 혹은 규범의 위반행위라고 할 수 있다(김진화 외, 2002). 여기서 의식적인 일탈이란 혼전 성관계나 성매매 등에 대한 호의적 태도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의식적 문제영역을 말한다. 반면 행위적 성 일탈은 합의범죄, 갈등범죄와 함께 협의의 일탈에 해당되는 강간(성폭력), 성매매, 성관계, 포르노그래피 접촉 등이 포함된다.

청소년의 성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볼 때, 분명 지위비행에 더 가깝다. 예컨대, 그들의 자유의지에 따라 그리고 상호 애정과 존엄성이 전제될 때 이것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다소 위험한 행위일 뿐 그것이 문제행동이나 비행으로 규정될 수는 없다. 그러나 청소년의 성행위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성인 사회의 강요나 유인, 상업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 이 경우 청소년의 성행위(퇴폐, 겁객 행위 등)는 그들의 인격을 파괴하는 것이며, 청소년을 한 인간 개체로 보기보다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파렴치 행위에 속한다.

청소년 성관련 문제행동 가운데 성인들에 의해 자행되는 성적 접대와 겁객행위, 성매매, 각종 음란행위, 성을 상품화한 노출 및 호객행위, 성관련 공연행위 등은 모두 성인 사회의 유해행위에 따른 성 문제행동이다. 다만 성도착증상이나 포르노그래피, 관음증, 성희롱 및 성추행 등과 같은 이상행동들은 포괄적인 성 문제행동에는 속하지만, 이것이 성인들에 의한 유해행위의 직접적인 산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대한가족계획협회(1994)에서는 성 문제행동을 성 비행으로 규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 ① 음란물탐닉 비행 : 음란만화, 소설, 잡지 등 탐닉/ 음란비디오, 영화 시청, 음란물건 사용 장난
- ② 대체물품비행 : 성기대체물비행/ 여성물건접촉/ 이성복장착용
- ③ 이성희롱비행 : 부녀자희롱, 노골적 음담/ 음란전화, 편지, 통신/ 성기노출/ 훑쳐보기/ 남성접대, 유혹
- ④ 강제추행비행 : 강제추행/ 부녀자 기습추행/ 남성성기 구강, 항문 삽입/ 여성성기 이물질 투입
- ⑤ 동의성교비행 : 미혼성교/ 윤락가출성교/ 매춘, 윤락/ 혼외성교/ 근친상간
- ⑥ 강제성교비행 : 강간/ 어린이 강간/ 집단윤간/ 강도강간/ 가정파괴강간
- ⑦ 변태성교비행 : 가학성교/ 피학성교

우강미(1997)는 강간, 부녀자 희롱, 불순 이성 교제 등의 성 비행과 미혼모를 청소년의 성문제로써 설명하고 있으며, 이영숙(1993)은 청소년의 성 고민, 이성교제, 성 경험, 미혼모의 문제, 성 비행, 그리고 청소년이 당하는 성폭력, 성적 학대, 매춘문제 등을 청소년의 성 문제로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문용린(1994)은 성적 문제행동은 사창가출입, 성관계, 음란물 소지, 음란비디오 시청과 부녀자 희롱을 포함한다고 하

였다.

이와 같이 성 문제에 대한 개념과 범위는 연구자가 성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태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성관련 문제행동의 특징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 청소년들의 성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때 그 특징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성문화의 특징은 첫째, 이분법적 성문화를 보여 성관련 정보를 접하는 정도나 실제로 성행동을 하는 정도에서 경험이 많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뚜렷하게 분리된다. 둘째, 또래문화와 폐쇄적인 문화를 보여 대부분의 시간을 또래집단과 보내는 청소년들은 서로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고받고 그 집단 내에서 폐쇄적인 문화를 형성한다. 셋째, 남녀 유별 문화를 보여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들의 성문화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 각 집단이 향유하는 문화매체, 경험정도가 크게 다르다. 넷째, 기성세대의 이중성을 모방하는 문화를 보여 기성세대들이 보이는 성에 대한 이중성(공적으로는 허용하지 않지만, 은밀한 공간에서는 적극적인임)을 모방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상업적 성문화(성을 매개로 이윤을 추구함)를 적극 향유한다는 점이다(한상철 등, 2003).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성문제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내면적인 동기를 이해해야할 필요가 있다. 성인들과 달리 청소년들의 성문제행동은 그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 욕구가 왜곡되어 표현된 경우가 많다. 청소년의 성행동은 많은 경우 성적인 욕구 외의 다른 요인들, 특히 정서적 욕구에 의해 발생된다. 애정에 대한 욕구,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신의 남성성이나 여성성을 확인받고 싶은 욕구,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욕구, 분노표현의 욕구, 혹은 단순히 따분함을 벗어나고 싶은 욕구 등이 빠져버린 성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한상철 등, 2003). 예컨대, 부모에 대한 강한 적대감과 반항심을 갖는 경우 청소년들은 무분별한 성행동을 함으로써 부모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의 부정적 자아개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열등감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성을 통해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는 경향이 많다(한상철, 조

아미, 박성희, 1997).

이러한 청소년시기의 성문제행동은 청소년들에게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신미식, 2000; 조성연, 2000). 첫째, 무분별한 성행동은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하고,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포르노 접촉에 따른 성의식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확인되고 있는데, 포르노의 지나친 노출은 남성 집단에게 성차별적 고정관념과 강간통념, 더 나아가 성폭력 허용도를 강화함으로써 성폭력의 잠재적 집단을 형성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여성 집단에게도 나타나고 있는데, 자신을 도구적이고 도락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고, 성폭력 인지도를 약화시켜 남성 강압적인 성문화에 공모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자아개념의 변화 및 자아 존중감 상실이다. 성은 인간에게 가장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친밀한 사이가 아닌 경우의 성관계는 개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원치 않았는데 성관계를 갖게 되는 성폭력의 경우, 자기 통제력(self-control)의 상실과 자신에 대한 비하 등을 경험하게 된다. 여자 청소년들이 돈이 필요해서 성관계를 갖는 원조교제의 경우에도, 이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의식을 갖고 가능한 자신의 행위를 부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매매춘 행위를 원조교제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를 원하고 자신의 행위가 매매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자기부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부정, 자존감의 저하, 자신감의 상실은 성매매 산업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심해진다.

셋째, 청소년의 고립화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음란물 탐닉 청소년이나 성매매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위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동일한 경험을 갖는 일부 친구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가출을 해서 성 산업에 유입된 경우 더욱 심해진다. 따라서 인간관계의 부재 속에서 외롭고 고독한 존재가 되어간다.

넷째, 여성의 성이 상품화되고 여성 비하문화가 강화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남성우월주의 문화에서는 여성이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몸을 파

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행위는 남성 우월주의 문화를 한층 강화시켜 준다. 즉, 남성에게 여성은 일반 물건과 마찬가지로 돈이 있으면 언제든지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어린 여성에게도 예외가 아닌 이러한 행위는 여성을 비하시키는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더욱 강화시키게 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원조교제 혹은 매매춘현상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원조교제는 육체에 대한 건강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를 생존이 아닌 오락을 위한 도구로 간주하게 됨으로써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지고, 자기 존중감을 잃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나아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장래 희망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구승희 등, 2001).

2) 성관련 문제행동의 위험요인

위험(risk)의 개념은 “인간에게 발생하는 질병의 양상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 역학(epidemiology)에서 파생되었다(김정만, 2001). 위험요인(risk factor)은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평균적인 다른 사람들에 비해 발달상 문제를 일으킬만한 소지가 높아지도록 하는 특성 및 변인이다(Polland, Hawkins & Arthur, 1999; 지홍희 등, 2001 재인용). 즉, 부적응된 발달 산물과 관계되는 개인 또는 환경적인 특성이며, 객관적인 위험 상황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주관적으로 인식된 어려움이나 괴로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스트레스와는 구분된다(권태철, 2002).

위험요인에는 특정 장애에 대한 유전적인 소인, 다루기 힘든 기질과 같은 개별적인 특성이 포함될 수 있고, 스트레스 정도가 큰 외상성의 생활사건이나 만성적인 빈곤, 역경과 같은 환경적 요인도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Compas, Hinden & Grehardt, 1995). 위험요인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를 분석한 연구들은 대체로 위험요인과 청소년 비행 사이에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권태철, 2002). 유성경(1999)은 청소년 비행에 작용하는 위험요인을 가정관련 위험요인, 학교관련 위험요인, 지역사회관련 위험요인, 개인적 위험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가정관련 위험요인으로는 가정의 불화, 가족 구조의 결손과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 가족구성원들의 비행과 정신적인 문제들, 부모의 학대와 무관심이 포함되었고, 학교관련 위험요인으로는 나쁜 성적과 성적의 하락과 소위 노는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 교사들의 낙인과 무관심이 포함되었다. 지역사회관련 위험요인에는 지역사회에 청소년들의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실제적인 규범이 없는 것과 학교나 가정에 소속하지 않은 청소년 집단이 조직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개인적인 위험요인으로는 어려서부터 싸움을 잘해서 노는 아이들에게 눈에 잘 띄어 일찍 짝히는 경우와 거절을 잘하지 못해서 술자리같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모임이나 활동에서 효과적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포함되며, 분노조절이 잘 되지 않아 이를 폭력으로 표현하여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

박현선(1998)은 빈곤과 관련된 객관적 위험요인을 연구하였는데 개인적 위험요인(신체장애나 열악한 발육상태, 낮은 지능과 같은 발달 및 의료적 위험, 충동 및 공격 성향, 우울 및 포기 성향), 가족관련 위험요인(가족의 구조적 결손, 가족갈등, 가족의 사회경제적 위험, 가족의 의료적 위험), 거주환경 관련 위험요인(주거공간의 위생상태, 유흥업소 밀집정도, 지역사회 내 범죄 발생정도)으로서 이를 측정하였다.

지승희 등(2001)은 개인적 차원(공격성, 우울 및 불안, 반사회적 인지성향, 문제행동의 초기시작), 가정차원(학대적 양육, 비밀관적 양육, 가정 불화, 가족관계의 문제,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허용적 태도), 또래차원(부정적 또래의 무), 학교차원(교육에 대한 부정적 태도, 학교성적, 전학횟수), 지역사회 차원 등의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문제행동 관련 위험요인들을 제안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각 범주 내 위험요인들의 타당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가족요인(가족분위기 및 부모의 양육태도), 공격성(개인적 속성), 정신건강(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개인의 내적인 정서

상태), 친구요인(주변의 또래들이 얼마나 일탈행위에 가담되어 있는 정도), 일탈에 대한 태도(학교에 대한 태도, 법에 대한 태도, 음주에 대한 태도)의 다섯 가지 요인이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기초할 때, 성 관련 문제행동의 위험요인 역시 개인요인과 가족요인, 또래 요인, 학교요인, 지역사회 요인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는 이들 각 요인의 성 문제행동에 대한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1) 개인 위험요인

김정만(2001)은 청소년들의 성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으로 성적 충동 및 공격성, 감각추구성향(sensation seeking), 개방적 성태도, 음주 및 흡연, 낮은 자기 효능감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욕구에 따른 충동성 및 공격성의 증가이다. 청소년기의 급격한 신체적인 발달과 함께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들의 성적 성숙을 주관하고 성적 욕구를 지배하는 중요한 요인은 성 호르몬의 분비이다. 남성의 대표적인 성 호르몬은 안드로젠(androgen)과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이며, 여성의 성 호르몬은 에스트로젠(estrogen)과 에스트라디올(estradiol)이다. 이 가운데 특히 테스토스테론의 급격한 증가는 성충동과 공격성에 영향을 주며, 따라서 성 행동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사춘기 단계에서 성 호르몬의 급격한 증가는 청소년들에게 성욕을 자극하며, 이는 성적 공격성 및 성 위험행동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한상철 등, 2004).

둘째, 감각추구성향(sensation seeking)이다. Zuckerman(1979)은 감각추구성향을 “신기하고 복잡한 자극, 경험에 대한 욕구이며 그러한 경험을 위하여 신체적, 사회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자극추구성향이 높은 사람은 높은 수준의 외적 자극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자극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동기화되어진다고 제시

했다(한상철, 2004). 자극추구성향은 음란매체의 접촉도, 충동성 등과도 연관이 있는데 이한우(1990)의 연구에서는 음란매체의 접촉도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성적 충동이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박천일(1986)의 연구는 청소년들의 음란매체 접촉이 증가할수록 일탈적인 성향과 성적 일탈이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다(김정만, 2001).

셋째, 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이다. 이영숙(1993)은 혼전 성관계에 대한 태도와 성관계 경험률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가 성교 경험률을 높인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요즘 청소년들은 성 개방 풍조에 따른 성 태도를 지님으로써 성교 경험률이 10%를 훨씬 상회하며, 여학생들의 경우도 5~6%가 성경험을 한 것으로 보고하였고, 특히 여고생보다 여중생이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이고, 그에 따라 성 경험률이 더 높다고 하였다. 또한 미혼모의 가정환경과 성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김부자(1982)는 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지닌 여성들이 혼전 성 관계를 가질 가능성과 혼전 임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마찬가지로 강태순(1994)은 여고생의 이성교제,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이성교제의 경험이 많은 여학생일수록 성태도가 개방적이며,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인 학생일수록 성 경험과 임신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태근(1998)의 연구에서도 성의식, 성행동이 청소년 성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넷째, 음주 및 흡연이다. 윤가현(1996)은 한국 청소년들의 성행동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의 성경험 여부는 성역할 구분 태도 및 음주행위 등과 매우 높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음주행위는 이성교제처럼 청소년들에게 제한된 행위이지만, 이러한 경험을 자주 한 청소년일수록 성행동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여성이 남성과 다른 존재라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음주의 경험은 여학생들보다도 남학생들에게 매우 보편화되어 있는데, 상당수의 남자 청소년들은 음주의 동기를 여성과 성행동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즉, 수많은 남학생들은 여자가 술에 취해 귀가하지 못하게 하거나 성적 억압을 해이하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술을 마신다고 실토하였다(윤가현, 1998).

다섯째, 성 가치관의 혼란이다. 서구 사회의 성 개방 풍조가 도입되면서 우리의 성 도덕관 및 가치관이 자연생식에서 조절생식으로, 임신성교에서 피임성교로 변하게 되고 성교자체는 육체적 쾌락이나 향락의 가치로 변화함으로써 혼전순결에 대한 신화가 깨어지면서 청소년들의 문란한 성 경험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즉 전통적인 성 윤리관과 현재 성 개방 풍조가 맞물리면서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청소년들의 성 가치관도 혼란을 가져오게 되면서 성 문제가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조기은, 2001).

지금까지 성관련 문제행동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위험요인을 살펴보았는데, 이들 위험요인들 역시 청소년 유해행위를 일으키는 성인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개인의 생물학적 경향성 즉, 감각 추구성향과 성 호르몬 증가 등은 사회 환경적 영향과 거리가 먼 것이지만, 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나 성 가치관의 혼란, 음주와 흡연 등은 우리 사회 성인들의 유해행위와 무관하지 않다.

(2) 가족 위험요인

가정은 청소년이 태어나 1차적으로 관계를 맺고, 사회화를 배우는 곳이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가정환경, 가정 분위기 등과 부모의 교육 수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 등은 청소년들의 성 문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한상철, 2004).

첫째, 가족의 구조적인 요인이다. 민병근과 김현수(1992)의 연구에서는 일반중고생 1,440명과 소년원에 재소중인 비행청소년 2,197명(성비행 48명, 기타 비행청소년 709명)을 대상으로 가족구조 및 가정의 인구학적 특성과 성비행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이 대가족(혹은 확산가족)에 속한 경우, 가정의 수입원으로 부모가 아닌 친척에게 의존할 때, 또한 부모와의 별거경험이 많을 때 성비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호 등(1990)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방식이 권력지향적일 때 전반적으로 비행을 일으키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에 따르면, 결손가정 여부는 남자, 여자청소년의 모든 비행에 있어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며, 여자청소년들의 비행에 있어서 좀 더 의미있는 차이가 있고, 결손가정의 여자청소년의 경우, 지위비행과 성 비행을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실태조사(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2000)에서도 구조적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비결손 가정의 청소년들에 비해 청소년 성매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부자(1986)의 연구에서도 또한 결손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일수록 성범죄나 무분별한 성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또한, 이영숙과 고성혜(1994)의 연구에서도 청소년 비행에 대한 가족환경을 가족구조결손, 부적절한 양육환경, 가족구성원 개인의 문제, 가족구성원 관계상의 문제, 훈육의 부재 및 잘못된 훈육, 위기적 사건의 경험이라고 하였다.

둘째, 부모의 양육방식이다. 민병근과 김현수(1992)의 연구에서 전체적이고 자녀의 자유를 구속하고 어른 중심적이고 처벌위주의 양육방식을 경우 자녀의 성비행 성향이 높았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김준호 등(1990)의 연구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친밀도가 낮을 경우 비행의 개연성이 높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성 경험에 관한 조사(Miller et al., 1997)에서는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대와 목표가 높은 부모를 가진 청소년과 부모의 감독이 잘 이루어지는 청소년일수록 성경험과 임신경험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진(1998)의 비행소녀의 가정환경에 관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부모-자녀관계의 양상이 좌우되며 바람직하지 못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였다. 특히 부부갈등과 가족응집력,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 소녀비행 중 성 비행과 관계가 있으며 특히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문제가 있을 때 성 비행이나 지위비행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또한 이진(1998)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집안 분위기에 대해 불만족하는 여학생일수록 성적 피해 경험이 많음을 보고하였다.

셋째, 가정의 성교육 부재이다. 많은 연구자들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성문제행동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임을 강조한다. Blanchard와 Becker(김진화 등, 2002

재인용)는 청소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성애적 사회화에 적응하여 동년배의 이성파트너를 만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기술을 학습하지 못하면 일탈적 성행동에 몰입하게 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Garnon(김진화 등, 2002 재인용)은 부적절한 자극과 이성애 기술 획득의 실패에 무게를 둔다. 그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정상적으로 이성애 기술의 획득에 성공하면 일탈적 성행동이 일어나지 않지만 실패하거나 애매할 경우에는 성 일탈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Howells와 Marshall(김진화 등, 2002 재인용) 역시 청소년들의 일탈적 성행동에 대한 사회적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청소년들이 사회적 거부나 폭력적인 부모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사회적응기술이 부족하게 되면 일탈적 성행동에 빠져 들기 쉽고, 따라서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사회적 유대의 강화와 친밀성 회복을 위한 기술연마가 필요하다고 본다. 청소년기의 성교육은 이성과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유해환경과 경제 일변도의 가치관은 가정의 구조적 결손과 기능적 결함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를 비롯한 가정의 교육적 풍토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사회 성인들이 청소년을 이용하거나 착취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자녀 학대와 무관심, 자녀의 기본 생존권 박탈 등도 중요한 유해행위가 되며 이것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 더 강력하게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3) 또래 위험요인

청소년기는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친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양적·질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이다. 또래는 청소년기의 적응과 사회적 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므로 친구는 청소년에게 중요한 사회 맥락적 요인이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자신과 비슷한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또래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지지를 얻으며, 가정 밖의 세계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얻는다(조기은, 2001). 한편, 청소년들의 집단동조압력은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데,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동을 함께 하도록 압력을 받으며, 그 결과 비행 등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성인숙, 1999).

특히, 청소년들의 성문제행동은 친구간의 관계나 영향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생 중 또래에 대한 동조경향이 가장 높은 청소년기에는 성행동 뿐 아니라 성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 또한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래집단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성사회화 집단으로서 상호간에 성지식과 성 태도를 교환한다(김혜원, 이종민, 2001; 김혜원, 이해경, 2002; 한상철, 2004).

형사정책연구원(2001)의 조사에 의하면, 주변에 비행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친구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여자청소년의 비행 가담률이 높고, 특히 친구에 대한 애착은 성 비행(이성과의 성관계, 매매춘)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강태순(1994)의 연구에서 친구들의 성 경험 유무에 관한 질문에 62.5%가 친구들의 성경험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여학생들이 친구들의 성 경험에 매우 익숙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술, 담배를 하고 있는 학생 군에서 친구의 성 경험에 대해 대다수(흡연: 94.0%, 음주: 82.2%)가 들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하였다. 즉 성 경험을 한 여고생일수록 비행을 경험한 친구가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여자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에서도 주변에 비행친구의 수가 많고 친구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성 비행 가담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문·실업계 남녀 고등학생 1,124명과 수용시설 원생 346명을 포함한 총 1,470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비행친구의 수는 성비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형사정책연구원, 1996). 또한 강간범죄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보면 21세 이상의 성인 강간범 가운데 공범의 비율은 21.6%인 반면, 20세 이하의 청소년 강간범 중 공범의 비율은 82.3%나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강간범죄를 저지를 때에 공범과 함께 강간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이성구, 2000).

김대식(1981)과 이인섭(1987)은 청소년들은 성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 습득과 대화를 친구들과 한다고 하였으며, 이상문(1995)은 친구집단의 일탈적 성향이 높을 때 청소년의 성적 허용태도가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조양순(1998)의 연구에서는 성폭력을 한 비행청소년 주변에는 성 비행을 같이 저지를 수 있는 친구들이 반드시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즉, 비행청소년들의 성 비행은 다분히 비행또래 집단을 통해 강화되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4) 학교 위험요인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입시과목을 잘하는 학생은 훌륭하고 문제없는 학생이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문제 있는 학생으로 취급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실 내 친구 관계도 협력과 도움보다는 경쟁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최충욱, 1992). 학교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학교성적은 비행과 상당히 강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공부에 대한 흥미도 비행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리고 교사들과의 관계는 고등학교의 경우 비행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교사에 대한 애착과 비행의 관계는 매우 영향이 깊다고 할 수 있다(김정만, 2001).

김준호와 박미성(1993)의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친구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높고, 친구를 사귀으로써 얻게 되는 보상을 기대하는 정도가 낮으며, 비행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친구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김종희(1990)는 학교생활에 적응적이지 못하며, 학교에서 성공적이지 못한 청소년은 성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현정(1997)은 남학생은 개인적 요인 중 학교생활 부적응과 부모의 낮은 통제적 태도에 의해 성 비행을 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5) 지역사회 위험요인

청소년의 성관련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지역사회에 산재되어 있는 유해환경이며, 성인들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행위 역시 대부분 유해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위험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유해 퇴폐·향락업소의 산재이다. 우리 사회는 주거지, 학교 주변 구분 없이 아무데나 유흥업소들이 산재해 있어 비교육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다. 아무리 가정이나 학교에서 교육적인 환경을 만들어도 대문만 나서면 온갖 퇴폐·향락업소들이 그대로 학생들에게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유해환경은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자극시키고 있으며, 가정과 학교 밖으로 청소년을 유인하는 강력한 인자가 되고 있다(한상철, 2001).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들로 PC방(게임방), 비디오방, 노래방, 주점, 나이트클럽, 만화방 등이 있는데, 이들 업소들의 경우 생계형 업소로 출발을 하였지만 점차 영업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변질된 형태의 운영을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으로 변모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성적 자극과 폭력, 성관련 문제행동을 조장하고 있다.

업소들의 유해요인으로서는 음주와 흡연, 음란행위 자극, 싸움, 고성과 법석담, 조직폭력배 등 주변인물의 압력, 향락적 분위기, 이성간의 자극적인 접촉, 성적 호기심 자극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소년들의 성 문제행동을 촉발시킨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유해매체를 통한 성의 상품화가 성적인 자극을 유발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외설적인 음란물은 청소년들의 성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성인잡지, 비디오, CD, 인터넷 등의 음란물의 범람이 청소년의 성충동을 자극하고 있으며, 그 속에 담겨있는 폭력성이 극단적인 성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보는 성”은 청소년기의 남학생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으며, 이것은 실제 성 행위를 유도하기도 한다.

유해매체 가운데 특히 동영상매체는 동적이고 감각적이며 강력한 호기

심을 자극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성에 대한 그릇된 정보와 환상을 갖도록 유도한다. 이 밖에도 인쇄매체나 외설 등 역시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갖도록 만들며, 끝없이 반복되는 행동과 상상을 통해 음란물 중독을 야기시킨다.

셋째, 성인 사회가 갖고 있는 왜곡된 성문화는 청소년들의 성문제행동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성적 쾌락주의를 부추기는 각종 성관련 산업과 남성적 성을 과장하고 왜곡시키는 성문화 등이 청소년 성문제의 사회적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는 가부장적 성문화 속에서 여성의 성을 남성의 소유로 보고, 여성은 성적 자율권이 없는 수동적인 존재로 보며, 여성은 성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간주한다. 또한, 도덕적 기본 개념의 붕괴와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와해, 옳고 그름에 대한 모호함과 더불어 냉혹한 경쟁사회가 낳은 비인간성이야말로 성 윤리의 타락을 자초했으며 왜곡된 성문화를 잉태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사회의 왜곡된 음주문화가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성 행동을 자극하고 있으며, 술을 통해 성 행위를 정당화하고 여성을 상품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을 술자리의 접대부로 고용하고接客행위를 조장하며, 음란행위를 유도하고 있다. 이것은 성인들의 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청소년을 이용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술자리에서의 위험요인은 수 없이 많다. 특히 통제력 상실로 인해 야기되는 욕설과 과장된 행동, 시비, 성적 충동, 성적 환상 등은 성 공격행동을 야기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4. 청소년 유해행위 관련 선행연구 분석

1) 청소년 유해행위와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구

유해행위는 성인들의 유해행위 자체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유해환경 및 유해업소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다. 유해환경은 청소년들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기성세대의 탐욕에 의해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들의 탈선은 기성세대들이 조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유해환경은 청소년들의 호기심이나 욕구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 유해한 시설 및 장소, 물품, 출판물, 영상물을 만들고 그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어른들의 유해행위로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유해환경은 청소년에게만 유해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본질상 유해한 것이다. 여기서는 성인 사회의 유해환경 및 유해행위로 인한 청소년의 문제행동 실태와 그 관련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유해 장소로 인한 청소년의 문제행동이다. 여관, 여인숙 등의 숙박업소는 본래의 목적인 숙박보다도 각종 탈선 및 율박행위에 이용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일 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퇴폐·향락에 사용되는 유해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숙박업소의 유해행위로는 율박녀를 고용하여 율박행위를 알선하는가 하면 음란비디오를 상영하기도 하고, 청소년들의 혼숙행위를 허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약, 환각제 사용 등을 용인 또는 묵인하기도 한다. 이러한 숙박업소 이용경험과 비행경험의 관계를 살펴보면, 숙박업소 이용경험이 많을수록 음주, 흡연, 무단결석, 집단패싸움, 가출, 이성과의 성관계, 폭행, 위협, 율박업소 아르바이트, 흥기소지, 야간배회, 도박, 절도, 성추행, 성폭행, 음란낙서 등 각종 비행의 경험이 높다(도종수, 1990).

박성혁(2001)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실태와 청소년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 유해업소의 증가가 청소년의 불법출입과 고용의 원인이 되므로 청소년 보호방안으로서 법적인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등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신성길(2000)의 연구에서도 유해업소 중 청소년 비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업소로 담배를 많이 피우는 커피숍, 비디오방, 여인숙, 섹스샷의 출입과 율박주점, 디스코장, 콜라텍, 포장마차 등을 언급하였다. 이들 유해 장소에서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묵인하는 업주들로 인해 청소년이 접하기 쉬운 장소에서 유해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김효선(2000)의 연구에서도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이 유발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유해물품과 대중매체로 인한 문제행동이다. 성인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해물품들이 청소년에게는 위험 및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담배자판기의 이용경험은 흡연과 가장 관계가 있고, 음주, 패싸움, 이성과의 성관계, 가출, 폭행 등을 일으키며, 히로뽕, 마약, 마리화나 등 약물류나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제의 사용경험은 성폭행, 절도,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패싸움, 성추행, 가출, 이성과의 성관계 등의 문제행동을 유발한다.

대중매체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고 위력적이다. 청소년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범죄행위를 시청한 후 실제로 범죄를 모방한다는 연구결과는 매우 많다. 김영갑(2003)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72.3%가 실제로 범죄 행위를 모방하였으며, 여학생은 64.1%가 범죄를 모방하였다. 이것은 텔레비전, 컴퓨터, 비디오, 신문, 성인 만화 등 각종 대중 매체의 역기능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1997)이 중·고등학생 443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물에 대한 유해성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음란비디오(33.9%), 음란PC통신(13.5%), 불법CD-ROM(10.4%), 성인영화(10.4%) 등은 유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외국 음란잡지(4.7%), 성인잡지(3.4%), 스포츠신문(2.7%) 등 인쇄매체의 유해도 평가는 매우 낮은 반응을 보였다(이홍영, 2000). 또한 도종수(1990)의 영상매체 유해도 평가 연구결과에서도 역시 음란비디오, 성인영화, 일본방송순으로 유해하다는 반응을 보여 음란비디오의 유해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셋째, 성인사회의 유해 상황에 따른 문제행동이다. 도종수(1990)의 연구에 따르면, 식구들의 잦은 음주도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에 영향을 미치고, 어른들의 술주정 또한 청소년의 가출, 성추행 등을 일으킨다. 또한 청소년들은 제반 사회 상황 중에서 황금만능주의 풍조, 과소비 풍조, 유흥가 불량배 등도 청소년의 유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할 때, 우리 사회의 일부 성인들이 유해매체, 유해물품 등을 이용하여 주로 유흥업소 등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익을 창출하고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유해행위가 되며, 이러한 유해행위는 청소년들의 각종 위협행동은 물론이고 성관련 문제행동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청소년 유해행위 개선대책에 대한 연구

청소년 유해행위는 주로 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으며, 청소년 유해행위와 관련하여 현재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청소년 성매매일 것이다. 최근 청소년의 성매매가 급증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여성개발원(2002)의 조사에 따르면, 2001년 1월-11월 사이 경찰의 단속활동에 따라 업소에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윤락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소개·알선하여 검거된 사람(미성년윤락)은 312명,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의 성을 사거나 이를 매개하여 검거된 사람(청소년성매매)은 7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소년성매매의 개선을 위해 한국여성개발원(2002)은 미성년여성 성매매 관련법의를 개선해야 하고, 미성년여성 성매매 관련법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다. 미성년여성 성매매 관련법의 개선방안으로서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교행위의 개념을 확대하고, 청소년의 연령인식 관련조항을 신설하며,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조정하고, 마지막으로 신상공개의 법제 정비와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성년여성 성매매 관련법 시행의 실효성 확보방안으로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규제 및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의 활성화, 대상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적극적 활용,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시설마련 필요, 건전 성문화 조성사업 전개, 인터넷상에서 사이버 수사대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종웅(2004)은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교육의 개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의 활성화, 성매매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성매매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을 제안하였다. 이광수(2002)도 또한 비행청소년 대상 청소년의 성매매 실태

와 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고, 청소년 성매매 대처방안으로 4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가정 환경적 대처방안으로서 가정화목을 통한 자율규제 체계를 조성하고, 청소년 성매매가 주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부모의 컴퓨터 지식습득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둘째, 학교 환경적 대처방안으로서, 열린 학교교육의 실현과 전문상담교사제도 도입 그리고 성상담실 개설을 주장하였다. 셋째, 사회 환경적 대처방안으로서 건전한 놀이문화정착과 청소년의 노동시장 확대, 청소년 교정과 처우 프로그램의 개선,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를 통한 교육기회의 부여, 직업전문학교 등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치료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넷째, 국가 정책적 대처방안으로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성용은(2004)은 향락업소 등의 공적 매춘보다는 정보통신 발달로 인한 사적 매춘에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고, 개인형 성매매의 실태 분석과 더불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이러한 유해행위 자체의 개선방안보다 유해행위를 일으키는 유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 김문조와 이성식(1994)은 유해업소와 청소년비행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유해업소의 출입경험은 주로 가출, 흡연, 음주, 무단 결석, 거짓말, 컨닝 등 지위비행 충동과 관련이 깊고, 카페, 디스코장, 술집 등 다소 비용을 요하는 업소출입은 재산비행 충동과 관련이 깊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이성조(1997)의 연구에서는 유해지역에서 학생들이 유해업소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해성에 대한 인식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을 통해 자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유해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도종수(1990)는 유해환경 개선의 기본방향은 사회의 교육적 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역사성과 전망의 바탕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가 청소년 생활의 공간과 범위를 축소해서는 안 되며, 교육적인 환경의 적극적인 조성을 통해 활동 거리와 공간을 제공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리와 규제는 그 과정이나 절차가 제도화되어 지속되어야 하며, 시민의식의 각성과 자구적인 시민운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는 강권적인 금지수단과 설득적인 수단이 적절히 조화되어야 하며 시민이나 업주들의 자율적인 규제를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정음(2003)은 수원시 청소년유해환경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방과 후 여가를 위한 공간 확보 방안과 청소년보호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불법퇴폐업소에 대한 수원시의 홈페이지 공개와 업소출입구 표시를 통한 출입억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을 활용한 방과 후와 주말 청소년들의 참여 유도,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주장하였다. 그 중에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방과 후 여가를 위한 공간 확보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신정희(2001)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유해환경경험과 비행경험을 분석하고, 유해업소의 재이용 및 유해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별, 학교계열, 성적, 부모의 학력, 가정형편, 주거형태, 주변환경, 학교환경 등이 유해환경 접촉과 관계가 있으며, 비행결정에서는 배경변인보다 유해환경 접촉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재후(2001)는 청소년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청소년문제를 유발하는 유해환경의 실태와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으로서 가정환경의 개선, 유해환경 감시활동 방법의 개선, 관련기관 활동의 강화,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지도,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을 제시하였다.

Ⅲ. 유해행위로 인한 청소년 성폭력 및 성매매 사례

1. 청소년 성폭력의 사례와 대처방안
2. 청소년 성매매의 사례와 대처방안

III. 유해행위로 인한 성폭력 및 성매매 사례

1. 청소년 성폭력 사례와 대처방안

1) 청소년 성폭력의 특징

청소년 유해행위는 성인들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청소년을 이용하거나 착취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하는 등의 비인권적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성인들의 청소년 인권침해 사례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하고 부정적인 것이 미성년자에 대한 강압적인 성폭력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형사미성년자인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가해지는 성폭력(간간, 추행, 희롱, 성기노출, 음란통신, 음란물보이기, 율락행위 강요 등)의 경우 주로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는 점에서(약 70%) 성인 사회에 대한 배신감과 모멸감은 훨씬 더 클 것이며 이로 인한 후유증 또한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다(한국성폭력상담소, 1999). 어린이가 믿고 친밀감을 보이는 친족, 교사, 유치원 원장, 통합버스 기사 등이 어린이에게 합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관계를 악용하여 어린이를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점에서 성인들의 미성년자에 대한 유해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14세 이상~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성인 사회의 성폭력과 성적 학대는 양적인 면에서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며, 해결 방법 또한 매우 불합리하다. 청소년 유해행위는 성인들이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이용하여 성적 접대나接客행위를 일삼고, 흥행을 목적으로 음란행위와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성폭력과 직결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법적으로 만 13세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은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으로 폭력의 사용여부, 저항의 여부, 동의의 여부를 불문하고 범죄행위로 취급되어 엄하게 처벌 받고 있다. 그러나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성폭력 피해자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강간치상이나 윤간, 흥기를 소지하거나 야간에 침입하거나 강도강간

등 특수강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의된 성관계를 의심받게 된다. 이는 요즘의 청소년들이 성에 대하여 매우 개방적이고 자발적이라고 보여 지고, 어느 정도 판단과 방어의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피해가 고소되어 수사 재판과정에서 동의된 성관계를 의심받고 거짓말 탐지기를 하도록 명령받았으며, 부모의 보호도 없이 억압적인 상황에서 진술과 대질심문을 하기도 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되곤 한다. <미성년자 간음>이라는 죄목은 <혼인빙자 간음>처럼 실제로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 청소년기에는 성적인 정체감과 자아정체감 형성에 예민한 시기이므로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는 부모들은 고소를 하면 자녀가 더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망설이기도 하고, 고소를 했다가도 합의를 조르는 가해자 측에 시달려 고소취하를 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

가임기인 여자 청소년 피해자들이 겪는 신체적 피해 중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피해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고 혹시 임신이 되거나 성병에 걸린 게 아닐까 불안해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임신중절이 어려운 6개월 이상까지 손을 못쓰고 있다가 무리하게 낙태를 하여 몸을 상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수 없이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낳은 아이를 하루도 안 되어 입양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정서적인 충격으로 불안, 공포, 민감, 집중력 저하, 악몽, 불면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절망감, 순결상실감, 자포자기로 섭식장애(거식증, 폭식증), 자해, 자살기도, 우울증 등 정신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 특히 다른 사람이 알까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힘들기도 하고, 또는 남성을 기피하고 혐오하기도 하여 대인관계나 가족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게 되어 학습부진, 방황, 가출, 자퇴를 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어떤 경우 자기감정을 억압하고 상처를 보상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학업에만 매달리거나 종교에 빠지기도 하는데 부정적인 자기개념으로 인해 과잉희생, 과잉통제를 나타내기도 하며 다중인격적인 면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많은 피해자가 무력감과 자포자기한 심

정으로 성폭력에 계속 노출되어 반복피해를 당하기도 하며 스스로 불량학생들과 어울리거나 파괴적인 분노표출로 성적 방종이나 윤락행위에 뛰어들기도 한다.

따라서 성인들에 의한 청소년 유해행위가 청소년 성폭력으로 이어질 때, 피해자인 청소년들은 인권의 침해는 물론이고 다양한 정신적 장애와 후유증을 겪게 되며, 이것은 사회적 문제행동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사실상 법적 보호나 사회적 책임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음으로써 사회에 대한 모멸감과 삶의 절망감을 겪게 되고 결국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

한편 성폭력 가해 청소년의 경우 이들의 왜곡된 성의식과 성행동이 교정되지 않은 채 성인기로 진입할 때 이들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행위와 성폭력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폭력 가해 청소년들은 그들의 행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행위임을 자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정책은 이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치료하는 것이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행할 수 있는 청소년 유해행위를 차단하는 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2) 청소년 성폭력 사례

중학교 교장 성추행 사건, 유치원 원장 성추행 사건 등 교육자의 성추행 사건이 잇달아 알려져 사회에 충격과 파문을 일으켰었다. 이 두 사건 모두 국가공인 교육시설 내에서 믿고 맡겨진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자에 의하여 교육이란 미명 하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학생과 원아를 대상으로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불러 일으켰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O양 비디오를 보고 소감문쓰기를 시킨 남교사, 도난품을 찾는다고 여학생의 치마 속과 가슴을 만졌다는 남교사의 사례도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교육자라는 성인들이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이 또한 분명한 유해행위이다.

<학령전 어린이>

유아피해는 학령기 어린이(8세~13세)에 비하여 강간보다는 성추행피해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성추행의 경우 신체적인 상해의 증거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며 염증, 충혈, 출혈 등이 있어도 피해경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결국 진단서를 첨부하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유아들은 자신이 당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일관성있게 묘사하지를 못한다. 또한 자신의 두려움이나 불안, 꺼리낌을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표현(악몽, 퇴행, 신체화 장애)으로 나타내는 경향이 많다. 가해자에게 따진다거나 법적처리를 하려할 때 아이가 머뭇거리거나 일관성있게 대답을 못해 오히려 반박과 비난을 받게 되어 어려움에 처해진 경우가 많다. 피해정황을 다른 아이처럼 분명히 표현 못한다고 야단을 맞은 아이가 있는가 하면, 아주 똑똑하게 진술한 아이는 어른에게 사주된 것으로 취급되었고, 수사 재판과정에 불려 다니며 진술을 한 아이는 큰 건물만 보면 공포에 떠는 후유증을 보이기도 한다.

1. 유치원 원장이 예절교육, 성교육을 시킨다고 70여명의 유치원 원아들에게 성기를 빨게 하고 성기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하고는 말하면 혼내준다고 흥기로 인형을 찌르며 협박하여 아이들이 악몽과 이상행동을 보여 학부모들이 고소함. 징역 7년 선고. 이 과정에서 진술한 아이는 고소에 합류했으나 진술 안하려한 한 아이는 부모의 다그침에 놀라 해리현상을 보임.

2. 5세 여아가 유치원 원장에게 성추행당한 후 자위, 동생에 대한 가해행위 등 심각한 후유증을 보여 정신과치료 받음. 고소하였으나 가해자가 계속 부인하고 어린 유아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혐의처리. 정신과 의사의 증언까지 있었으나 계속 기각됨. 이 과정에서 유치원교사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대치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이에 상처를 받은 유아와 모는 정신과 병원에 입원치료하기도 함.

3. 피아노 학원의 플룻 선생이 7살 여아의 질 안에 손을 넣음. 아이가 밤마다 잠지가 아프다고 하여 산부인과에 가서 치료받고 소견서 받아옴. 원장과 강사가 처음에는 아이 말을 듣고 증거 없이 모함한다고 펄펄 뛰고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함. 이 과정에서 다른 아이의 피해가 드러나 합세하자 싹싹 빌며 돈으로 합의하자고 조름.

<초등학생>

초등학생의 인정받고 칭찬받고자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교사가 성적인 접촉을 한 경우 피해아동에게 혼란을 주고 지속적인 피해가 가능하였다. 대부분의 피해아동들은 부모보다 교사를 더 막강하게 느끼기도 하고, 학교에 와서 항의하면 소란스러워질까봐,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부모들도 분하면서 아이도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을까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 교사에게 여러 아이들이 피해를 당해온 경우에는 문제 제기하자고 규합하기 쉽기도 하지만 학부모들의 의견이 엇갈려 후속처리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도 있다. 문제를 인지한 많은 여교사들이 해결책을 찾으려 애써 보지만, 대부분 명예퇴직을 원하는 학교장은 관리상 문책을 모면하려 사건을 은폐·무마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1.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방과 후 남아라고 해서 가슴을 만지고 빠는 등 성추행을 여러 차례 하여 교장에게 담임을 바꾸어 달라고 편지를 하였으나 반응이 없자 학교를 전학시켜달라고 엄마를 조름. 남자 어른에 대한 공포와 기피 등 후유증을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이 사실을 인지한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지고 학교에서는 담임만 교체하고 병가로 처리했다가 다시 근무함.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 결국 교사는 사표를 내고 교장은 전출됨. 이 과정에서 교장은 사건을 은폐하고 무마하기에 급급하고 육성회 등에서 교사를 위한 탄원서를 연대서명하고 피해학생과 부모를 비난하여 큰 상처를 받았고 중학교에 진학하고서도 이 일을 아는 동창들에 의해 소문이 나서 결국 전학을 함.

2. 6학급의 작은 초등학교 교장이 45학년 여아들을 관사에 오게

하여 성추행을 해음. 여아들이 양호교사에게 상담하였으나 너희가 조심하고 따라가지 말라고만 함. 상담소에서 사실 확인하니 양호교사는 교장이 간접적으로 사과하였다며 학부형도 좁은 마을이라 문제 삼으려 하지 않는다며 곤란해 함. 교육부와 교육청에 알려 조치를 촉구하자 정년퇴직이 2개월밖에 남지 않아 경고를 하였다고 함.

3. 맹아학교 6학년 담임이 수업시간에 아이들을 성추행해 음. 한 아이가 어머니에게 알려 고소함. 가해자는 다른 학교에서 성추행사건으로 전근해온 사람인데 합의해달라고 끈질기게 쫓아 다녀 피신을 해야 했음.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은 학교가 어수선하니 웬만하면 합의해주지 모질다며 오히려 비난을 함. 앞으로 중·고등학교도 그 율타리에서 다녀야하기에 할 수 없이 1심 선고 전에 사직을 조건으로 고소취하를 함.

4. 초등학교 남아가 담임여교사에게 급우와 여동생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추궁과 바지를 벗기는 등의 성추행을 당함. 여동생도 불려가 추궁 당하자 둘다 학교가기를 거부하여 부모가 알게 되고 학교에 항의함. 여교사가 계속 부인하자 방송국에 제보하여 보도하고 가혹행위로 고소함. 여교사는 학부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이 와중에 남아와 여동생, 어머니가 정신과치료를 받게 됨.

5. 고1 여학생이 중학교 때부터 우울증, 실어증으로 계속 정신과 치료받았는데 엄마가 일기장 보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에게 성추행당한 후유증임을 알게 됨. 진상을 알아보니 다른 학생들을 성추행하여 학부모들이 항의하였으나 교장이 명예퇴직하고 싶다고 무마했다고 함. 그 교사는 현재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음. 교육청에 진정하니 형사상 범죄로 확정되어야 징계할 수 있다고 하여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친구들을 수소문하여 고소함.

6.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담임교사의 계속되는 성추행으로 학교생활이 어렵다고 5학년 때 담임 여교사에게 하소연하여 여교사들이 학교장에게 처벌을 요구. 그 교사는 우수교사로 교육부표창까지

받았었다고 함. 자세가 나빠 교정해 주려 했다고 우기다가 아이의 진술서를 보여주자 학부모에게 사과하고 다른 학교로 전직함. 이 과정에서 문제제기한 여교사들을 전교조라 몰아 부치며 억압함.

7.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 편부, 편모슬하의 어린이들만 골라 성추행, 강간함. 지속적으로 강간당한 아이가 동맥을 끊어 자살기도하면서 사건이 노출되어 진상을 알아보니 피해자가 10여명에 이름. 고소를 꺼리는 학부모와 고소를 주장하는 학부모들간에 의견 조정이 안 되는 과정에서 언론에 먼저 노출이 되자 모든 부모들이 밝혀지기를 꺼려해 무마됨.

8. 초등학교 교사가 몇 년에 걸쳐 수 없이 많은 아이들을 성추행 해왔는데도 차마 부모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인지한 부모도 자기 아이에게 해가 돌아올까봐 쉬쉬하기도 하여 은폐되어 있다가 알려짐. 육성희 엄마들이 들고 일어나 파면을 요구하고 방송에서 보도하자 교육위원회에서 징계됨.

9. 10살 여아를 3학년부터 60대 담임교사가 계속 성추행. 만지기도 하고 자기 성기를 만져 달라고도 함. 너도 퇴학당하고 나도 당한다고 협박하여 얘기를 못함. 담임이 바뀌었는데도 특별반에서 계속 마주침. 멍하니 앉아있고 깜짝 놀라고 밑이 가렵다고 팬티를 아무데서나 벗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보여 부모가 알게 됨. 교장에게 알리자 선생이 잘못을 시인하고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사직서를 받음. 학교에서는 고발하면 직무유기로 학교가 책임 문책당하니까 서로 좋게 해결하자고 유도했으나 검찰에 사건 접수시키고 교육청에도 진정함. 가해자 측에서 합의하자고 자꾸 찾아와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되지만 끝까지 처벌하겠다고 함.

10. 초등학교 육상부원인데 아이들 보는 앞에서 체육교사가 껴안음. 또 교실에 갔다가 추행당함. 가해자는 이전에 5학년에서 추행사건으로 학부모들이 수업 거부, 담임 교체요구 있자 4학년으로 내려

온 전력이 있음. 교장 면담하자 곧 다른 학교로 보낼테니 기다려달라고 함.

<중·고등학생>

상습적으로 교사에게 수업 중과 생활지도 중에 성추행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항의는 교육행위이라는 미명하에 묵살되고 마는 경우가 많다. 강간사건인 경우에는 위계로 유인했지만, 학생이 선생을 사모하여 쫓아 다녔다거나 집으로 찾아왔다며 화간을 주장하는 파렴치함을 보인다. 이 경우 미성년자간음, 업무상 위계에 의한 간음 및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다.

1. 학교 태권도부에 들어간 중1 여학생이 동계합숙훈련 중 태권도부 사범에게 강간당하여 이를 인지한 부모가 상담, 경찰 연계하여 고소, 2년 징역 선고.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은 전학하고 운동도 중단함.

2. 작문교사가 고3 여고생에게 특기생으로 대학 추천해 준다면 소설을 쓰려면 성적인 것도 잘 알아야 한다며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려하자 저항하고 도망쳐 나와 구조요청하고 고소함.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의 취하하라는 압력을 받고 동급생들이 항의성명서를 발표함. 피해여학생은 특차 추천시기를 놓쳐 재수를 하게 됨.

3. 체육특기자라 합숙훈련을 하는데 감독이 선수를 호텔로 데려가 성추행함. 거부하면 훈련도 잘 안 시켜주고 출전도 안 시킴. 서로 애기하다가 여러 명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학부모에게 알려 고소함. 학교에서는 감독 개인의 과오라며 관리상책임을 안 지려고 하며 약속하였던 특기생 추천을 안 해 주려 함.

4. 고1 여학생이 귀가 길에 학교 컴퓨터 강사가 차에 타라고 해서

친구 2명과 탔는데 친구들을 중간에 내려주고 나서는 “포르노 본적 있냐, 팬티 입었냐 보자”며 밑에 손을 넣고 브라우스 안으로 가슴을 만짐. 내리겠다고 펄펄뛰자 방학하면 연락하라며 뽀뽀 번호를 적어 줌. 학교에 항의하니 정식 교직원이 아니라고 책임 회피함.

5. 대학 부속여고 교사가 여고생들의 히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빈번히 하고 항의하면 성적 폭언을 함. 대학 총장의 막내아들이라 문책도 안당하고 계속 근무함. 졸업한 선배들이 후배들이 계속 당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법이 없나,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문의.

6. 남교사가 학생들의 겨드랑이를 잡거나 엉덩이를 잡거나 가슴을 스치는 행동을 상습적으로 하는데 오히려 피해를 당한 학생을 노는 애라는 둥, 버릇없이 투덜거린다다는 둥 하면서 심하게 야단치곤 하는데 고3이라 수능도 얼마 안 남고 내신도 걱정이 되어 문제제기를 못하고 있음. 담임에게 의논하자 “너희가 공부안하고 떠드니까 야단 맞는 거지”하며 문제화될까 귀찮아하며 회피함.

7. 엄마가 재혼한 후 외할머니와 사는 고1 여고생을 학교 체육선생이 유인하여 3일간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강간. 엄마가 새 아버지와 함께 찾아가 때려주고 강간으로 고소하였는데 교사는 아이가 찾아왔다면 화간을 주장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함.

8. 여고생을 고교 교사가 강간 후 지속적인 성 관계를 요구하며 목을 조르고 문신을 새기기도 하여 정신과 치료받고 있음. 엄마가 따지러 갔는데 워낙 문제가 있던 불량학생이라며 가해선생이 오히려 기고만장해 있다고 함.

9. 고2 여학생인데 사귀는 오빠와 여관 들어가다가 선생에게 들켰는데 이를 미끼로 3번이나 성추행을 당함. 학교에 안 가려고 해서 부모가 알게 됨.

10. 여고 때 선생님이 하숙집에 놀러오라고 하여 갔다가 강간당함. 출혈이 없다고 너 막 굴러먹은 아이구나 하며 비난함. 임신이 되어 낙태함. 학교 선생들도 다 알게 되어 자퇴함. 후유증으로 힘들게 살아 왔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가슴에 한이 남는다고 처벌할 수 있냐고 상담.

〈학교 관계자 및 주변인에 의한 피해 사례〉

유치원, 학원의 통학버스 기사의 가해사실이 다수 보고 되고 있으나 관리소홀의 책임을 지게 될까봐, 또는 소문이 나서 다른 유아들에게 영향을 줄까봐 은폐하고 무마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통학버스에는 반드시 인솔교사가 끝까지 동승하여야 하며 어린이를 접하는 직종은 성추행의 우려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전력이나 의혹이 가는 사람을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원에 놀러온 사람이나 놀이방, 학원원장 남편, 동생, 아들, 친구 등이 가해를 하는 경우도 빈번한데 피해유아가 명확하게 진술을 못하거나 물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성추행일 경우 강력히 부인하면서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원이 복합건물에 있는 경우 아이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화장실에서 성추행당한 사례가 많은데 가해자를 검거하기가 어렵고 책임 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학교 관계자로는 급식배달인, 수위, 학교주변에서 학생을 상대로 영업하는 문방구주인, 학교에서 참여하는 수련장 레크레이션 강사나 교관, 교사를 사칭한 침입자 등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1. 학교 앞 문방구 주인이 15명의 남자아이들에게 공짜로 만화를 보게 하면서 골방에 데려가 성추행을 1년 이상 지속함. 학교에 소문이 나서 양호교사가 무기명으로 진상을 조사, 학부모에게 알려 고소함. 끝까지 합의안하고 처벌의지를 가졌으나 “고령이고, 초범이고, 피해자가 남아인 고로”라는 이유로 1심에서 8개월 징역이 선고됨. 교장은 고소까지 가서 학교명예가 손상되었다며 양호교사를 비난함.

2. 학기 초 아직 전근해온 교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시기에

교사를 사칭하며 심부름을 시킨다며 창고로 유인하여 4학년 여아를 강간치상. 이후 학교에서는 학교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학생들이 8시 전과 4시 후 학교에 머무르지 못하게 했음. 그러나 명부에 있는 교사의 사진을 일일이 확인하였으나 아이는 계속 교사에 대한 공포로 정신과치료를 받았으며 그 지역에서 이사할 수 없는 형편인데도 전학을 강요함.

3. 초등학교 1학년 남아가 여름방학에 수련장에 갔다가 그 곳 교관에게 눈을 가리고 손가락이라면서 성기를 빨게 하는 성추행을 당함. 부모가 인지하고 따지니까 사실을 시인하였는데 학교에서는 합의를 종용함.

4. 교회 선교원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가 어린이들을 귀엽다고 하면서 성추행. 학부모들이 항의하니 끝까지 부인. 교회에서 권고사직을 시키자 자기의 정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절대 관두지 않겠다며 도리어 교회를 상대로 싸우겠다고 함.

5. 고1 여학생을 중학교 동생의 학교 축구부 코치가 동생에게 전 달할 것이 있다며 나오라 하여 강간, 부모가 고소함.

3) 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언

위의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학교 내에서의 성폭력과 처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그러면서도 크게 사회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학교라는 장소에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교사에 의하여 자행되거나, 사후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문제제기를 해도 시정은커녕 결국 더 큰 상처를 입고 무마되고 말아 계속 은폐되며 재발의 가능성도 안고 있다. 돌출된 몇 사건은 예외적인 개별사건이 아니라 여태 은폐되어 온 학교 내 성폭력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학교라는 현장에서 교사에 의해 저질러지는 성폭력도 범죄행위로 명백히 드러냄으로써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학교 내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 내에서 동급생, 선후배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학교는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접한 다른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고심하게 된다. 그리고 학교 밖에서 학생이 성폭력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음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상담과 후속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첫째, 가해자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학생 연령에 맞는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인간 존중교육, 의사소통훈련을 남녀학생에게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일단 피해를 입었을 때나 그 피해로 인한 후유증으로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가장 밀접하게 생활하는 교사의 역할과 태도는 부모만큼이나 중요하다.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은 성폭력피해학생을 발견하거나 상담을 통해 인지하여 가장 먼저 접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위기개입이나 적절한 지원을 하여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건강하고 밝은 생활을 하도록 학교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지켜주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똑같은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가진 소양이나, 지원여부에 따라 극복이나 치유과정에 큰 차이를 보인다. 피해학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성폭력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가는 그대로 피해학생에게 주입되며,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으며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어 자아 존중감을 회복하고 상처에서 벗어나오는 데 큰 힘이 되는 반면 적절한 지원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부인, 비난 등 부적절하게 처리되었을 때는 피해사건 자체보다도 더 큰 2차 피해를 입게 되어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피해학생이 안심하고 의논하고 상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확립하고 피해로 인해 학교생활에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해

야 한다. 또한 이를 인지한 교사가 신고의 의무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하며, 피해자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조치하는 데서의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성폭행으로 임신한 학생이 원치 않을 때 상담내용을 학부모에게 알릴 것인가의 여부, 친부 피해 시 피해학생을 피신시켜주고, 안전할 때까지 결석 처리해 주고, 노출 없이 전학시키는 등의 지원여부, 친권을 들먹이며 학교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경우 교사의 신변보장과 고발여부 등, 피해학생들이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건강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상담과 치료를 지원해야 하며, 학부모가 이 문제에 두려움 없이 학교와 의논할 수 있고, 피해 자녀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가해자 학생에게 무조건 징계와 퇴학 등 범죄자로 낙인찍지 말고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해야 한다. 이미 형성되고 고착되어 있는 성폭력행위는 처벌만으로는 쉽게 종식되지 않고 재범으로 악화되기 쉽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형벌보다는 교육적 차원에서 보다 전문성을 지니고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해자의 성의식과 문화를 교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① 올바른 남녀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여성을 성적 대상이 아닌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격체로 인식하고 여성과 진실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변화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② 자신들의 행동이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하며, 자신의 행동이 피해 여성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가를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감정이 입하는 방법과 비폭력적인 대인관계훈련, 분노조절훈련 등이 필요하다.

③ 또래집단이 주는 쾌락, 남성다움에 대한 욕구를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놀이문화를 찾도록 하고 또래문화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훈련방안이 필요하다.

④ 공부와 학교에 흥미가 없고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심과 적성에 맞는 일이나 기술에 자신의 능력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가족에 대한 유대감과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가족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청소년 시기의 성 욕구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임신과 낙태가 여성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격적이고 책임감있는 성관계에 대한 효율적인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박현이 1997).

넷째,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일반 교사에게는 교직과목 이수시 성폭력예방교육과 성교육을 필수화하고 정기적으로 일선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성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육자가 가해자가 될 때에는 친족 성폭력처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한다.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으면 파면시킬 수 없다는 공무원보호법에서 교육공무원이 학생에게 성폭력피해를 주었을 때는 제외시켜야 하며, 성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이 어린이 및 청소년을 접하는 직업에 복무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성교육 전담부서가 마련되어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정에 맞게 개발하고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기관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화하여야 하며, 성교육 전담 상담교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전문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도 사회교육 차원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청소년 성매매 사례와 대처방안

1) 청소년 성매매의 특징과 유형

성인들이 청소년을 금전으로 매수하여 성 행위를 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는 청소년 성매매의 전형적인 형태이며, 이는 곧 청소년 유해행위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사치와 쾌락의 이유로 금

전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성인들이 청소년의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며, 이것은 청소년들의 성장권과 행복권을 침해하는 인권유린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의 원조교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이후 청소년들의 성을 매매하는 이러한 양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등 법률적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만으로 청소년 성매매 현상에 대처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전시효과만을 가져 올 뿐이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졸속하게 제정된 법은 집행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고, 심지어 문제행동을 예방 또는 차단하기보다 새로운 탈출구를 만들어 주는 구실을 함으로써 더 많은 문제를 양산하게 된 것이다(신미식, 2001). 예를 들면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신상공개를 실시한 후 2001년 8월에 55건의 청소년성매매 사건이 보고 되었는데, 9월에는 78건의 사건이 보고 되었다. 물론 법률 시행 이후 단속이 강화되면서 성매매 건수도 증가된 것으로 보고된 측면도 없지 않지만, 법 제정과 정부의 의지만으로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처하겠다는 것은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문화에 비추어 볼 때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청소년 성매매 과정에서 십대 청소년들은 최첨단 통신기기를 총동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비의 소유와 익숙한 사용은 그들의 성 산업을 보장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원래 청소년 성매매의 시작은 전화방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전화방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자 최근에는 PC방으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인터넷 발달로 인해 불특정 다수와 이메일, 채팅이 가능해 지고 화상채팅 등이 도입 되면서 PC방은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 실제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상대방을 만나고 화상채팅을 통해 상대방을 확인하고 핸드폰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만날 장소를 정하는 전 과정은 스파이 작전을 방불케 한다. 청소년들은 다른 형태의 성매매 산업과 달리 최첨단 기기를 사용할 줄만 알면 중간 착취자 없이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자기 몸만 제공하면 돈을 벌 수 있고 마음껏 쓸 수 있고 떨어지면 언제든지 또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이처럼 청소년 성매매는 다른 형태의 성매매(예컨대, 유흥업소, 룸살롱, 가요주점, 집창촌 등)와 달리 핸드폰을 갖고 있고, PC방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항상 돈이 필요한 십대 청소년들에게 마음만 먹으면 가능할 수 있는 그들만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실제 청소년 성매매의 확산은 과거에는 도저히 성매매 행위에 참여하지 않을 만한 많은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성매매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처럼 가출 후 자취방 월세나 생활비가 필요하여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다른 이유로 인해 청소년 성매매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 스타들의 팬클럽 활동과 그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 돈이 필요해서, 남들처럼 호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모자라는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의붓아버지의 성폭행 충격으로 인해, 같은 반 친구의 협박을 받아서, 단순히 부모에게 반항하기 위해, 친구 생일선물로 옷을 사 주기 위해 등 너무나 다양한 이유들을 지니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신미식, 2001; 이춘화 등, 2004).

첫째, 청소년 성매매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전체 성매매 청소년 가운데 13세-14세 청소년의 비율이 19%나 되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추세이다.

둘째, 성매매 청소년 가운데 재학생의 비율과 학교 중도탈락자의 비율이 거의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다. 재학생이나 중퇴생이나 성매매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학교에 대한 생각은 매우 부정적이다. 학교는 할 수 없이는 곳이고, 친구를 만나러 가는 곳일 뿐이며, 그들의 삶에 그다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 성매매 청소년이 속한 가정형태 역시 양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이 거의 절반씩을 차지한다. 정상적인 가정환경에서 양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이라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대부분은 무관심과 학대를 경험하고 있다. 그 밖의 가정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은 편견과 재정적 어려움 등이 성매매에 참여하도록 만든 주요 원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넷째, 성매매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99%가 돈 때문에 성매매를 한다. 돈의 용도는 제각기 다르다. 용돈이 필요해서, 핸드폰을 새로 구입하기 위해, 남자 친구의 선물을 사 주기 위해,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표를 사기 위해, 가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실컷 놀아보기 위해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이들은 돈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며, 돈을 벌 수 있다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다섯째, 성매매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은 성경험을 갖고 있다.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 일단 성 경험을 한 상태가 되면 자신들은 더 이상 순결하지 않다는 생각을 의식적이든 무식적이든 하게 되고, 이런 생각은 이들을 쉽게 성매매 현장으로 몰고 간다.

여섯째, 성매매 청소년의 약 50% 정도가 가출 청소년이다. 이춘화 등(2004)이 심층면접한 성매매 청소년 9명 가운데는 1명을 제외한 전원이 가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출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시설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들 가운데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청소년이 많으며, 부모들 역시 자식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장기 가출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무관심은 곧바로 성매매와 직결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성매매 청소년의 90% 이상은 아르바이트 경험을 갖고 있으며, 성매매 역시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일상적인 아르바이트에서 시간당 2,000-3,000원의 급료를 받는 것과 비교할 때, 성매매는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는 매력적인 사업임에 틀림없다. 이들에게 있어 자신의 몸과 성은 돈을 벌게 해 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상대 남성 역시 자신의 고객에 불과하다.

여덟째, 성매매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유일한 지지 기반은 친구이다. 청소년기의 발달적 속성상 친구는 매우 중요한 대상이지만, 성매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족이라든지, 이웃, 교사 등의 사회적 지지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친구만이 유일한 지지체가 되고 있다. 이들은 가족을 비롯한 성인들의 정서적 지지와 사회의 지지 체제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아홉째, 성매매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성에 대해서 매우 개방적인가 하며 매우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성인 남성과의 개방적인 성행위를 경험하면서도 한편으로 순결사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를 미워하면서도 부모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고 그리워한다. 학교에 대해서도 선생님과 공부하는 것은 싫지만 교복을 입고 학교 다니는 평범한 학생을 부러워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청소년 성매매는 가출을 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살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 다니면서 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충격적인 사실은 수업 중에 잠깐 외출해서 성매매를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사례도 보고 되고 있다. 가정형편이 나쁘지 않은 중산층 가정의 청소년이 전체의 45%나 된다는 보도도 있고, 전교 1-2등인 성적 우수 청소년이 성매매에 참여한 사례도 보도되었다. 최근 일부 청소년들은 성행위에 그치지 않고 협박과 사기를 동반하는 대담성까지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는 제 각기 다른 성장 요인을 갖고 있고, 다양한 이유에서 발생하며,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가출한 경우와 가출하지 않은 경우,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와 중퇴한 경우,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와 향락이나 사치 등을 즐기기 위해 하는 경우, 단순히 성행위만 하는 경우와 협박이나 사기를 동반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성매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청소년의 속성상 그리고 성(sex)이라는 특수한 행위로 인해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단순한 이해와 대처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하여 청소년을 보호와 선도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청소년의 성 역시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과의 갈등을 확산시킬 뿐임을 이해해야 한다.

2) 청소년 성매매 사례

이춘화, 조아미(2004)의 보고에 따르면, 성매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자 청소년들은 대부분 자신이 놀고 싶은 대로 놀지 못하게 하는 부모의 간섭으로 인해 갈등을 겪다가 어린 나이에 가출을 하게 되고, 가출 후 술을 먹고 놀다가 남자친구와 성경험을 갖게 되고(성폭행 포함), 이후 돈이 떨어지면 잠잘 곳을 마련하기 위해 또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소위 ‘물주’를 물색하게 되고, 물주와의 거래를 통해 성매매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가출 후에 돈이 필요해서 15살 때 처음 시작했는데, 처음 했을 때는 원조교제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인터넷에서 번개팅을 하다가 남자들을 만나서 술 먹고 잘 곳 마련해 주고 그랬거든요. 돈을 받고 관계를 하는 것만 원고라고 생각하고 밥과 술, 잠자리 제공만 받고 현금을 안 받으면 원조교제가 아닌 줄 알았죠. 그런데 나중에 버디를 하는데, ‘조건만남 구해요’라고 써 있는데, 친구가 이런 게 조건만남이라고 말해서 쪽지를 돌려요. 가출 상태에서는 잘 곳,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하게 되는 거죠.

성매매를 하는 방법은 주로 티켓다방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이다. 티켓다방에서의 성매매는 주로 아는 사람의 소개를 통해 이루어지고, 낙태비용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계형 성매매가 많지만,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매매는 자발적으로 인터넷에 접근해서 용돈이나 유흥비 마련을 위해 하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노래방 도우미나 림살롱 접대부, 보도사기(남자가 여자를 손님에게 알선해 주고 중간에 나타나서 손님을 협박해서 돈을 뺏는 경우)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이춘화 등, 2004).

사례2: 처음에는 아는 동생이 방법을 알려 줬어요. 채팅을 하고 어디서 만나기로 하고, 성매매를 처음 했을 때는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왜 이렇게 돈을 벌어야 하나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깨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혹시 유부남은 안된다든지, 아니면 30살이 넘는 아저씨는 안된다든지 뭐 그런 기준이 있니?)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차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여관에 들어갈 때 그냥 걸어서 들어가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차를 타고 들어가면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주로 나이가 어느 정도?) 30-40대가 많아요. (네가 미성년자라는 사실 말했니?) 네. (그러면, 네가 미성년자란 걸 알고 그냥 돌아갔든지, 너보고 집으로 가라든지, 아니면 그냥 돈만 주고 갔다든지 그런 사람 있었니?) 최근에 두명 있었어요. 성관계를 하려고 만난 것 아니었고 피시방비 없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 어디로 나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 사람이 그냥 돈 주고 빨리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두 명 정도 있었어요. rm 밖에 모든 사람은 내가 미성년자란 것을 알고 만나요.

성매매가 이루어질 때의 상황에 대해 대부분의 성매매 청소년들은 아프고 짜증나서 오로지 빨리 끝나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만을 한다고 한다. 대화 내용은 성매수자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주를 이루는데, 주로 질문하는 내용은 나이와 가출이유, 성관계 경험에 관한 것들이라고 한다. 실제 나이를 말해도 이를 문제 삼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성매매 대상자로서 기피하는 상대는 성기 확대 또는 변형수술을 한 경우, 1시간 이상 성관계를 하는 경우, 구강 또는 항문 성교를 요구하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조사 대상자들은 성 매수자들이 16-18세 사이의 청소년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이유는 연령이 어리면서도 가장 예쁘고 육체적으로 적절하게 성숙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성매매 경험 횟수는 성매매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동일한 기간 동안의 경험 횟수도 일주일에 3회부터 20회까지 다양한데, 업소에서 일한 경우는 비교적 규칙적인 반면 채팅을 통한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편차가 컸다. 성매매 횟수가 증가하면서 처음에는 부끄럽고 무서웠던 것이 나중에는 아무렇지 않아졌다는 응답도 있고, 손님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성

격이 외향적으로 바뀌었다는 청소년도 있었지만, 모든 남자들이 변태처럼 느껴져서 남자를 기피하고 남자와의 신체 접촉을 꺼리게 되었다는 청소년도 있었다. 육체적인 면에서는 질염과 성병에 걸리고 건강이 나빠졌다고 한다.

사례 3: 처음에 할 때는요, 사람을 만나서 여관 안에 들어가면 너무 무서워요. 아저씨도 너무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보면, ‘어, 별거 아니네’. 그 다음날도 긴장감이 있는데도 ‘어, 별거 아니네’. 시간이 지나면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혼자 옷 벗고 누워있어요. 결국엔 아저씨들 한테 일부러 말을 시켜요. 하다보면 외모가 좋은 아저씨는 ‘저 아저씨 어디 잘 생겼다’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채팅해서 친구 만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게 다 변해요. 육체적인 면에서는 내 몸이 좀 이상한 점을 느껴요. 제 질이 몸에 있는 질이 많이 파손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질이 벌어져서 질염도 쉽게 걸리고 하다 보니까 골반염이란 것도 걸려요. 그래서 산부인과 가서 거기다 소독약 발라요. 장난 아니에요.

금전적 문제에 대해 성 매매 후 티켓다방은 업주가 미리 받아 놓기 때문에 못받는 경우가 없으나 채팅을 통해 만난 경우는 약 10% 정도 못 받는다고 한다. 성 매매 1회에 받는 금액은 티켓다방의 경우 기본 2시간에 6만원을 받았다고 하고, 채팅을 통해 만난 경우는 보통 10만원-20만원 정도라고 한다. 성매매를 통해서 번 돈은 주로 옷을 사거나 머리를 하거나 화장품을 사는 등 외모를 꾸미는데 쓰며, 나이트클럽과 술집, 게임방에서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티켓다방의 경우는 시간비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거의 남는 돈이 없었다고 한다. 한편, 최근에는 일부 청소년의 경우 성형수술을 위해 성매매를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성매매가 갖는 일반적인 문제점 외에 성매매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로는 폭행과 상해, 강간, 유사성교, 돈을 받지 못한 경우, 조직폭력배를 만난 경우 등이다. 폭력은 주로 티켓다방 등에서 2차를 나가지 않겠다고 하다가

맞은 경우이고, 상해는 질에 로션이나 치약 같은 이물질질을 발라 질염에 걸리게 한 경우이며, 강간은 칼로 위협하거나 여러 명이 집단으로 성관계를 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 성매매는 성에 대한 왜곡된 의식과 신체상의 질병 등과 같은 일반적인 문제 이외에도 성인들에 의해 그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3)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제언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해서는 법적 조치와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설계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과 인격을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교육적 대안으로 이춘화 등(2004)의 제안에 따라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진로·직업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세부 추진방안으로 진로(탐색) 프로그램 및 진로상담의 제공과 건전한 직업 가치관의 확립, 일자리와 아르바이트 알선 및 제공, 직업기술 훈련 기회 제공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성매매 청소년 개인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세부 추진방안으로 성교육을 통한 건전한 성의식 확산과 자기 존중감 향상, 사회적 지지망 형성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청소년 성매매 예방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세부 추진방안으로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 실시와 일반 및 위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활동의 강화, 빈곤가정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학교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한 학교사회사업의 활성화,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회의 공동 노력 등이 필요하다.

넷째, 성매매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세부 추진방안으로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치료활동의 강화와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 및 지원센터의 확충,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등

이 요청된다.

다섯째, 성매수자와 사회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세부 추진방안으로 성매수자 교육확대, 사회의 인식변화와 확대를 위한 노력 등이 요청된다.

여섯째, 인터넷의 감독 및 통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부 추진방안으로 인터넷 교육의 강화와 청소년 유해사이트 감시, 청소년 유해사이트 자체 정화노력 촉구 등이 필요하다.

IV. 청소년성관련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접근

1. 보호요인의 개념과 역할
2. 성관련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보호요인
강화 프로그램

IV. 청소년 성관련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접근

1. 보호요인의 개념과 구분

1) 성 관련 보호요인의 개념과 특징

청소년에 대한 성인들의 유해행위로 인해 파생되는 성관련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성관련 문제행동의 범위도 모호하지만, 성인 사회의 유해행위가 유해업소, 유해매체, 유해약물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이들 유해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잡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견하고 실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결국 피상적일 수준에 머물고 말 것이다.

청소년 성관련 문제행동 역시 다양한 문제행동과 관련되어 있음으로써 성 행동의 예방책을 마련한다는 것 또한 성인 사회의 유해환경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회 제도적인 개선책보다 교육적인 차원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더 가치있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성관련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을 확인하고, 이를 처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앞서 설명한 성관련 위험요인은 성 행동에 영향을 주는 원인 변수라고 한다면, 보호요인은 위험요인이 문제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상쇄하거나 완충작용을 해 주는 요인을 의미한다(한상철, 2004). 이것은 단순히 위험요인의 부재 혹은 낮은 위기 수준(보상요인 compensation factors 이라고 함)이 아니라,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중재하거나 완화시켜서 결과적으로 문제행동이 야기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요인을 말한다(박현선, 1998; 유성경 외, 2000). 보호요인은 긍정적인 발달이나 행동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는 기능을 함으로써 위험

요인의 영향을 경감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반드시 위험요인이 존재할 때 가시화된다고 할 수 있다(Jessor, 1991). 즉, 보호요인은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중재하거나 완화시켜서 결과적으로 문제행동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변인이다(Rutter, 1979). 그는 보호요인은 적응유연성(resilience)의 개념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으며, 적응유연성은 위기로인에 대한 개개인의 반응 차이에 의미를 둔 개념으로 심각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응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하였다.

보호요인이 작용하는 과정을 요약하면, 첫째, 위험에 작용함으로써 스트레스의 영향이나 위험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방법, 둘째, 위험으로부터 야기된 부정적인 반응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셋째, 안정되고 지지적인 개인적 관계를 활용하거나 또는 과업성취나 성공을 통해 자존감과 자기 유능감을 증진시키는 방법,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기회를 확대하는 방법이다(Hernandez, 1993).

보호요인에 대해 Core와 Eckenrode(1996)는 크게 2개의 집단군, 즉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자원으로 대별하였다. 개인적 요인은 신체적 건강상태나 성격기질과 같은 요인이나 자존감이나 통제신념과 같이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게 연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환경적 자원은 지지적인 사회적 관계를 갖는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뜻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호요인은 개인적 특성, 가족적 특성, 사회 환경적 특성의 3가지로 분류된다. Garmezy(1993)는 기존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보호 요인들의 결과를 다음의 3가지 요인으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활동수준, 내성능력, 인지적 기술, 타인에 대한 긍정적 반응성과 같은 잠재적인 기질적 요인, 둘째, 온정성, 응집력, 조부모와 같이 반응적인 부모의 책임을 해줄 수 있을만한 돌보아주는 성인의 존재와 같은 가정적 요인, 셋째, 개인의 능력에 대해서 보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신념체계를 제공하는 외부의 지지체계로서 학교, 직장, 교회 등이 보호요인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Werner(1989)도 이와 유사하게 첫째, 개인의 기질적 귀인으로서 활동수준, 의사소통 기술, 내적 통제신념, 둘째, 정서적 지지를 할 수

있는 가족 내 정서적 유대로서 부모, 형제, 배우자, 친구의 지지, 셋째, 개인의 능력에 대해서 보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신념체계를 제공하는 외부의 지지체계로서 학교, 직장, 교회 등을 제안하였다.

권지은(1998)은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변인들을 추출해서, 비행을 유발시키는 변인과 비행을 억제시키는 변인으로 구분한 연구에서 비행을 억제시키는 변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로 개인변인에는 준법 의식과 자기통제성, 책임감, 타인 기대에 대한 인지와 자아존중감이 포함되고, 두 번째 가정변인에는 가정생활만족도, 가족 적응력, 가족의 사회적 지지, 부모자녀관계의 친밀도와 가족응집력, 합리적인 양육태도와 형제간의 우애가 포함된다. 세 번째로는 학교 및 사회변인인데, 이것은 학교에 대한 애착과 학교 적응도, 교사의 지지, 사회적인 유대와 교사에 대한 애착이 포함된다.

유성경 등(1999)은 사례연구를 통해 비행청소년들이 비행에서 탈비행으로 행동변화를 결심하는데 영향을 준 중요한 요인들을 여섯 가지 범주로 정리하였다. 첫째는 친화력 있는 인간관계로 부모가 제공해주지 못했던 친화력 있는 인간관계를 다른 경로를 통해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정서적인 애착감, 무조건적인 수용, 처벌보다는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가 그 핵심적인 요인이다. 두 번째는 학교교육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청소년이 학교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동기를 가지게 될 때, 뚜렷한 진로를 구상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삶에 대한 꿈을 가지고 역경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세 번째는 성취경험과 진로계획이다. 이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본인이 성취하고자 노력했던 일에서 성공경험을 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성공경험이 자신감과 희망감을 가지게 하고, 이것이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세우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올바른 행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전달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다섯 번째, 문제상황을 펼쳐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분석적 사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 및 높은 지능과 같은 개인적 자질이 보호요인에 속한다. 여섯 번째, 이웃들의 관심이 중요한 보호요인의 역할을 담당한다.

청소년 성문제 예방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교육일 것이다. 성폭력 예방교육은 성폭력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성과 관련하여 올바른 태도를 형성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미취학아동,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구분하여 각 발달단계에 상응하는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김신연, 2002). 성 평등 교육, 올바른 성지식에 대한 정보제공, 인간관계교육, 성문제 예방교육, 성적 의사결정력을 키우는 교육, 생명에 대한 존중감 교육, 성표현물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갖게 하는 교육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신기숙(2004)의 “성폭력 예방교육이 청소년 성폭력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은 성폭력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높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문화를 수용하고 양성평등적 사고방식을 키울 수 있으며, 성욕구와 이성관계의 바른 예절을 갖추도록 도우며,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Redonna K. Chandler(1996) 등은 부모의 성교육과 청소년들의 성행동, 성태도와의 관계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성교육, 성태도, 성행동 간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성교육의 정도는 성태도와 유의미하게 관계가 있었으며, 가정에서의 성교육이 많을수록 성행동을 지연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김선희(2000)에 의하면 학생 청소년들에게 있어 교사의 지지는 특히 중요하다. 교사의 지지란 아동이 교사로부터 제공받는 긍정적인 자원으로, 사랑, 신뢰, 인정, 도움, 관심 등이 포함된다. 교사의 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일부로써, 학령기 아동에 있어 교사의 지지는 부모나 또래의 지지 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교사의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동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대표적인 중재변인으로 주목받아왔다. 박근혜(1999)의 연구에서도 또한 부모와 형제, 친척의 사회적 지지는 폭력가정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친구, 교사의 지지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avid 등(2000)은 선행연구를 요약하며 성경험에 영향을 주는 보호요

인으로 부모-자녀간의 높은 유대감, 높은 학교 적응력, 높은 자아 존중감, 지역사회 지지망과의 네트워크, 청소년의 종교 활동 등을 언급하고 있다. Romer D.(1999) 등은 미국의 도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9세에서 17세 사이의 흑인 청소년 355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부모의 지도감독이 높은 청소년들은 10세 이전에 성경험을 할 가능성이 낮으며 나이가 들어가도 성경험을 할 가능성이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의 지도감독과 성경험의 위험성에 대한 부모와의 대화는 청소년들이 성관계시 콘돔의 사용비율을 증가시켰음을 보고하였다. Sieving R. E. 등(2000)은 청소년의 성경험에 영향을 주는 보호요인으로 어머니가 성경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것과 어머니와의 애착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개인의 지적인 능력이 성경험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연구도 있다. Carolyn Tucker Halpern 등은(2000) 지적능력과 성경험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높은 지적능력은 청소년의 성경험을 지연시키는데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낮은 지적능력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호요인으로서 Tucker(1994), Althaus(1994), Resnick(1997) 등(Cristina Lammers, 2000, 재인용)은 종교 활동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David W. Holder 등(2000)도 청소년들의 종교성과 자발적인 성행동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종교 활동을 활발히 하고, 특히 친구들간에 종교적인 내적 교류가 많을수록 자발적 성행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Charlotte 등(2000)도 종교 활동의 보호적 측면을 강조한 중단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종교 활동은 지난 20년 동안 성경험을 지연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특히 남자 청소년들에게 그러하였다고 한다.

2) 보호요인의 구분

청소년 성관련 문제행동의 보호요인 역시 개인요인과 가족요인 그리고 사회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들 요인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해

위험요인의 부정적 영향력을 증대 또는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다.

(1) 개인 요인

성관련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높은 개인적 요인들은 자기 통제감, 자기 효능감, 자기 존중감 등이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은 자기 통제(self_control)이다(김두섭, 민수홍, 1996; 김남성, 1995; Gottfredson & Hirschi, 1990). 부적응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자기 통제력이 부족할수록 스트레스 상태를 탈피하고 즉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일탈행동을 하게 되는 경향성이 강하다. 자기 통제력이 약한 청소년은 충동적이고 일탈 행동적 성향을 지닌 또래 친구의 유혹을 거부하기 어렵다(박성수, 1991). 나아가 자기통제력 결핍은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대인관계, 사회적응 능력의 미숙, 문제해결 능력의 부족 등으로 사회생활에 곤란을 겪게 된다(Mischel et al., 1998). 성관련 문제행동을 지닌 청소년들이 감정조절 및 분노통제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된 선행연구들(김명화, 1998; 신기숙, 2002)을 통해 볼 때, 청소년의 성적 일탈행동은 대부분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여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비롯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 일탈행동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자기 효능감(self_efficacy)을 들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란 특별한 과제를 위해 요구되는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상황적이고 구체적인 자신감의 강도를 의미한다(Bandura, 1997). 자기효능감은 청소년기 반사회적 행동의 유혹을 극복하는 매개 요인으로 작용하며(Bandura, et al., 2003), 성비행이나 약물사용 등의 문제행동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udwig & Pittman, 1999).

한편, 자기 존중감(self_esteem)은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의 일탈행동과 더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Jang & Thornberry, 1998). 이와 관련하여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아개념을 비교한 연구 결과(김준호, 1992)에 의하면, 비행청소년의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해

지니는 감정이 충동적이고 우발적이며, 일탈행동에 대한 자기 정당화와 집단 의리를 많이 내세우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가족 요인

가정환경이 성장기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 가족성원으로 부터 안정된 사회적 지지를 경험한 청소년은 학업성취도가 높고 학교 생활 적응도가 높으며(Colarossi, 2001), 부적응행동이나 일탈행동에 관여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주, 1998). 특히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경우 성적 일탈행동에 관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안권순, 한건환, 2001; 한인영 등, 2001). 따라서 부모의 안정적인 지지와 친밀한 관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권위적 양육태도 등은 가정 내 청소년 문제행동의 주요 보호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자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Funk(1999)의 연구에 의하면, 이들 여자 청소년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에서의 학대, 가출 경험, 구류경험, 대인범죄 빈도 등 4개 요인이 확인되었다. 특히 가정 내 학대경험은 가장 유의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Chesney_Lind(1989)의 연구에서도 여자 비행청소년들의 경우 가정에서의 신체적 폭력 경험과 성 학대 경험, 부모와의 갈등, 가출경험 등이 비행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학대받은 여자청소년은 학대받은 남자청소년에 비해 심리내적 문제뿐만 아니라 외현적 문제 행동을 표출하는 정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이성식과 전신현(2001)의 연구결과에서도 비행친구와의 접촉 요인과 더불어 부모와의 불화로 인한 가출 요인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유성경(2000)의 연구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은 가족 구조적 결손, 가정불화, 부모의 학대 및 무관심 등으로 나타나 가족관련 요인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더욱이

청소년기 다양한 일탈행동 가운데서도 성관련 문제행동은 가족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Widom과 Kuhns(1996)는 부모에 의한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양육태만도 여자청소년의 성매매 행동의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하였다.

(3) 사회 요인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행동에 관련된 청소년일수록 건설적인 대안보다는 언어적, 신체적 공격행동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다. 또래 친구들간의 교우관계가 건전하고 일탈성향의 또래친구가 적을수록 문제행동에 관련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유미, 김득성, 1998). 성관련 문제행동을 지닌 청소년은 자기주장기술과 사회성이 부족하여 대인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정아, 1999; 신기숙, 2002).

수용시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준호와 김은경(1995)의 연구 결과는 비행친구와의 접촉, 또래친구에 대한 강한 애착, 이성친구의 비행유인 유무 등 또래관련 요인이 청소년기 일탈행동의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양돈규(1997)의 연구에서는 비행친구가 없는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문제행동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비행친구가 있는 또래집단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또래집단 중에서도 일탈행동에 관련된 친구와의 관계가 문제행동과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또래와의 긍정적인 대인관계, 또래의 사회적 지지, 일탈성향이 없는 또래집단에의 소속감 등이 청소년문제행동에 작용하는 주요 보호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지역사회 관련 보호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다.

사회적 지지 요인은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한 유용한 개입도구로 강조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란 가족, 또래친구, 교사 등과 같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개인이 받는 애정, 수용, 관심의 정도를 의미한

다(Cohen & Hoberman, 1983). 선행연구 결과들은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문제행동 간에는 부적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개인이 가정과 사회에 대해 높은 유대감과 신뢰감을 가질수록 자신의 행동을 잘 통제하는 반면, 유대가 약하거나 손상될 때 일탈행동에 관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Hirschi, 1990). 사회적 지지는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 특히 성관련 비행행동을 경험한 청소년에게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일종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밝혀졌다(Bowen & Chapman, 1996; Marshal & Chassin, 2000; Moore & Chase-Lansdale, 2001). 즉, 개인이 주변 환경 안에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심리적 안녕감과 적응력이 높으며,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이 낮을수록 정서적·외현적 일탈행동에 취약하다(Helsen & Meeus, 2000).

2. 성관련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보호요인 강화 프로그램

1) 프로그램의 의의 및 운영조건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성 관련 문제행동의 보호요인은 개인적 요인으로 자기 통제(self_control), 자기 효능감(self_efficacy), 자기 존중감(self_esteem) 등과 가정 요인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 갈등해결 전략, 그리고 사회적 요인으로 또래와의 친밀감과 사회적 지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요인들은 사회의 다양한 위험요인들, 예컨대 유해환경과 유흥업소, 유해매체, 유해행위 등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위험행동 또는 문제행동 선택 가능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 적응적 행동(적응유연성; resilience)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사회는 점차 더 복잡해지고 위험요인 역시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았을 때, 청소년 교육에서 중요한 과제는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화시켜 줌과 동시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을 높여 줄 수 있는 보호요인을 탐색하여 이를 강화시켜 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연구자들에 의해 8개 단위(8차시)로 개발되었으며, 이는 보호요인 강화 프로그램의 의미를 분명하게 함과 동시에 실행 가능성을 예시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그러나 경험적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장 적용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의 몇 가지 조건과 유의점을 충족시킬 경우 그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프로그램은 집단상담 형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 집단의 크기를 10명 내외로 구성하는 것이 적합하며, 집단의 성격은 이질적일수록 효과적이다. 즉, 남녀, 연령,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되, 이질적으로 집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프로그램 운영은 전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및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집단상담 지도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집단상담 지도자는 집단상담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집단원들간의 역동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집단원 모두의 협동적인 참여를 조장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지도자는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해 독창적인 방식으로 책임 지도를 해야 한다.

셋째, 단위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100분을 기준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한 단위활동을 100분으로 하는 분산적 집단상담 형태로 운영하되, 경우에 따라 집중식(마라톤) 집단상담도 권장해 볼 만하다.

넷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소는 가급적 조용하고 안락한 공간이어야 하며, 10명 단위의 소집단이 토론하고 활동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다섯째, 집단원 상호간의 친밀감(rapport)과 신뢰감은 프로그램 전 회기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한편, 프로그램 활동 중 발표한 내용에 대해 상호 비밀을 보장하고, 집단 활동에 결석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미리 작성하고, 지도자와 집단원 상호간에 협약식을 체결하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2) 프로그램의 개요

<표 IV-1> 보호요인 강화 프로그램의 내용

주 제	목 표	활동 내용
인 사 나누기	오리엔테이션 및 집단응집력 형성	· 프로그램의 목적 설명 및 안내 · 별칭짓기를 통한 자기소개 ·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한 기대 나누기 · 집단참여시 지켜야 할 행동, 비밀유지, 진행 일정 등에 관한 구조화
자기 이해 및 수용	자기이해를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	· 자신의 장점과 단점 이해하기 ·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적어보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능력에 대한 인식을 통한 자기효능감 개발	· 자신의 재능과 소질 파악하기 ·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 파악하기 · 집단원 서로의 긍정적인 부분 칭찬해 주기
감정 조절하기	감정조절을 통한 자기통제력 향상	· 스트레스 유발상황 파악하기 · 자신의 감정목록 적기 · 자동적 사고 규명하기 · 감정과 사고 간의 관계성 인식하기 · ‘멈추기-생각하기-행동하기’ 단계 학습하기
자기주장하기	자기주장적 대인관계기술을 통한 또래관계 형성	· 상대방의 감정 이해하기 · 타협하는 방법 습득하기 · 주장행동과 비주장행동 구분하기 · 주장행동 시연 및 역할놀이
갈등해결 전략	부모와의 갈등해결 전략 학습	· 갈등사례 분석하기 · 자신과 부모와의 구체적 갈등상황 목록 적기 · 갈등에 대한 대처방식 및 결과 나누기 · 갈등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전략 모색하기
나의 가치는?	가치명료화를 통한 심리갈등해소 방법 모색	· 자신의 가치관 인식하기 · 역할놀이를 통한 가치갈등상황의 명료화와 대안 탐색하기 · 가치 선택하기
마무리하기	종결 및 피드백 나누기	· 자신의 변화된 행동 파악하기 · 집단원 상호간에 피드백 주고받기 · 새로운 각오 다짐하기

3) 프로그램의 차시별 내용

◎ 1차시: 인사나누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참가 청소년들은 낯선 집단원들과 처음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호기심, 불안, 당황, 어색함 등의 감정과 행동을 보여준다.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프로그램의 목표는 무엇인지, 참가하는 동안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프로그램 지도자와 다른 집단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등 불안과 기대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지도자는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의 목표에 대한 간략한 안내와 더불어 집단원들 간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참가 청소년들이 서로의 이름을 알고,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기대하는 바를 나누고, 집단에 속하게 된 감정들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집단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응집력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분위기는 이후 집단상담 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2차시: 자기이해 및 수용

자기 존중감 발달의 핵심은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과 동시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에 있다(Branden, 1987). 이러한 관점과 같은 맥락에서 Coopersmith(1967)는 자아개념을 네 가지 범주, 즉 자신이 의미있다고 느끼는 것, 유능하다고 느끼는 것, 도덕적·윤리적 기준에 비추어 보아 자신이 가치있다고 느끼는 것, 그리고 자신이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에 의미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느끼는 것 등으로 설명하였다. 선행연구 결과,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청소년의 일탈행동은 자아존중감과 상관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아개념을 비교했을 때 비행청소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지니는 감정은 충동적이고 우발적이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성관련 문제행동에 노출될 수 있는 기제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자기 존중감 향상은 예방 교육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기 존중감을 갖도록 조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 사고, 능력, 욕구 등에

대한 자기이해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수용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 3차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다(Bandura, 1997). 인간 행동은 기대, 사고와 신념, 동기 유발과 흥미, 심상 및 상징 등의 인지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된다. 즉, 행동의 변화는 외적인 자극에 의해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효능기대라고 하는 인지적 과정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행동수행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그 행동을 직접 수행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또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저항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행동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 행동과 관련하여 자기효능감은 청소년기 반사회적 행동의 유혹을 극복하는 매개 요인으로 작용하며(Bandura, et al., 2003), 성비행이나 약물사용 등의 문제행동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udwig & Pittman, 1999).

◎ 4차시: 감정조절하기

선행연구 검토 결과, 성관련 문제행동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개인적 요인 중에서도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은 자기통제력이다. 일반적으로 자기 통제력이 부족할수록 스트레스 상태를 탈피하고 즉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일탈행동을 하게 되는 경향성이 강하다. 자기 통제력이 약한 청소년은 충동적이고 일탈 행동적 성향을 지닌 또래친구의 유혹을 거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대인관계, 사회적응 능력의 미숙, 문제해결 능력의 부족 등으로 사회생활에 곤란을 겪게 된다. 성관련 문제행동을 지닌 청소년들이 감정조절 및 분노통제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된 선행연구들을 통해 볼 때, 청소년의 성적 일탈행동은 대부분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여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비롯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분노는 긍정적인 차원과 부정적인

차원에서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감정들을 억압하지 않고 정확하게 인식하며 이러한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임을 수용하도록 지도한다. 그러나 자기통제가 결핍되어 그러한 감정을 외현적·공격적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면 자신과 타인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집단원들에게 분노를 적절한 방법으로 다루는 대안들을 모색하게 하고, 스트레스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행동을 통해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을 지도한다.

◎ 5차시: 자기주장하기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부딪히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성인에 비해 대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행동에 관련된 청소년일수록 건설적인 대안보다는 언어적, 신체적 공격행동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다. 특히 성관련 문제행동을 지닌 청소년은 자기주장기술과 사회성이 부족하여 대인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관련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로 자기주장훈련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 행동은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는지의 여부와 또한 이렇게 표현한 결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지의 여부를 준거로 주장행동과 비주장행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 비주장행동은 다시 소극적 행동과 공격적 행동으로 구분한다(Rakos & Schroeder, 1980). 이 가운데 주장행동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범위에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나타내는 행위를 일컫는다. 즉, 주장행동의 특징은 첫째,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대인관계 행동이며, 둘째,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행동이고, 셋째, 다른 사람의 감정과 안녕을 고려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Masters, Burish, Hollon, & Rimm, 1987). 특히 주장훈련은 일탈행동으로 유인하는 또래집단의 압력을 거절하는 주장행동을 증진시켜 약물과 알코올, 흡연, 성행동 등의 예방에 효과

적이라는 선행연구결과들이 제시되었다(Epstein, Griffin, & Botvin, 2000; Tuner, Burciaga, Sussman, & Klein-Selski, 1993; Pillai & Barton, 1999).

◎ 6차시: 갈등해결 전략

가정환경이 성장기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 가족성원으로부터 안정된 지지를 경험한 청소년은 학업성취도가 높고 학교생활 적응도가 높으며 부적응행동이나 일탈행동에 관여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특히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경우 성적 일탈행동에 관련될 가능성이 높았다. 청소년들은 가정의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와 다양한 갈등을 경험한다. 말투, 복장, 사귀는 친구의 유형, 귀가시간 등은 부모세대와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부모자녀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문제해결방법을 모색하지 못하고 대립이 악화된다면 청소년들은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가정 내 스트레스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체계 내에서 이들 청소년들을 유인하는 역기능적 요인들이 작용할 경우 쉽게 가출, 등교거부, 학업손실 등과 같은 일탈행동에 빠져들 수 있다.

이재규(2005)는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소년들에게 부모와의 갈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부모와의 갈등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갈등해결의 책임을 느끼도록 안내한다. 특히, 부모와의 갈등에 있어서 청소년 자신이 갈등을 먼저 유발하거나 지속시키는 데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을 통찰하게 한다.

셋째, 부모와의 갈등에 대한 대처 행동을 명료화하고, 그러한 행동들이 부모와의 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지도한다.

V. 연구방법

1. 대상
2. 도구
3. 자료처리

V. 연구방법

1. 대상

이 연구의 대 주제는 ‘청소년유해행위 개선대책’에 대한 것이다. 앞서 논의 되었듯이,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행위가 성인들이 영업적 이익과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을 이용하여 성적 접대나接客행위를 조장하거나 음란 및 퇴폐행위와 구걸행위 등을 강요하는 일체의 행위들을 말한다. 이 경우 연구의 대상은 자연히 청소년이 아닌 우리 사회의 성인이 되어야 하며, 그것도 업소나 노동현장 등에서 성인들의 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피해 청소년 역시 신분과 인권침해 사례 등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유해행위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 경로를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실증적 연구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들의 유해행위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희생이 가장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분야가 청소년 성관련 문제행동(성매매, 성폭력, 강간 및 윤간 등)이므로, 오히려 이러한 성관련 문제행동에 작용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확인하고 특히 보호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함으로써 교육적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대상은 일반 성인이 아니라 성관련 문제행동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 집단이며, 이들을 통해 성관련 문제행동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의도로 시작된 본 연구에서는 성인들의 유해행위로 인한 성관련 문제행동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으로 실업계 여자 고등학교와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수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실업계 여자 고등학생들은 총 1,020명이다. 이들은 대구지역 5개의 구에서 1개교씩 전체 5개 학교에서 선정된 학생들이며, 학교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연구자들

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년은 특별히 고려하지 않았지만, 학년이 높을수록 성관련 행동의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여 3 학년을 더 많이 포함시켰다. 5개 학교에서 한 학교당 5개 학급씩 약 200명(학급의 크기 약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체 1,020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그리고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수용 청소년은 전체 216명으로, 이들 가운데 소년원 수감 청소년들이 150명이고 보호관찰소 보호대상 청소년이 66명이다.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의 경우 소수의 여자 청소년들(소년원 1명, 보호관찰소 10명)이 있었지만, 자료처리 과정에서 이들을 제외시켰다. 따라서 피험자들의 반응은 여자 고등학생과 남자 특수집단 청소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집단간 차이가 곧 남녀간 차이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녀 모두 대표성을 갖지 않는 집단인 만큼 남녀간 비교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의 경우 접근과 설문조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공문을 접수하고 승인이 이루어지고, 정해진 장소에서 직원들의 통제 속에 조사가 수행되었다.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자료처리 과정에서 불성실하거나 전체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많은 수의 피험자들이 제외되었다. 설문대상이 특수집단일 뿐만 아니라 설문 문항이 너무 많음으로서 불성실한 응답을 양산했다고 판단된다. 설문지 클리닝 작업을 통해 최종 자료처리된 대상은 실업계 고등학생(일반집단으로 처리) 950명과 특수집단 179명(소년원 130명, 보호관찰소 49명)이며, 이들의 각 집단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V-1> 연구대상 집단의 분포

		표본 집단		자료처리 대상		평균연령
특수집단	소년원	150명	216명	130명	179명	만 18.2세
	보호관찰소	66명	(17.47)	49명	(15.85)	만 17.1세
일반집단 (여자 실업고)	1학년	196명	1,020명 (82.52)	174명	950명 (84.14)	만 16.7세
	2학년	295명		275명		만 17.2세
	3학년	529명		501명		만 18.3세
전체		1,236명(100.0)		1,129명(100.0)		

한편 사례연구(질적 분석)를 위해 대구지역 가톨릭직업기술원에 협조를 요청하여 10명의 사례를 확보하였다. 이들은 심층면접 분석의 대상으로서 가출과 성문제행동, 가출 후 생활, 요구사항 등에 대해 질문하고 이들의 응답을 기술하는 형식으로 연구자들 가운데 전문 상담자에 의해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2.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크게 4가지 측정영역의 8개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4가지 측정영역은 피험자들의 생활현황과 문제행동, 성관련 위험요인, 성관련위험행동, 보호요인이다.

1) 생활현황과 문제행동 척도

피험자들의 일상생활 수준과 만족도 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6개)과 일반적인 문제행동(가출, 흡연, 음란물 접촉, 유흥업소 출입, 성관계 등)을 묻는 문항(14개)으로써, 모두 선다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내용은 이종원 등(2001)과 임성택(2001) 등의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연구를 기초로 연구자들이 몇 차례의 회의를 통해 문항선정을 하고,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후 결정되었다.

2) 성관련 위험요인 및 성행동 척도

성관련 위험요인과 성행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관련 행동에 접촉하게 되는 경위와 원인, 성 경험 및 현황, 학교에서의 성교육, 성매매의 원인 등을 묻는 것으로 전체 31개의 선다형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문 내용은 이춘화와 조아미(2004) 등의 연구에 기초하여 연구자들이 선정하고, 개발하여 내용 타당도를 검증한 후 결정되었다.

3) 성관련 위험행동 척도

성관련 위험행동 척도는 기존의 위험행동척도(Arnet, 1998; Gullone et al., 2001; 한상철, 2003) 등에 기초하여 이를 성관련 위험행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것이다. 전체 21개 문항의 5점 평정척으로 되어 있으며,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성관련 위험행동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검증한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3으로 확인되었으며,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4) 보호요인 척도

본 연구에서 성관련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충해 줄 것으로 가정된 보호요인은 긍정적인 가족기능, 부모와 모 각각과의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이다. 이들 변인은 많은 선행연구에 터하여 선정되었으며, 특히 성관련 문제행동의 보호요인으로 확인될 경우 이러한 요인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처치하는데 기초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기능 척도는 전체 20개의 문항으로 된 5점 평정 척도이며 (Cronbach's alpha=.73), 부모 - 자녀 의사소통 척도는 각각 20개의 문항으로 된 5점 평정척도(Cronbach's alpha= .81, .87) 이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척도는 15개 문항의 5점 평정척(Cronbach's alpha= .87)이고, 자기 효능감 척도는

31개 문항의 5점 평정척도(Cronbach's $\alpha = .68$)이다.

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소집된 자료를 각 집단별로 분류하고, 코딩작업을 실시하였다. 코딩과정에서 응답이 불충실하거나 척도 가운데 한 가지라도 응답하지 않은 것은 제외시켰다. 그리고 각 측정영역별로 특수집단(소년원, 보호관찰소)과 일반집단(실업계 여자고등학교)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자료처리를 하였다.

먼저, 피험자들의 생활여건과 문제행동 20개 문항별로 특수집단과 일반집단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이원 교차분석(Chisquare)을 실시하였다.

둘째, 성관련 위험요인과 성행동 31개 문항에 대해서도 각 문항별로 이원교차분석과 카이스퀘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위험행동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집단(특수, 일반)과 문제행동(가출, 흡연, 유흥업소출입, 이성친구와의 교제, 성관계)을 투입변인으로 하여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적용하였다.

넷째, 보호요인 전체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준 판별분석(Discrimination Analysis)을 적용하였다.

VI. 결과 및 해석

1. 피험자 특성과 문제행동 경향
2. 성관련 위험요인과 성행동에 대한 반응 분석
3. 성관련 위험행동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4. 보호요인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5. 성관련 문제행동 사례분석-질적 연구

VI. 결과 및 해석

1. 피험자 특성과 문제행동 경향

먼저, 조사 대상 청소년들의 생활상황과 문제행동 경향성을 일반청소년(실업계 고등학생)과 특수집단 청소년(소년원, 보호관찰소)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1)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친부모 두분 ② 어머니와 새아버지 ③ 아버지와 새어머니
 ④ 아버지하고만 ⑤ 어머니하고만 ⑥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 등과
 ⑦ 형제와 함께 ⑧ 혼자 생활

<표 VI-1> 동거가족 형태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체	χ^2
특수	66 (36.9)	5 (2.8)	32 (17.9)	31 (17.3)	22 (12.3)	15 (8.4)	1 (0.6)	7 (3.9)	179 (100.0)	
일반	669 (70.4)	13 (1.4)	33 (3.5)	53 (5.6)	110 (11.6)	42 (4.4)	14 (1.5)	16 (1.7)	950 (100.0)	$\chi^2=119.488^{***}$ df=7
전체	735 (65.1)	18 (1.6)	65 (5.8)	84 (7.4)	132 (11.7)	57 (5.0)	15 (1.3)	23 (2.0)	1129 (100.0)	

***p<.001

조사 대상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특수집단과 일반집단간에 0.1%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특수집단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모두 ‘친부모 두 분’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 특수집단은 ‘친부모 두 분’이라는 응답이 36.9%로 나타난 반면, 일반집단은 70.4%로 나타나 특수집단에 비해 일반집단인 경우 ‘친부모 두 분’과 동거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특수집단은 ‘아버지와 새어머니’ (17.9%), ‘아버지하고만’ (17.3%)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이 일반집단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따라서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된 특수집단 청소년의 경우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보다 가정의 구조적인 결함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부모님(보호자)의 본인에 대한 관심 정도는?

<표 VI-2> 부모님의 본인에 대한 관심도 ()%

	관심이 높다	보통 수준이다	관심이 별로 없다	전체	χ^2
특수	110(61.5)	62(34.6)	7(3.9)	179(100.0)	$\chi^2=20.065^{***}$ df= 2
일반	411(43.3)	487(51.3)	52(5.5)	950(100.0)	
전체	521(46.1)	549(48.6)	59(5.2)	1129(100.0)	

*** p < . 001

부모님(보호자)의 본인에 대한 관심정도에 대해 양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특수집단은 ‘관심이 높다’ (61.5%)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 일반집단은 ‘보통 수준이다’ (51.3%)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수집단의 경우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거나 보호관찰 대상으로 지속적인 감시보호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보호자가 관심을 더 많이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해석된다.

3)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표 VI-3>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 지각 ()%

	하	중하	중	중상	상	전체	χ^2
특수	22(12.3)	42(23.5)	95(53.1)	18(10.1)	2(1.1)	179(100.0)	$\chi^2=5.712$ df= 4
일반	73(7.7)	263(27.7)	495(52.1)	98(10.3)	21(2.2)	950(100.0)	
전체	95(8.4)	305(27.0)	590(52.3)	116(10.3)	23(2.0)	1129(100.0)	

위의 표에 의하면, 피험자들이 지각하는 자신의 생활수준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전체적으로 ‘중’이 5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하’가 27%를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조사 대상 청소년들의 생활수준은 낮은 편이며, 중상류층은 전체의 약 12%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집단이라 하더라도 실업계 여자고등학생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4) 현재 가정생활에 만족합니까?

<표 VI-4> 가정생활 만족도 ()%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χ^2
특수	20(11.2)	68(38.0)	72(40.2)	15(8.4)	4(2.2)	179(100.0)	$\chi^2=16.536^{**}$ df=4
일반	86(9.1)	249(26.2)	420(44.2)	157(16.5)	38(4.0)	950(100.0)	
전체	106(9.4)	317(28.1)	492(43.6)	172(15.2)	42(3.7)	1129(100.0)	

**p<.01

피험자들의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양 집단간에 1%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특수집단은 ‘매우만족’ 과 ‘만족’ 이라는 응답이 49.2%로 나타난 반면, 일반집단은 35.3%로 나타났다. 일반집단에 비해 특수집단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의 수용 청소년의 경우 가정에 대한 그리움과 수용 이후 부모님의 의도적인 관심이 높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이라고 추측된다. 한편 실업계 여자고등학생들의 경우 생활수준이 낮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가정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5) 하루를 기준으로 부모와의 대화 시간은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표 VI-5> 부모와의 대화시간 ()%

	거의 없다	5분	10분	20-30	30분이상	전체	χ^2
특수	35(19.6)	13(7.3)	33(18.4)	45(25.1)	53(29.6)	179(100.0)	$\chi^2=6.897$ df= 4
일반	122(12.8)	75(7.9)	193(20.3)	223(23.5)	337(35.5)	950(100.0)	
전체	157(13.9)	88(7.8)	226(20.0)	268(23.7)	390(34.5)	1129(100.0)	

위의 표에 의하면, 부모와의 대화시간은 양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특수집단과 일반집단 모두 하루에 ‘30분 이상’ 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20~30분’ 의 대화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수집단의 19.6%가 대화시간이 ‘거의 없다’ 고 응답함으로써 부모님과의 의사소통이 일반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더 부족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과의 대화 시간이 하루에 10분 이상이라는 응답이 전체 피험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높은 비율이며, 전반적으로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피험자들이 부모님 또는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잔소리나 지시, 요구사항 등에 소

요되는 시간을 모두 대화에 포함시킨 결과라고 보여 진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재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6) 학교생활에 만족합니까?

<표 VI-6> 학교생활 만족도 ()%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χ^2
특수	13(7.3)	35(19.6)	94(52.5)	22(12.3)	15(8.4)	179(100.0)	$\chi^2=7.832$ df= 4
일반	31(3.3)	200(21.1)	508(53.5)	146(15.4)	65(6.8)	950(100.0)	
전체	44(3.9)	235(20.8)	602(53.3)	168(14.9)	80(7.1)	1129(100.0)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해 양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특수집단은 ‘매우만족’과 ‘만족’이라는 응답이 26.9%로 나타난 반면, 일반집단은 24.4%로 나타나 일반집단에 비해 특수집단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다소 더 높은 것은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특수집단의 경우 현재 대부분 학교를 중단한 상태이기 학교생활에 대한 동경심이나 그리움이 만족도 반응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생각되며, 상대적으로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3학년들이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불안 등이 작용하여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족 반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7) 가출한 적이 있습니까?

<표 VI-7> 가출경험 ()%

	있다	없다	전체	χ^2
특수	141(78.8)	38(21.2)	179(100.0)	$\chi^2=266.345^{***}$ df= 1
일반	179(18.8)	771(81.2)	950(100.0)	
전체	320(28.3)	809(71.7)	1129(100.0)	

***p<.001

가출경험은 양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특수집단은 ‘있다’ 라는 응답이 78.8%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집단은 18.8%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의 대상 청소년의 경우 비행 개입의 주요 경로가 가출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가출의 원인과 경로는 다양하겠지만, 가출 이후 성인 사회의 유해환경에 접촉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성관련 문제행동과 폭력, 절도 등의 비행에 개입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가출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성인들의 유해행위 즉, 영업적 이익을 위해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유해행위로부터의 피해가 성관련 문제행동을 비롯한 청소년 비행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8) 지금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까?

<표 VI-8> 흡연 여부					()%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특수	94(52.5)	30(16.8)	55(30.7)	179(100.0)	$\chi^2=241.747^{***}$ df=2
일반	131(13.8)	724(76.2)	95(10.0)	950(100.0)	
전체	225(19.9)	754(66.8)	150(13.3)	1129(100.0)	

***p<.001

흡연여부에 대해 양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특수집단은 ‘있더라는 응답이 52.5%로 나타난 반면, 일반집단은 13.8%로 나타났다.

특수집단 청소년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흡연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가출과 더불어 흡연 역시 청소년비행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다. 가출 후 대부분은 유해환경에 접하게 되고, 이러한 유해업소 및 성

인들의 유해행위 상태에서 흡연과 음주는 어쩌면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청소년들의 흡연은 그 자체가 다양한 원인을 지니고 있고 위험행동으로 그칠 수도 있지만, 비행청소년의 경우 흡연은 비행의 중요한 요인이거나 비행 후 또 다른 비행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9) 이성친구(사귀는 사람)가 있습니까?

<표 VI-9> 이성친구 유무					() %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특수	83(46.4)	94(52.5)	2(1.1)	179(100.0)	$\chi^2=21.334^{***}$ df= 2
일반	277(29.2)	645(67.9)	28(2.9)	950(100.0)	
전체	360(31.9)	739(65.5)	30(2.7)	1129(100.0)	

***p<.001

이성친구 유무에 대해 양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특수집단은 이성친구가 '있다' 라는 응답이 46.4%로 나타난 반면, 일반집단은 29.2%로 나타나 특수집단이 의미있게 더 높다. 따라서 이성친구는 특수집단 청소년들의 일탈행동과 관련성이 있다고 추측되지만, 양 변인간의 인과관계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10) 인터넷이나 잡지 등을 통해 음란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표 VI-10> 음란물 관람 경험					() %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특수	141(78.8)	26(14.5)	12(6.7)	179(100.0)	$\chi^2=46.067^{***}$ df=2
일반	492(51.8)	367(38.6)	91(9.6)	950(100.0)	
전체	633(56.1)	393(34.8)	103(9.1)	1129(100.0)	

***p<.001

위의 표에 의하면 양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인터넷이나 잡지 등을 통해 음란물을 본 경험은 특수집단의 경우 78.8%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집단은 51.8%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음란물 관람은 청소년 비행과 의미있는 관련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음란물이 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음란물 관람은 성인 사회가 조장한 유해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이루어지며, 그것이 청소년들의 성관련 문제행동의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11) 모르는 사람과 인터넷 채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표 VI-11> 익명의 사람과 채팅 여부					() %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특수	139(77.7)	38(21.2)	2(1.1)	179(100.0)	$\chi^2=1.680$ df= 2
일반	740(77.9)	185(19.5)	25(2.6)	950(100.0)	
전체	879(77.9)	223(19.8)	27(2.4)	1129(100.0)	

위의 표에 의하면, ‘모르는 사람과 인터넷 채팅을 해 본 경험’은 양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즉, 특수집단의 77.7%와 일반집단의 77.9%가 ‘있다’라고 응답함으로써 양 집단 모두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반집단의 대부분이 고등학교 여학생들이므로 이들이 익명의 사람들과 인터넷 채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성관련 문제행동 개입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특수집단의 경우 과거 인터넷 채팅을 통해 그들이 다양한 비행 요인을 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2) 아르바이트나 부업 중에 어른들로부터 착취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표 VI-12> 착취나 부당한 대우 경험					()%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특수	29(16.2)	136(76.0)	14(7.8)	179(100.0)	$\chi^2=7.686^*$ df= 2
일반	90(9.5)	794(83.6)	66(6.9)	950(100.0)	
전체	119(10.5)	930(82.4)	80(7.1)	1129(100.0)	

*<.05

위의 표에 의하면, 어른들로부터 착취나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험은 양 집단간에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특수집단의 16.2%가 ‘있다’ 는 반응을 보인 반면, 일반집단은 9.5%가 ‘있다’ 고 응답하였다.

어른들로부터 착취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어른들의 유해행위를 직접 경험했다는 것으로, 이러한 유해행위가 특수집단 청소년들에게 의미있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성인들의 유해행위가 청소년 비행에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10.5%의 청소년들이 과거 어른들로부터 착취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어른들의 유해행위가 비교적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13) 청소년 출입금지 유흥업소에 출입한 적이 있습니까?

<표 VI-13> 유흥업소 출입경험				()%
	있다	없다	전체	χ^2
특수	124(69.3)	55(30.7)	179(100.0)	$\chi^2=103.168^{***}$ df= 1
일반	281(29.6)	669(70.4)	950(100.0)	
전체	405(35.9)	724(64.1)	1129(100.0)	

***p<.001

유해업소 출입경험 유무에 대해 양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유해업소 출입경험이 '있다' 라는 응답이 특수집단은 69.3%, 일반집단은 29.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해업소 출입은 청소년 비행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며, 이러한 업소에서 청소년에 대한 어른들의 유해행위가 문제행동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14) 시빗거리로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표 VI-14> 친구들과의 싸움 경험

()%

	있다	없다	전체	χ^2
특수	141(78.8)	38(21.2)	179(100.0)	$\chi^2=77.840^{***}$ df= 1
일반	407(42.8)	543(57.2)	950(100.0)	
전체	548(48.5)	581(51.5)	1129(100.0)	

***p<.001

싸움경험 여부에 대해 '있다' 라는 응답이 특수집단은 78.8%, 일반집단은 42.8%로 나타났으며, 양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특수집단의 경우 대부분 남학생이고, 일반집단은 여학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양 집단간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

단지 비행 청소년들의 높은 비율이 폭행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에서의 싸움과 폭력은 그들의 현재 지위상실을 결정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일반집단의 대부분이 여자 청소년들인데, 이들의 학교 내 싸움이 42.8%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여학생들의 폭력 발생빈도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5) 부모님(보호자)을 속인 적이 있습니까?

<표 VI-15> 부모님 속인 경험 ()%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특수	155(86.6)	16(8.9)	8(4.5)	179(100.0)	$\chi^2=19.793^{***}$ df= 2
일반	678(71.4)	222(23.4)	50(5.3)	950(100.0)	
전체	833(73.8)	238(21.1)	58(5.1)	1129(100.0)	

***p<.001

부모님을 속인 경험에 대해 양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있다' 라는 응답이 특수집단은 86.6%, 일반집단은 71.4%로 나타났다으며, 양 집단 모두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부모님을 속인다는 것은 청소년 위험행동의 한 요인으로써 문제행동 발생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볼 수 있다.

16) 휴일에 특별한 볼일 없이 혼자서 시내를 배회해 본 적이 있습니까?

<표 VI-16> 휴일에 시내 배회경험 ()%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특수	49(27.4)	118(65.9)	12(6.7)	179(100.0)	$\chi^2=22.705^{***}$ df= 2
일반	140(14.7)	776(81.7)	34(3.6)	950(100.0)	
전체	189(16.7)	894(79.2)	46(4.1)	1129(100.0)	

***p<.001

휴일에 시내를 배회한 경험에 대해 양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있다' 라는 응답이 특수집단은 27.4%, 일반집단은 14.7%로 나타났다.

휴일에 시내를 배회한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권태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배회가 가출이나 문제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17) 특별한 이유 없이 어린 후배들을 골탕 먹인 적이 있습니까?

<표 VI-17> 어린 후배 골탕먹인 경험 () %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특수	67(37.4)	104(58.1)	8(4.5)	179(100.0)	$\chi^2=110.624^{***}$ df= 2
일반	83(8.7)	838(88.2)	29(3.1)	950(100.0)	
전체	150(13.3)	942(83.4)	37(3.3)	1129(100.0)	

***p<.001

이 문항은 금품갈취나 집단 괴롭힘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양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있다' 라는 응답이 특수집단은 37.4%, 일반집단은 8.7%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수집단의 경우 골목이나 학교 주변, 유흥업소 등지에서 후배나 또래들을 대상으로 금품갈취나 폭행, 괴롭힘 등을 더 많이 행사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이 문제행동으로 연결되는 고리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18) 부모님 몰래 용돈을 훔쳐 본 적이 있습니까?

<표 VI-18> 용돈 훔친 경험 () %

	있다	없다	전체	χ^2
특수	123(68.7)	56(31.3)	179(100.0)	$\chi^2=49.119^{***}$ df= 1
일반	383(40.3)	567(59.7)	950(100.0)	
전체	506(44.8)	623(55.2)	1129(100.0)	

***p<.001

‘부모님 몰래 용돈을 훔쳐 본 적이 경험’에 대해 양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훔친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이 특수집단은 68.7%, 일반집단은 40.3%로 나타났다. 용돈을 훔친다는 것은 청소년기의 위험행동에 속하겠지만, 용돈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문제행동으로 비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19) 이성친구와 키스나 포옹 등의 성관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표 VI-19>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유무 ()%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특수	132(73.7)	42(23.5)	5(2.8)	179(100.0)	$\chi^2=110.722^{***}$ df= 2
일반	304(32.0)	580(61.1)	66(6.9)	950(100.0)	
전체	436(38.6)	622(55.1)	71(6.3)	1129(100.0)	

***p<.001

이성친구와 성관계 유무에 대해 ‘있다’라는 응답이 특수집단은 73.7%, 일반집단은 32.0%로 나타났으며, 양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성친구와의 키스나 포옹 등의 성관계는 그 자체만으로는 위험행동에 속하지만, 특수집단의 경우 그것이 문제행동의 강력한 원인으로 작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0) 부모님 몰래 무단결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표 VI-20> 무단결석 유무 ()%

	있다	없다	전체	χ^2
특수	147(82.1)	32(17.9)	179(100.0)	$\chi^2=238.692^{***}$ df= 1
일반	220(23.2)	730(76.8)	950(100.0)	
전체	367(32.5)	762(67.5)	1129(100.0)	

***p<.001

무단결석 유무에 대해 '있다' 라는 응답이 특수집단은 82.1%, 일반집단은 23.2%로 나타났으며, 양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무단결석은 청소년 문제행동의 강력한 위험요인이다.

2. 성 관련 위험요인과 성행동에 대한 반응 분석

성인들에 의한 청소년유해행위가 청소년들에게는 대부분 성관련 문제행동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여기서는 청소년 성관련 문제행동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성행동 및 의식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1) 다음의 매체 중 성충동이나 폭력충동을 가장 많이 느낀 매체를 한 가지만 선택하시오.

① 성인용 만화	② 성인소설 및 잡지책	③ 스포츠신문
④ 성인용 비디오	⑤ TV 영화	

<표 VI-21> 성충동이나 폭력충동을 가장 많이 느낀 매체 ()%

	①	②	③	④	⑤	전체	χ^2
특수	20 (11.2)	8 (4.5)	8 (4.5)	84 (46.9)	59 (33.0)	179 (100.0)	$\chi^2=35.48^{***}$ df=4
일반	89 (9.4)	47 (4.9)	27 (2.8)	260 (27.4)	527 (55.5)	950 (100.0)	
전체	109 (9.7)	55 (4.9)	35 (3.1)	344 (30.5)	586 (51.9)	1129 (100.0)	

***p<.001

위의 표에 의하면, 성충동을 가장 많이 느낀 매체에 대해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수용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특수집단과 실업계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일반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특수집단은 '성인용

비디오’ 라는 응답이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반집단은 ‘TV 영화’ 라는 응답이 5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비행을 경험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성충동 또는 폭력충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매체는 성인용 비디오와 TV영화, 그리고 성인용 만화 등이었으며, 일반 청소년들의 경우 TV영화와 성인용 비디오가 위험요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 청소년이 성인용 매체(19세 미만 금지매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표 VI-22> 청소년이 성인매체를 이용한 것에 대한 생각 ()%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한두 번 정도는 괜찮다	자주만 아니면 이용해도	하고 싶을 때 언제나	전체	χ^2
특수	26 (14.5)	93 (52.0)	31 (17.3)	29 (16.2)	179 (100.0)	$\chi^2=39.37^{***}$ df=3
일반	178 (18.7)	626 (65.9)	97 (10.2)	49 (5.2)	950 (100.0)	
전체	204 (18.1)	719 (63.7)	128 (11.3)	78 (6.9)	1129 (100.0)	

***p< .001

성인용 매체 이용에 대한 생각을 질문한 결과 특수집단과 일반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특수집단과 일반집단 청소년 모두 ‘한두 번 정도는 괜찮다’ 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특수집단의 경우 ‘자주만 아니면 계속 이용해도 된다’ (17.3%)와 ‘하고 싶을 때 언제나 해도 괜찮다’ (16.2%)라는 응답이 일반집단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에 수감 또는 보호대상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보다 유해매체에 대해 더 허용적임을 알 수 있다. <표 VI-21>의

결과와 함께 생각해 볼 때, 특수집단 청소년들은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일반 청소년들보다 문제행동에 노출될 가능성을 더 많이 내포하고 있으며, 그들의 생각 또한 성관련 행동의 위험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3) 청소년들이 성인용 매체의 내용을 잘 아는 것이 친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표 VI-23> 성인용 매체를 잘 아는 것과 친구관계와의 관계 () %

	잘 알면 인기를 끌게된다	별로 상관없다	잘 모르면 대화가 안 통한다	잘 모르면 따돌림을 당함	전체	χ^2
특수	14 (7.8)	144 (80.4)	17 (9.5)	4 (2.2)	179 (100.0)	$\chi^2=3.55$ df=3
일반	43 (4.5)	793 (83.5)	88 (9.3)	26 (2.7)	950 (100.0)	
전체	57 (5.0)	937 (83.0)	105 (9.3)	30 (2.7)	1129 (100.0)	

위의 표에 의하면, 특수집단과 일반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즉, 양 집단 모두 성인용 매체를 잘 아는 것과 친구관계는 '별로 상관없다' 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특수 80.4%, 일반 83.5%). 그러나 전체적으로 약 17%의 청소년들은 성인용 매체를 잘 알면 인기를 얻을 수 있다거나, 잘 모르면 대화가 통하지 않고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등의 반응을 보임으로써 성인용 매체가 친구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4) 명함형태의 광고전단(여자사진과 함께 전화번호가 기재된 전단)을 접촉해 보았을 때 주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 | | |
|------------------|-----------------|
| ① 아무런 느낌도 없다 | ② 성적 충동이 생긴다 |
| ③ 실제 전화를 해 보고 싶다 | ④ 혐오감과 수치심이 생긴다 |

⑤ 본 적이 없다

⑥ 기타

<표 VI-24> 명함형태의 음란 광고전단을 접촉했을 때의 느낌 ()%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χ^2
특수	119 (66.5)	19 (10.6)	17 (9.5)	2 (1.1)	19 (10.6)	3 (1.7)	179 (100.0)	$\chi^2=58.12^{***}$ df=5
일반	556 (58.5)	39 (4.1)	33 (3.5)	184 (19.4)	107 (11.3)	31 (3.3)	950 (100.0)	
전체	675 (59.8)	58 (5.1)	50 (4.4)	186 (16.5)	126 (11.2)	34 (3.0)	1129 (100.0)	

***p<.001

위의 결과를 보면, 음란 광고물에 대한 느낌은 특수집단과 일반집단 청소년들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특수집단과 일반집단 모두 ‘아무런 느낌도 없다’ 라는 응답이 가장 많지만, 특수집단(66.5%)이 일반집단(58.5%)보다 더 높으며, 그리고 특수집단의 경우 ‘성적 충동이 생긴다’ (10.6%), ‘실제 전화를 해 보고 싶다’ (9.5%)란 반응이 일반집단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 한편, 일반집단은 ‘혐오감과 수치심이 생긴다’ 는 응답이 19.4%인 반면 특수집단은 1.1%에 불과함으로써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흥가 뿐만 아니라 학교주변까지 나돌고 있는 음란 전단지에 대해 많은 청소년들이 무감각한 반응을 보일 만큼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특수집단 청소년들의 경우 성적 충동을 느끼거나 실제 전화를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다는 것은 이러한 매체가 청소년들이 성관련 문제행동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5) 밤 10시 이후 TV에서 19세 미만 청소년 시청불가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듭니까?

① 아무런 느낌이 없다

② 강한 호기심이 생긴다

- | | |
|------------------|----------------|
| ③ TV 내용을 모방하고 싶다 | ④ 혐오감과 죄의식이 든다 |
| ⑤ 본적이 없다 | ⑥ 기타 |

<표 VI-25> 19세 미만 시청불가 프로그램을 보고 난 후 느낌 ()%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χ^2
특수	87 (48.6)	59 (33.0)	13 (7.3)	3 (1.7)	11 (6.1)	6 (3.4)	179 (100.0)	$\chi^2=58.12^{**}$ df=5
일반	551 (58.0)	196 (20.6)	31 (3.3)	27 (2.8)	118 (12.4)	27 (2.8)	950 (100.0)	
전체	638 (56.5)	255 (22.6)	44 (3.9)	30 (2.7)	129 (11.4)	33 (2.9)	1129 (100.0)	

***p<.001

위의 표에 의하면, 시청불가 TV 프로그램을 본 후 느낌은 특수집단과 일반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아무런 느낌이 없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특수집단의 경우 48.6%인 반면, 일반집단은 58.0%로 나타났다. 한편, 특수집단은 '강한 호기심이 생긴다'(33.0%), '모방해 보고 싶다'(7.3%)의 응답으로 일반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으며, 일반집단은 '혐오감과 수치심이 생긴다'의 반응이 12.4%로 특수집단보다 더 높다.

6) 채팅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주로 누구와 많이 합니까?

- | | |
|------------------|-------------|
| ① 채팅을 한 적이 없다 | ② 동성친구 |
| ③ 친척 | ④ 이성친구 |
| 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 | ⑥ 전혀 모르는 사람 |
| ⑦ 기타 | |

<표 VI-26> 채팅유무와 대상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χ^2
특수	5	59	1	81	19	14		179	
	(2.8)	(33.0)	(0.6)	(45.3)	(10.6)	(7.8)		(100.0)	
일반	74	504	11	183	101	75	2	950	$\chi^2=61.95^{***}$ df=6
	(7.8)	(53.1)	(1.2)	(19.3)	(10.6)	(7.9)	(0.2)	(100.0)	
전체	79	563	12	264	120	89	2	1129	
	(7.0)	(49.9)	(1.1)	(23.4)	(10.6)	(7.9)	(0.2)	(100.0)	

***p<.001

위의 표를 보면, 약 7%를 제외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채팅을 한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수집단은 이성친구와의 채팅이 45.3%로 일반집단 19.3%보다 훨씬 더 높으며, 일반집단은 동성친구가 53.1%로서 특수집단 33.0%보다 훨씬 더 높다.

비행경험이 있는 특수집단 청소년들의 경우 주로 이성친구와 채팅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밖에 일반집단과 차이가 없지만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나 ‘전혀 모르는 사람’과 채팅을 하는 청소년도 전체 약 18.5%에 이른다. 인터넷 채팅이 성매매나 원조교제 등의 성관련 문제 행동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청소년들의 절반가량은 동성친구와 채팅을 하지만 나머지 약 40% 정도는 이성친구나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 모르는 사람 등과 채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이 실업계 여자 고등학생이라는 점에서 여학생들의 성 문제행동이 채팅을 통해 시작되거나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7) 채팅 시 어떤 분야에 대하여 주로 이야기를 나눕니까?

- | | |
|------------------|---------------------|
| ① 주제 없이 그냥 재미 삼아 | ② 취미 분야나 정보교류 등에 대해 |
| ③ 성과 관련된 이야기 | ④ 말 못할 고민 등에 대해 |
| ⑤ 기타 | |

<표 VI-27> 채팅 시 이야기 주제 ()%

	①	②	③	④	⑤	전체	χ^2
특수	136 (76.0)	16 (8.9)	7 (3.9)	12 (6.7)	8 (4.5)	179 (100.0)	$\chi^2=2.92$ df=4
일반	685 (72.1)	122 (12.8)	28 (2.9)	63 (6.6)	52 (5.5)	950 (100.0)	
전체	821 (72.7)	138 (12.2)	35 (3.1)	75 (6.6)	60 (5.3)	1129 (100.0)	

채팅 시 이야기 주제에 대한 응답은 양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즉, en 집단 모두 ‘주제 없이 그냥 재미 삼아 한다’라는 반응이 전체 72.7%로 가장 높고, ‘취미 분야의 정보교류를 위해’가 12.2%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특수집단의 3.9%와 일반집단의 2.9%의 청소년들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채팅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채팅을 통해 건전한 대화를 나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 채팅이 성관련 문제행동의 주요 통로임을 재확인시켜 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8)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채팅방법(사이트)은 무엇인가요?

<표 VI-28> 가장 많이 이용하는 채팅 사이트 ()%

	세이 클럽	프리챌	하늘 사랑	오마이 러브	메신저	기타	전체	χ^2
특수	117 (65.4)	3 (1.7)	2 (1.1)	4 (2.2)	22 (12.3)	31 (17.3)	179 (100.0)	$\chi^2=50.53^{***}$ df=5
일반	818 (86.1)	3 (0.3)	10 (1.1)	11 (1.2)	38 (4.0)	70 (7.4)	950 (100.0)	
전체	935 (82.8)	6 (0.5)	12 (1.1)	15 (1.3)	60 (5.3)	101 (8.9)	1129 (100.0)	

***p<.001

위의 표에 의하면,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채팅사이트에 대한 응답은 특수집단과 일반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모두 ‘세이클럽’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지만, 특수집단은 65.4%로 나타난 반면, 일반집단은 86.1%로 나타나 일반집단의 응답비율이 더 높다. 그리고 특수집단의 경우 ‘기타’와 ‘메신저’ 사이트 이용이 일반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

9) 화상채팅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다음 예시 중 어떤 것을 경험해 보았는지요?

- ① 화상채팅 경험이 없다 ② 상대방의 얼굴만 보면서 대화한다
 ③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 ④ 얼굴외 특정 신체부위를 보면서 대화
 ⑤ 얼굴외 특정 신체부위를 서로 보면서 대화 ⑥ 기타

<표 VI-29> 화상채팅 경험과 채팅 방법 () %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χ^2
특수	100 (55.9)	31 (17.3)	34 (19.0)	1 (0.6)	6 (3.4)	7 (3.9)	179 (100.0)	
일반	665 (70.0)	83 (8.7)	141 (14.8)	10 (1.1)	15 (1.6)	36 (3.8)	950 (100.0)	$\chi^2=20.03^{**}$ df=5
전체	765 (67.8)	114 (10.1)	175 (15.5)	11 (1.0)	21 (1.9)	43 (3.8)	1129 (100.0)	

**p<.001

화상채팅 경험에 대해 특수집단과 일반집단 모두 ‘화상채팅 경험 없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 이러한 반응은 특수집단(55.9%)보다 일반집단(77.0%)에게 더 높았다. 그러나 특수집단의 경우 화상채팅 경험에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19.0%),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17.3%), ‘얼굴 외 특정 신체부위를 서로 보면서’ (3.4%) 대화한 경험이 일반집

단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화상채팅을 통해 변칙적인 방법의 채팅과 일탈행동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는데, 특수집단 청소년들에게 이와 같은 경험이 더 많다는 것은 이러한 방식의 채팅이 문제행동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10) 채팅 후 채팅에서 만난 사람(모르는 사람)을 실제로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상대방은 누구였습니까?

<표 VI-30> 채팅 후 실제로 만난 경험 () %						χ^2
	없다	같은 또래의 동성	같은 또래의 여성	이성의 어른	기타	
특수	87 (48.6)	10 (5.6)	75 (41.9)	5 (2.8)	2 (1.1)	179 (100.0)
일반	688 (72.4)	73 (7.7)	159 (16.7)	15 (1.6)	15 (1.6)	950 (100.0)
전체	775 (68.6)	83 (7.4)	234 (20.7)	20 (1.8)	17 (1.5)	1129 (100.0)

$\chi^2=60.82^{***}$
df=4

***p<.001

위의 표에 의하면, 채팅 후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특수집단과 일반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두 집단 모두 '없다' 라는 응답이 가장 높지만, 이런 반응은 일반집단(72.4%)이 특수집단(48.6%)보다 훨씬 더 높다. 따라서 특수집단의 경우 상대방을 실제로 만난 경험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같은 또래의 이성' (41.9%)과 '이성의 성인' (2.9%)을 만난 경험이 일반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다. 그러므로 채팅이 이성 친구와의 만남과 성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성관련 행동을 시작하게 하는 주요 매체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1) 음란, 폭력, 엽기 사이트를 접속해 본적이 있을 경우 이들 사이트를 주로 어디에서 접속합니까?

<표 VI-31> 음란, 폭력, 엽기 사이트 접속 장소 ()%							χ^2
	없다	자신의 집	친구나 선후배집	PC방	학교	기타	
특수	26 (14.5)	80 (44.7)	42 (23.5)	30 (16.8)	1 (0.6)	179 (100.0)	$\chi^2 = 79.74^{***}$ df=5
일반	364 (38.3)	415 (43.7)	89 (9.4)	53 (5.6)	20 (2.1)	9 (0.9)	
전체	390 (34.5)	495 (43.8)	131 (11.6)	83 (7.4)	21 (1.9)	1129 (100.0)	

***p<.001

위의 표에 의하면, 음란, 폭력, 엽기 사이트 접속 장소에 대한 응답은 특수집단과 일반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두 집단 모두 자신의 집에서 접속한 경험이 가장 많지만, '접속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일반집단에서 38.3%로 특수집단 14.5%보다 더 높다. 특수집단의 경우 이러한 사이트를 자신의 집 이외에 친구나 선후배 집(23.5%), PC방(16.8%)에서 접속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음란, 폭력, 엽기 사이트를 접속해 본 적이 있을 경우 언제 처음 접속해 보았습니까?

- | | | |
|--------------|--------------|------------|
| ① 초등학교 1-3학년 | ② 초등학교 4-6학년 | ③ 중학교 1학년 |
| ④ 중학교 2학년 | ⑤ 중학교 3학년 | ⑥ 고등학교 1학년 |
| ⑦ 고등학교 2학년 | ⑧ 고등학교 3학년 | |

<표 VI-32> 음란사이트를 처음으로 이용한 시기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체	χ^2
특수	4 (2.2)	37 (20.7)	66 (36.9)	33 (18.4)	20 (11.2)	12 (6.7)	3 (1.7)	4 (2.2)	179 (100.0)	$\chi^2=30.02^{***}$ df=7
일반	29 (3.7)	119 (15.2)	171 (21.9)	168 (21.5)	161 (20.6)	89 (11.4)	32 (4.1)	13 (1.7)	950 (100.0)	
전체	33 (3.4)	156 (16.2)	237 (24.7)	201 (20.9)	181 (18.8)	101 (10.5)	35 (3.6)	17 (1.8)	1129 (100.0)	

***p<.001

위의 표에 의하면, 질문에 대한 응답은 특수집단과 일반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양 집단 모두 ‘중학교 1학년’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특수집단의 경우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학년’ 비율이 일반집단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음란, 폭력, 엽기 사이트 접속 시기가 사춘기 초기에 시작될수록 비행이나 일탈행동 경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13)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접속하게 되었을 때,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접속합니까?

- ① 접속한 적 없음 ② 스팸메일을 통해서 ③ 일부러 음란사이트 검색
④ 검색 중 우연히 ⑤ 친구나 선후배 소개 ⑥ 신문 잡지 등

<표 VI-33> 인터넷 음란사이트 접속 경로 ()%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χ^2
특수	22 (12.3)	23 (12.8)	31 (17.3)	45 (25.1)	54 (30.2)	4 (2.2)	179 (100.0)	$\chi^2=94.21^{**}$ * df=5
일반	271 (29.3)	213 (23.0)	82 (8.9)	265 (28.6)	78 (8.4)	16 (1.7)	950 (100.0)	
전체	293 (26.5)	236 (21.4)	113 (10.2)	310 (28.1)	132 (12.0)	20 (1.8)	1129 (100.0)	

***p<.001

인터넷 음란 사이트 접속 경로에 대한 응답은 특수집단과 일반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특수집단은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라는 응답이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집단은 ‘접속한 적 없다’라는 응답이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수집단의 경우 ‘일부러 음란사이트를 찾아서’라는 응답이 17.3%이며, 이는 일반집단 8.9%에 비해 2배 가까이 더 높다.

따라서 비행이나 일탈 경험이 있는 특수집단은 음란, 폭력, 엽기 사이트를 이용하는 비율도 높고, 자신의 집 뿐만 아니라 선후배 집이나 PC방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비율도 높으며, 대체로 사춘기 시기(초등 4~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에 최초로 접속하는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14) 비디오방, 호프집, 소주방, 나이트클럽, 락카페 등의 업소를 이용하려고 했을 때, 업소 주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다음 보기 중 하나만 선택하시오.

- ① 대부분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켰다
 ② 대부분 나이는 확인하였지만 실제 확인은 하지 않고 출입시켰다
 ③ 대부분 나이를 확인한 후 19세 미만은 출입시키지 않았다
 ④ 내가 나이를 속이고 출입했다 ⑤ 이용해 보지 않아서 모른다

<표 VI-34> 유흥업소 이용 시 업소 주인들의 반응 ()%

	①	②	③	④	⑤	전체	χ^2
특수	60 (33.5)	37 (20.7)	18 (10.1)	35 (19.6)	29 (16.2)	179 (100.0)	$\chi^2=60.82^{***}$ df=4
일반	147 (15.6)	150 (16.0)	87 (9.3)	149 (15.9)	407 (43.3)	950 (100.0)	
전체	207 (18.5)	187 (16.7)	105 (9.4)	184 (16.4)	436 (39.0)	1129 (100.0)	

***p<.001

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17) 유흥업소나 일터에서 아르바이트(부업)를 하는 중 동료나 업주로부터 성추행이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표 VI-37> 아르바이트 중 동료나 업주로부터의 성추행 ()%

	해당없음	있다.	없다.	전체	χ^2
특수	56(31.3)	11(6.1)	112(62.6)	179(100.0)	$\chi^2=44.84^{***}$ df= 2
일반	540(58.1)	24(2.6)	366(39.4)	930(100.0)	
전체	596(53.7)	35(3.2)	478(43.1)	1109(100.0)	

***p<.001

이 질문은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이다. 즉, 성인들이 그들의 영업적 이익을 위해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착취하여 성적 접대와接客, 흥행을 강요하고, 심지어 폭행이나 성추행 등을 하는 것이 청소년 유해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그 실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특수집단은 ‘있다’는 비율이 6.1%인 반면, 일반집단은 2.4%이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해당 없음’과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 결과만으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도 법적인 청소년유해행위의 실태와 개선책에 대한 연구의 한계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성인들의 유해행위 실태를 확인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유해행위 유형과 정도, 청소년들의 피해상태와 경로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행위와 피해 사례는 얼핏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으며, 또한 그들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을 지닐 수밖에 없다.

18) 콘돔과 같은 피임기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반드시 사용할 것이다
 ② 귀찮아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③ 구입하기 힘들거나 창피해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④ 피임기구 사용은 성 기능을 방해할 것으로 생각된다
 ⑤ 임신이나 성병은 나에게 무관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⑥ 기타

<표 VI-38> 피임기구 사용에 대한 생각 ()%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χ^2
특수	61 (34.1)	69 (38.5)	18 (10.1)	10 (0.6)	3 (0.7)	18 (10.1)	179 (100.0)	$\chi^2=96.10^*$ ** df=5
일반	557 (60.5)	101 (11.0)	82 (8.9)	39 (4.0)	41 (0.5)	100 (10.9)	920 (100.0)	
전체	618 (56.2)	170 (15.5)	100 (9.1)	49 (4.5)	44 (4.0)	118 (10.7)	1099 (100.0)	

***p<.001

위의 표에 의하면, 피험자의 응답은 양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피임기구 사용에 대해 특수집단은 ‘귀찮아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집단은 ‘피임기구를 반드시 사용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6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비행경험이 있는 특수집단의 경우 성에 대한 의식과 피임기구에 대한 생각 또한 그들의 문제행동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19) 성에 대한 지식을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됩니까?

① 인터넷	② 친구	③ 학교 성교육
④ 사회교육기관	⑤ 비디오 및 음란영화	⑥ 부모
⑦ 대중매체	⑧ 기타	

<표 VI-39> 성지식 습득 경로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체	χ^2
특수	56 (31.6)	75 (42.4)	23 (13.0)	3 (1.7)	11 (6.2)	1 (0.6)	5 (2.8)	3 (1.7)	177 (100.0)	$\chi^2=22.589^*$ df=7
일반	229 (24.7)	295 (31.9)	223 (24.1)	32 (3.5)	48 (5.2)	15 (1.6)	44 (4.8)	40 (4.3)	926 (100.0)	
전체	285 (25.8)	370 (33.5)	246 (22.3)	35 (3.2)	59 (5.3)	16 (1.5)	49 (4.4)	43 (3.9)	1103 (100.0)	

**p<.01

성에 대한 지식의 습득경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양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특수집단은 ‘친구’ 라는 응답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집단은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일반집단 청소년의 경우 ‘학교 성교육’ 을 통해서가 24.1%로 특수집단 13%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의 수용 청소년들은 성에 대한 지식을 인터넷이나 친구 등을 통해 많이 습득하고 있지만, 일반 청소년들은 친구와 인터넷, 그리고 성교육 등이 주요 매개체임을 알 수 있다.

20) 지금까지 학교에서 성교육을 어느 정도 받아 보았습니까?

<표 VI-40> 성교육 받은 횟수 ()%

	받아본적 없다	1-2회	3-4회	5-6회	7회이상	전체	χ^2
특수	7(3.9)	64(36.0)	70(39.3)	22(12.4)	15(8.4)	178(100.0)	$\chi^2=12.585^*$ df= 4
일반	48(5.2)	263(28.2)	320(34.4)	139(14.9)	161(17.3)	931(100.0)	
전체	55(5.0)	327(29.5)	390(35.2)	161(14.5)	176(15.9)	1109(100.0)	

* <.05

성교육 받은 횟수에 대해 양 집단간에 5%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전체적으로 '3~4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일반집단의 경우 5회 이상이 전체적으로 약 32%에 이르고 있는 반면 특수집단은 약 21%에 그침으로써 성 교육 경험 횟수에 있어서 일반집단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교육 횟수는 성관련 문제행동의 중요 보호요인 또는 보상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1) 학교에서 처음 성교육을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표 VI-41> 첫 성교육을 받은 시기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받아본적 없다	전체	χ^2
특수	4(2.3)	70(39.5)	93(52.5)	4(2.3)	6(3.4)	177(100.0)	$\chi^2=6.1$ 52 df= 4
일반	27(2.9)	449(48.5)	401(43.4)	25(2.7)	23(2.5)	925(100.0)	
전체	31(2.8)	519(47.1)	494(44.8)	29(2.6)	29(2.6)	1102(100.0)	

학교에서 첫 성교육을 받은 시기를 살펴보면, 특수집단과 일반집단 모두 '초등학교'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학교 시기이다. 유치원에서 성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전체 2.8%에 그침으로서 조기 성교육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교육은 청소년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년기 동안에도 지속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성교육 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2) 학교에서 받아 본 성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재미가 없다 | |
| ②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배운다 | |
| ③ 윤리 도덕적인 내용 중심으로 흥미가 없다 | |
| ④ 이해가 어려운 내용이 많다 | |
| ⑤ 교육을 받아보지 않아 모르겠다 | ⑥ 기타 |

<표 VI-42> 학교 성교육에 대한 생각 () %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χ^2
특수	56 (31.6)	75 (42.4)	23 (13.0)	3 (1.7)	11 (6.2)	1 (0.6)	5 (2.8)	$\chi^2=22.58$ 9** df=7
일반	229 (24.7)	295 (31.9)	223 (24.1)	32 (3.5)	48 (5.2)	15 (1.6)	44 (4.8)	
전체	285 (25.8)	370 (33.5)	246 (22.3)	35 (3.2)	59 (5.3)	16 (1.5)	49 (4.4)	

**p<.01

학교 성교육에 대한 생각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전체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배운다' 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33.5%), 특수집단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재미없다' 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일반집단은 '윤리 도덕적인 내용으로 흥미가 없다' 에 응답비율이 더 높다. 그러므로 전체 약 48%의 청소년들은 성교육이 이미

알고 있거나 도덕적인 내용이어서 재미가 없다는 반응을 하였다.

성교육이 흥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청소년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내용과 방법으로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3) 성 행동 중 다음 중 어떤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① 이성친구와 키스, 애무	②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③ 동성친구와의 키스, 애무	④ 동성친구와의 성관계
⑤ 성매매(원조교제)	⑥ 성폭력 피해
⑦ 성폭력 가해(강간)	⑧ 아무런 경험 없다

<표 VI-43> 성 접촉 경험에 관한 사항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체	χ^2
특수	50 (28.4)	85 (48.3)		3 (1.7)	2 (1.1)	4 (2.3)	5 (2.8)	27 (15.3)	176 (100.0)	
일반	272 (29.3)	54 (5.8)	25 (2.7)	6 (0.6)	9 (1.0)	27 (2.9)	5 (0.5)	530 (57.1)	928 (100.0)	$\chi^2=278.891^{***}$ df=7
전체	322 (29.2)	139 (12.6)	25 (2.3)	9 (0.8)	11 (1.0)	31 (2.8)	10 (0.9)	557 (50.5)	1104 (100.0)	

***p<.001

성 접촉 경험에 대해 특수집단은 ‘이성친구와 성관계’라는 응답이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집단은 ‘아무런 경험 없다’라는 응답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소수응답이지만, 동성연애 경험(3.1%)과 성매매(1.0%), 성폭력 피해(2.8%), 성폭력가해(0.9%) 등도 확인되고 있다.

특수집단 청소년의 경우 특히 성폭력(강간)을 행사한 경우가 2.8%에

이르고, 일반 청소년의 2.9%가 성 피해 경험자라는 것과 전체적으로 원조 교제 등의 성 매매도 전체 피험자 가운데 11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청소년의 성행동이 단순히 그들의 자율적인 의지와 선택에 따른 것이라면 위험행동에 속하겠지만, 그것이 성인들의 유해행위에 근거한 것이라면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문제행동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24) 성관계 경험이 있다면 첫 성관계 경험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① 이성친구	② 아는 사람
③ 가족이나 친척	④ 우연히 만난 사람
⑤ 성매수자(대가를 지불한 성인)	⑥ 기타(경험 없음 등)

<표 VI-44> 첫 성관계 경험 대상 () %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χ^2
특수	79 (45.4)	45 (25.9)	2 (1.1)	5 (2.9)	2 (1.1)	41 (23.6)	174 (100.0)	$\chi^2=205.588^*$ ** df=5
일반	105 (11.7)	67 (7.5)	9 (1.0)	14 (1.6)	9 (1.0)	691 (77.2)	895 (100.0)	
전체	184 (17.2)	112 (10.5)	11 (1.0)	19 (1.8)	11 (1.0)	732 (68.5)	1069 (100.0)	

***p<.001

첫 성관계 경험 대상에 대해 양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이성친구'라는 응답이 특수집단의 경우 45.4%로 나타난 반면, 일반집단의 경우 11.7%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 청소년들의 경우 '성관계 경험 없음'이 전체의 77.2%에 이르고 있음으로써 양 집단간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 한편, 특수집단과 일반집단의 1% 가량은 '성매수자'가 첫 성관계 경험 대상으로 나타났으며, 특수집단의 2.9%는 '우연히 만난 사람'과 첫 성관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5) 성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을 임신시키거나 스스로 임신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표 VI-45> 임신경험			()%
	있다	없다	전체
특수	30(16.9)	148(83.1)	178(100.0)
일반	33(3.6)	887(96.4)	920(100.0)
전체	63(5.7)	1035(94.3)	1098(100.0)

$\chi^2=48.537^{***}$
df= 1

***p<.001

임신 경험 여부에 대해 알아 본 결과, '있다' 라는 응답이 특수집단의 경우 16.9%, 일반집단의 경우 3.6%로 나타났으며, 양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26)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의 제안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표 VI-46> 성매매 제안을 받아본 경험			() %
	예	아니오	전체
특수	10(5.6)	167(94.4)	177(100.0)
일반	101(10.8)	833(89.2)	934(100.0)
전체	111(10.0)	1000(90.0)	1111(100.0)

$\chi^2=4.412^*$
df= 1

*<.05

성매매 제안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 라는 응답이 특수집단은 5.6%, 일반집단은 10.8%로 나타나 특수집단에 비해 일반집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집단의 경우 대다수가 실업계 여고생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7) 성매매(원조교제) 제안은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까?

- | | |
|--------------------|------------|
| ① 채팅 | ② 전화방 |
| ③ 친구나 선후배 소개 | ④ 유흥업소를 통해 |
| ⑤ 부킹(거리,노래방,나이트클럽) | ⑥기타(경험없음) |

<표 VI-47> 청소년 성매매 제안 경로 () %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χ^2
특수	16 (9.0)	7 (3.9)	6 (3.4)	4 (2.2)	9 (5.1)	136 (76.4)	178 (100.0)	$\chi^2=22.372$ *** df=5
일반	145 (16.1)	23 (2.5)	9 (1.0)	3 (0.3)	27 (3.0)	695 (77.1)	902 (100.0)	
전체	161 (14.9)	30 (2.8)	15 (1.4)	7 (0.6)	36 (3.3)	831 (76.9)	1080 (100.0)	

***p<.001

성매매 제안 경로에 대해 ‘기타’ 라는 응답을 제외하곤, 특수집단과 일반집단 모두 ‘채팅’ 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채팅’ 을 통한 제안의 경우 일반 집단이 16.1%로 특수집단 9.0%보다 더 높으며, 특수집단은 ‘부킹’ 5.1%, ‘전화방’ 3.9%, ‘친구나 선후배 소개’ 3.4%, ‘유흥업소 소개’ 2.2% 등으로 일반집단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양한 경로에서 제안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청소년들은 성매매가 채팅이 주요 경로라고 한다면, 특수집단 청소년의 경우 채팅과 더불어 부킹, 전화방, 친구나 선후배 소개, 유흥업소 등의 다양한 경로에 따라 원조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8) 친구가 성매매 제의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
|---------------------|
| ① 만나지 못하도록 한다 |
| ② 내일이 아니므로 상관하지 않겠다 |

- ③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아본 후 결정하게 한다
- ④ 나도 같이 연결해 달라고 한다
- ⑤ 기타

<표 VI-48> 친구가 성매매 제의를 받은 경우 대처방법 ()%

	①	②	③	④	⑤	전체	χ^2
특수	112 (63.6)	19 (10.8)	14 (8.0)	11 (6.3)	20 (11.4)	176 (100.0)	$\chi^2=30.998^*$ ** df=4
일반	757 (81.7)	62 (6.7)	29 (3.1)	24 (2.6)	55 (5.9)	927 (100.0)	
전체	869 (78.8)	81 (7.3)	43 (3.9)	35 (3.2)	75 (6.8)	1103 (100.0)	

***p<.001

친구가 성매매 제의를 받은 경우 특수집단의 63.6%와 일반집단의 81.7%가 '만나지 못하도록 한다' 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지만, 일반집단의 비율이 더 높으며, 특수집단의 경우 '상관 않겠다' 10.8%, '대가 보고 결정' 8.0%, '나도 같이 연결 원함' 6.3% 등으로 일반집단보다 그 비율이 더 높다.

청소년들은 또래 친구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으며, 특히 성관련 행동의 경우 절대적인 영향 요인임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결과는 비행 친구와의 관계가 성관련 문제행동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29)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발생의 가장 직접적인 동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친구의 권유 ② 사고 싶은 것을 사려면 돈이 필요해서
- ③ 성에 대한 호기심과 욕구 ④ 당장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 ⑤ 성에 대한 개방적 의식 ⑥ 기타

<표 VI-49> 청소년 성매매 발생의 가장 직접적인 동기 ()%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χ^2
특수	20 (11.4)	74 (42.0)	42 (23.9)	13 (7.4)	3 (1.7)	24 (13.6)	176 (100.0)	$\chi^2=23.054^{**}$ df=5
일반	66 (7.1)	514 (55.6)	117 (12.6)	60 (6.5)	32 (3.5)	136 (14.7)	925 (100.0)	
전체	86 (7.8)	588 (53.4)	159 (14.4)	73 (6.6)	35 (3.2)	160 (14.5)	1101 (100.0)	

***p<.001

성매매 발생의 가장 직접적인 동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양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일반집단의 경우 ‘사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해서’가 55.6%인 반면 특수집단은 42.0%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수집단은 ‘성에 대한 호기심 및 욕구’와 ‘친구의 권유’의 비율이 일반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

따라서 성매매를 할 경우 대부분의 청소년은 원하는 물건과 옷 등을 사고 싶어서가 가장 많지만, 특히 특수집단의 경우 친구의 권유와 성에 대한 욕구도 성매매의 발생 동기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0)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성매매가 만연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가정, 학교, 사회에서 성교육이 제대로 없기 때문
- ② 성 윤리에 대한 의식이 약해서
- ③ 인터넷 등 음란성 유해매체에 널리 있어서
- ④ 성인들의 부도덕성
- ⑤ 기타

<표 VI-50> 우리 사회에 청소년 성매매의 발생원인 ()%

	①	②	③	④	⑤	전체	χ^2
특수	30 (16.9)	25 (14.0)	63 (35.4)	39 (21.9)	21 (11.8)	178 (100.0)	$\chi^2 = 6.502$ df=4
일반	125 (13.5)	134 (14.4)	274 (29.5)	280 (30.2)	115 (12.4)	928 (100.0)	
전체	155 (14.0)	159 (14.4)	337 (30.5)	319 (28.8)	136 (12.3)	1106 (100.0)	

우리 사회에 청소년 성매매가 확산되게 된 이유에 대해 의 발생원인에 대해 특수집단은 ‘인터넷 등 음란성 유해매체가 널려있어서’ (35.4%)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집단은 ‘성인들의 건전한 도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30.2%)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해매체 역시 우리 사회 성인들의 왜곡된 가치관과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성인들의 부도덕성이 가장 심각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성인들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행위가 청소년 성매매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31) 성매매 하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어른처럼 형사처벌해야 한다
- ② 소년원으로 보내서 선도해야 한다
- ③ 학교나 가정에서 지도해야 한다
- ④ 기타

<표 VI-51>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지도방안 ()%

	①	②	③	④	전체	χ^2
특수	25 (14.1)	51 (28.8)	80 (45.2)	21 (11.9)	177 (100.0)	$\chi^2 = 4.316$ df=3
일반	183 (19.9)	249 (27.1)	362 (39.4)	124 (13.5)	918 (100.0)	
전체	208 (19.0)	300 (27.4)	442 (40.4)	145 (13.2)	1095 (100.0)	

성매매 하는 청소년들의 지도 방안과 관련하여 특수집단과 일반집단 모두 ‘학교나 가정에서 지도해야 한다’ 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성 관련 위험행동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여기서는 성관련 위험행동(21개 문항의 5점 평정척도)에 대하여 가출경험, 흡연 여부, 이성친구 여부, 유흥업소출입 경험, 성관계 여부 각각과 집단(특수집단, 일반집단)을 투입변인으로 하여 이들 각 투입변인이 성 관련 위험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들의 성관련 위험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을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

1) 가출경험 유무가 성관련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특수집단과 일반집단 각각의 가출 경험 유무가 성관련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집단별 성관련 위험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I-52> 가출경험 여부에 따른 집단별 위험행동 특점의 평균과표준편차

	특수(N=179)		일반(N=950)		전체(N=1129)	
	M	SD	M	SD	M	SD
있다	57.04	11.99	47.25	14.75	51.56	14.43
없다	50.92	13.50	40.55	16.38	41.04	16.40
전체	55.74	12.54	41.81	16.29	44.02	16.55

위의 평균 및 표준편차에 근거하여 각 집단간 평균차의 유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I-53> 집단별 가출경험 여부와 성 위험행동과의 관계 분석

Source	SS	df	MS	F	p
Intercept	951134.78	1	951134.78	3930.59	.000
집단	10092.38	1	10092.38	41.71	.000
가출	4075.75	1	4075.75	16.84	.000
집단 * 가출	8.11	1	8.11	.03	.855
Error	272230.32	1125	241.98		

위의 표에 따르면, 특수집단과 일반집단간 그리고 가출경험 유무간의 주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피험자 집단유형과 가출경험 유무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다. 즉, 일반집단에 비해 특수집단인 경우 성관련 위험행동 수준이 유의미하게 더 높으며, 가출경험이 있는 집단이 가출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위험행동 특점이 의미있게 더 높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성 관련 위험행동은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등의 특수 집단 청소년과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의미있게 더 높으며, 이들 변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2) 흡연경험 유무가 성관련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특수집단과 일반집단 각각의 흡연 경험 유무가 성관련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집단별 성관련 위험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I-54> 흡연경험 여부에 따른 집단별 위험행동 득점의 평균과 표준편차

	특수		일반		전체	
	M	SD	M	SD	M	SD
있다	56.47	9.74	51.27	14.49	53.44	12.96
없다	48.07	16.19	39.69	16.25	40.03	16.32
잘 모르겠다	58.69	13.10	44.94	13.76	49.98	15.03
전체	55.74	12.54	41.81	16.29	44.02	16.55

위의 평균 및 표준편차에 근거하여 각 집단간 평균차의 유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I-55> 집단별 흡연경험 여부와 성 위험행동과의 관계 분석

Source	SS	df	MS	F	p
Intercept	1095278.92	1	1095278.92	4700.88	.000
집단	9137.61	1	9137.61	39.22	.000
흡연	7726.68	2	3863.34	16.58	.000
집단 * 흡연	1560.44	2	780.22	3.35	.035
Error	261653.06	1123	232.99		

위의 표에 따르면, 특수집단과 일반집단간 그리고 흡연경험 유무간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일반집단에 비해 특수집단인 경우 성관련 위험행동 수준이 유의미하게 더 높고, 흡연경험이 있는 집단이 흡연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위험행동 득점이 더 높다.

한편, 위험행동의 평균값에 근거하여 집단과 흡연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해 보면, 특수집단이 일반집단보다 전체적으로 위험행동 득점이 더 높지만, 흡연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집단차보다 흡연경험이 없거나 흡연 여부를 잘 모르겠다는 청소년들의 집단차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흡연경험 유무보다 비행 성향(특수 대 일반)이 성관련 위험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3) 이성친구 유무가 성관련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특수집단과 일반집단 각각의 이성친구 유무가 성관련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집단별 성관련 위험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I-56> 이성친구 유무에 따른 집단별 위험행동 득점의 평균과 표준편차

	특 수		일 반		전 체	
	M	SD	M	SD	M	SD
있다	57.02	11.54	45.65	15.57	48.27	15.49
없다	54.12	12.37	40.10	16.29	41.88	16.51
잘 모르겠다	79.00	36.77	43.32	17.28	45.70	20.16
전체	55.74	12.54	41.81	16.29	44.02	16.55

집단간 평균차의 유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I-57> 집단별 이성친구 유무와 성 위험행동과의 관계 분석

Source	SS	df	MS	F	p
Intercept	180811.47	1	180811.47	745.55	.000
집단	6617.17	1	6617.17	27.29	.000
이성친구	3668.40	2	1834.20	7.56	.001
집단 * 이성친구	1211.38	2	605.69	2.50	.083
Error	272350.15	1123	242.52		

위의 표에 따르면, 특수집단과 일반집단간 그리고 이성친구 유무간의 주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집단과 이성친구간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수집단은 일반집단에 비해 성관련 위험행동 수준이 유의미하게 더 높으며, 이성친구가 있는 청소년들이 이성친구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보다 위험행동 특점이 의미있게 더 높다.

따라서 성관련 위험행동은 특수집단이 일반집단보다 그리고 이성친구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보다 의미있게 더 높으며, 양 변인은 위험행동에 의미있는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4) 유흥업소 출입 유무가 성관련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특수집단과 일반집단 각각의 유흥업소 출입경험 유무가 성관련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집단별 성관련 위험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I-58> 유흥업소 출입에 따른 집단별 위험행동 특점의 평균과 표준편차

	특수		일반		전체	
	M	SD	M	SD	M	SD
있다	58.65	10.57	48.01	15.89	51.27	15.27
없다	49.18	14.16	39.21	15.76	39.98	15.85
전체	55.74	12.54	41.81	16.29	44.02	16.55

집단간 평균차의 유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I-59> 집단별 유흥업소 출입경험 유무와 성 위험행동과의 관계 분석

Source	SS	df	MS	F	p
Intercept	1215541.32	1	1215541.32	5236.67	.000
집단	13578.54	1	13578.54	58.50	.000
유흥업소	10660.01	1	10660.01	45.92	.000
집단 * 유흥업소	14.62	1	14.62	.06	.802
Error	261136.12	1125	232.12		

위의 표에 따르면, 특수집단과 일반집단간 그리고 유홍업소 출입 경험 유무간의 주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집단에 비해 특수집단인 경우 성관련 위험행동 수준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홍업소 출입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출입경험이 없는 청소년 보다 성관련 위험행동 득점이 의미있게 더 높다. 따라서 유홍업소 출입경험은 성관련 위험행동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

5) 성관계 경험이 성관련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특수집단과 일반집단 각각의 성관계 경험 유무가 성관련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집단별 성관련 위험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I-60> 성관계 여부에 따른 집단별 위험행동 득점의 평균과 표준편차

	특 수		일 반		전 체	
	M	SD	M	SD	M	SD
있다	58.78	9.76	48.65	14.94	51.72	14.35
없다	45.98	15.18	38.31	16.14	38.83	16.18
전체	55.69	12.53	41.87	16.48	44.14	16.70

집단간 평균차의 유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I-61> 집단별 성관계 경험 유무와 성 위험행동과의 관계 분석

Source	SS	df	MS	F	p
Intercept	1009806.83	1	1009806.83	4426.79	.000
집단	8699.61	1	8699.62	38.14	.000
성관계	14717.34	1	14717.34	64.52	.000
집단 * 성관계	166.68	1	166.68	.73	.393
Error	240430.78	1054	228.11		

위의 표에 따르면, 특수집단과 일반집단간 그리고 성관계 경험 유무간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다.

즉, 일반집단에 비해 특수집단인 경우 성관련 위험행동 수준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관계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에 위험행동 득점이 유의미하게 더 높다. 따라서 성관련 위험행동은 성관계 경험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4. 보호요인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여기서는 성관련 보호요인으로 가정한 5개 요인(가족기능, 부와 모 각각의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이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완충적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특수집단 피험자(소년원, 보호관찰소)와 일반집단 피험자(실업계 고등학교) 별로 보호요인 전체가 가출, 흡연, 이성친구, 유흥업소 출입, 성관계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판별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1) 가출 여부에 대한 보호요인들의 영향 분석

먼저, 특수집단 청소년과 일반집단 청소년들의 가출여부에 대한 보호요인의 영향을 판별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I-62> 특수집단의 가출 여부에 대한 정준판별함수

Eigen Value	Percentage of variance	Cumulative percentage	Canonical correlation	Wilk's Lambda	χ^2	df	p
.024	100.0	100.0	.154	.976	4.213	5	.519

위의 표에 따르면, 특수집단의 경우 보호요인 전체는 가출경험이 있는 집단과 가출경험이 없는 집단을 판별해 주는 판별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표 VI-63> 일반집단의 가출 여부에 대한 정준판별함수

Eigen Value	Percentage of variance	Cumulative percentage	Canonical correlation	Wilk's Lambda	χ^2	df	p
.022	100.0	100.0	.148	.978	20.964	5	.001

위의 표에 따르면, 일반집단의 경우 보호요인은 가출 경험이 있는 집단과 가출 경험이 없는 집단을 판별해 주는 판별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별함수와 집단간의 관련정도인 정준상관계수는 $r=.148$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요인들이 가출여부를 판별하는데 있어서 이미 문제행동을 경험한 비행집단에게는 판별적 기능을 갖지 못하는 반면, 문제행동경험이 없는 일반 청소년 집단의 경우에는 가출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수집단 청소년들의 경우 이들에게 보호요인이 작용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비행에 개입하였고 보호요인의 부재는 가출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문제행동을 야기시켰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반집단 청소년들은 보호요인의 작용이 가출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호요인 각각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I-64> 일반집단의 가출 여부에 대한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

Variable	function
가족기능	-.320
부의사소통	-.169
모의사소통	-.878
사회적지지	-.155
자기효능감	-.185

위의 표에 따르면,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에서 상대적인 중요도는 '모 의사소통' (-.878), '가족기능' (-.320), '자기효능감' (-.185), '부 의사소통' (-.169), '사회적 지지' (-.155) 순으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 청소년들의 가출행동을 중재하고 감소시키는데

작용하는 보호요인으로는 모의 의사소통, 가족의 긍정적 기능, 자기 효능감, 부와의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의 순으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표 VI-65> 일반집단의 가출 여부에 대한 정준판별함수 계수의 분류결과

	Group	N	Predicted group membership	
			가출행동 유	가출행동 무
원래값(a)	가출행동 유	179	118(65.9%)	61(34.1%)
	가출행동 무	771	369(47.9%)	402(52.1%)
교차 유효값(b)	가출행동 유	179	117(65.4%)	62(34.6%)
	가출행동 무	771	371(48.1%)	400(51.9%)

Percent if "grouped" correctly classified: 54.7%(a), 54.4%(b)

위의 표에 나타난 판별분석 결과에 의하면, 정준판별함수는 가출행동이 있는 집단의 65.9%와 가출행동이 없는 집단의 52.1%를 각각 정확히 판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판별적중률은 54.7%로 나타났다. 또한 교차분류 정확성은 54.4%로 나타났다.

2) 흡연 유무에 대한 보호요인들의 영향 분석

특수집단 청소년과 일반집단 청소년들의 흡연 유무에 대한 보호요인들의 영향을 판별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I-66> 특수집단의 흡연 여부에 대한 정준판별함수

Eigen Value	Percentage of variance	Cumulative percentage	Canonical correlation	Wilk's Lambda	χ^2	df	p
.005	100.0	100.0	.070	.995	.580	5	.989

위의 표에 따르면, 특수집단의 경우 보호요인 전체는 흡연 경험이 있는 집단과 흡연 경험이 없는 집단을 판별해 주는 판별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표 VI-67> 일반집단의 흡연 여부에 대한 정준판별함수

Eigen Value	Percentage of variance	Cumulative percentage	Canonical correlation	Wilk's Lambda	χ^2	df	p
.026	100.0	100.0	.159	.975	21.894	5	.001

위의 표에 따르면, 일반집단의 경우 보호요인 전체는 흡연 경험이 있는 집단과 흡연경험이 없는 집단을 판별해 주는 판별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또한 판별함수와 집단간의 관련정도인 정준상관계수는 $r=.159$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요인들이 흡연여부를 판별하는데 있어서 이미 문제행동을 경험한 비행집단에게는 판별적 기능을 갖지 못하는 반면, 문제행동경험이 없는 일반 청소년 집단의 경우에는 흡연 여부를 판단하는데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수집단 청소년들의 경우 이들은 이미 문제행동 경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호요인이 흡연 유무 뿐만 아니라 가출이나 그 밖의 다른 문제행동을 완충 또는 감소시키는데 작용하지 않지만, 일반 청소년들의 경우는 가출과 더불어 흡연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의미있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보호요인 각각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I-68> 일반집단의 흡연 여부에 대한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

Variable	function
가족기능	-.319
부의사소통	-.503
모의사소통	-.629
사회적지지	-.076
자기효능감	-.303

표에 따르면,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에서 상대적인 중요도는 ‘모의사소통’ (-.629), ‘부의사소통’ (-.503), ‘가족기능’ (-.319), ‘자기효능감’ (-.303), ‘사회적지지’ (-.076) 순으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69> 일반집단의 흡연 여부에 대한 정준판별함수 계수의 분류결과

	Group	N	Predicted group membership	
			흡연경험 유	흡연경험 무
원래값(a)	흡연경험 유	179	87(66.4)	44(33.6)
	흡연경험 무	771	339(46.8)	385(53.2)
교차 유효값(b)	흡연경험 유	179	86(65.6)	45(34.4)
	흡연경험 무	771	341(47.1)	383(52.9)

Percent if "grouped" correctly classified : 55.2%(a), 54.9%(b)

위의 표에 의하면, 흡연경험이 있는 집단의 66.4%와 흡연경험이 없는 집단의 53.2%를 각각 정확히 판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판별적중률은 55.2%로 나타났다. 또한 교차분류 정확성은 54.9%로 나타났다.

3) 성관계 경험에 대한 보호요인들의 영향 분석

특수집단 청소년과 일반집단 청소년들의 성관계 경험 유무에 대한 보호요인들의 영향을 판별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I-70> 특수집단의 성관계 여부에 대한 정준판별함수

Eigen Value	Percentage of variance	Cumulative percentage	Canonical correlation	Wilk's Lambda	χ^2	df	p
.052	100.0	100.0	.222	.951	8.541	5	.129

위의 표에 따르면, 특수집단의 경우 보호요인 전체는 성관계 경험이 있는 집단과 성관계 경험이 없는 집단을 판별해 주는 판별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표 VI-71> 일반집단의 성관계 여부에 대한 정준판별함수

Eigen Value	Percentage of variance	Cumulative percentage	Canonical correlation	Wilk's Lambda	χ^2	df	p
.015	100.0	100.0	.122	.985	13.275	5	.021

표에 따르면, 일반집단의 경우 보호요인 전체는 성관계 경험이 있는 집단과 성관계 경험이 없는 집단을 판별해 주는 판별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또한 판별함수와 집단간의 관련정도인 정준상관계수는 $r=.122$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요인들이 성관계 여부를 판별하는데 있어서 이미 문제행동을 경험한 비행집단에게는 판별적 기능을 갖지 못하는 반면, 문제행동 경험이 없는 일반 청소년 집단의 경우에는 성관계 여부를 판단하는데 의미있는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수집단 청소년들의 경우 이들은 이미 문제행동 경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호요인이 성관계 유무 뿐만 아니라 가출이나 흡연 등 그 밖의 다른 문제행동을 완충 또는 감소시키는데 작용하지 않지만, 일반 청소년들의 경우는 다양한 문제행동 뿐만 아니라 성관련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의미있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보호요인 각각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I-72> 일반집단의 성관계 여부에 대한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

Variable	function
가족기능	-.736
부의사소통	-.448
모의사소통	-.172
사회적지지	-.346
자기효능감	-.160

위의 표에 따르면,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에서 상대적인 중요도는 '가족기능' (-.736), '부 의사소통' (-.448), '사회적 지지' (-.346), '모 의사소통' (-.172), '자기 효능감' (-.160) 순으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73> 일반집단의 성관계 여부에 대한 정준판별함수 계수의 분류결과

	Group	N	Predicted group membership	
			성관계 유	성관계 무
원래값(a)	성관계 유	179	165(54.3)	139(45.7)
	성관계 무	771	245(42.2)	335(57.8)
교차 유효값(b)	성관계 유	179	162(53.3)	142(46.7)
	성관계 무	771	250(43.1)	330(56.9)

Percent if "grouped" correctly classified : 56.6%(a), 55.7%(b)

위의 표에 의하면, 성관계 경험이 있는 집단의 54.3%와 성관계 경험이 없는 집단의 57.8%를 각각 정확히 판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판별적중률은 56.6%로 나타났다. 또한 교차분류 정확성은 55.7%로 나타났다.

5. 성관련 문제행동 사례분석- 질적 연구

1) 조사대상 청소년의 특성

성관련 문제행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실태와 접촉경로 파악을 위해 청소년 수용시설에 보호 중인 여자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VI-74>에 기술되어 있다. 조사기간은 2005년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이다.

조사문항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영역은 면접대상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사항에 관련된 문항이다. 성별, 연령, 가족관계, 보호기간, 입소경위 및 사유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영역은 면접대상 청소년의 성관련 문제행동 경험실태를 조사하는 문항으로서 성관련 문제행동을 시작하게 된 경위, 방법, 빈도, 상습화되는 이유 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셋째 영역은 성관련 문제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알아보는 문항이다. 가출, 약물, 폭력, 절도 등 성관련 문제행동 이외의 다른 문제행동 경험과 이에 따른 사법처리 경력을 비롯해 가정 및 학교 관계, 친구 및 애인 관계, 진로 고민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VI-74> 면접대상 청소년의 특성

번호	성별	연령	가정환경	가출 경위 및 경험	성관련 행동 경험	보호기간
1	여	17	부 사망후 모 재혼. 모/계부와 생활.	계부의 폭력으로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됨. 시설내 동료들의 폭력으로 무단퇴소.	14세 때 티켓다방. 29살의 남자친구와 동거.	3개월
2	여	15	부모이혼. 부와 생활. 모와 연락함.	부의 폭력.	14세 때 가출 후 채팅으로 만난 남자.	2개월
3	여	20	부모이혼. 부와 생활. 재혼한 모와 연락함.	친구들과 노는 것이 재미 있어 어울리고 무단결석 하다 자퇴서 제출.	17세 때 티켓다방. 룸싸롱.	11개월
4	여	17	부모이혼. 부와 생활. 재혼한 모와 연락함.	부를 고소한 후 재혼한 모와 생활했지만 부적응.	9세-15세까지 부모부터 성폭행. 원조교제.	10개월
5	여	14	모 가출. 부와 생활.	부의 알콜중독과 폭력.	13세 때 채팅으로 만난 남자.	9개월
6	여	13	부모별거. 모와 생활	부의 의치증으로 가정폭력.	12세 때 채팅으로 만난 남자.	8개월
7	여	19	부모와 생활.	친구들과 노는 것이 좋아서.	16세 때 티켓다방. 단란주점.	8개월
8	여	16	부모별거. 부모 모두 연락두절.	부모 양친의 무관심과 방임.	14세 때 가출 후 채팅으로 만난 남자.	6개월
9	여	17	부모와 생활. 가족 모두 삼촌집에 기거.	부의 알콜중독. 모의 생계부양과 방임.	15세 때 채팅으로 만난 남자.	6개월
10	여	13	부모이혼. 부는 정신병원 입원. 조모와 생활.	해체가정의 방임.	12세 때 옆집 할아버지로부터 성폭행 당함.	6개월

2) 결과 분석

심층면접의 결과, 성관련 문제행동의 원인과 경로 및 사후 대책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 10명은 모두 성관련 문제행동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6.1세이며, 이들이 성관련 문제행동을 최초로 경험한 평균 연령은 13.6세이다. 이들 가운데 8명의 여자청소년들은 결손가정 혹은 재혼가정 출신이며, 가출 및 성관련 행동의 접촉

경위는 가정폭력, 무관심과 방임, 성폭력, 또래친구들과의 교제, 재혼가정 부적응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 청소년이 성관련 문제행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경위를 분석하였다. 직접적인 동기로는 가출 이후 숙박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유흥비 마련, 친구의 유혹, 고용업주의 빚 독촉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와 같이 성관련 문제행동을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성관련 문제행동에 이르게 된 경로는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

성관련 문제행동 경험을 가지고 있는 10명의 여자청소년 가운데 8명은 해체가정과 재혼가정 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혹은 부모의 무관심과 방임으로 인해 갈등을 겪다가 결국 가출하게 되었고, 가출한 이후에는 생계유지를 위해 단순히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성관련 문제행동에 연루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조사대상 가운데 2명은 친부와 이웃할 아버지로부터 각각 성폭행을 당한 후 사법처리를 하는 과정 중에 가출하여 자포자기 심정으로 성매매에 빠져들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조사대상 청소년의 경우 또래친구와 어울려 놀고 싶은 욕구가 강하여 자발적으로 가출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정 내 역기능 상태가 이들 청소년들을 가정 밖으로 밀어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출 남자청소년의 경우와 달리, 가출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출 이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성매매 유혹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조사대상 청소년의 일부는 채팅을 통한 원조교제를 하였지만, 몇몇 청소년은 티켓다방, 단란주점, 룸싸롱 등에 고용되어 본의 아니게 고용업주에게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고 이를 탕감하기 위해 성매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이들의 요구를 분석해 보면, 무엇보다 정상적인 학교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고, 예전과 같이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이들이 가출 이후 사회의 유해요인으로부터 많은 스트레스와 압력을 받아 왔음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며, 사회적 지원 대

책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정에서의 욕구불만과 무관심,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문제행동에 접근했지만 일부는 유흥업소 등에서 폭력과 인신매매 등 신변상의 위협에 처하면서 성인 사회의 비정함을 몸소 체험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가정과 학교로 복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가정은 해체되어 있고, 학교에서는 자신들이 소외의 대상일 뿐이라는 인식 때문에 절망 상태에 놓여 있는 듯 하다. 따라서 이들이 한 인간으로서 인권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재적응해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방책은 사회의 지원대책 뿐이다. 직업교육과 더불어 자활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소외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상담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VII.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 제언

VII.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요약 및 결론

1) 연구과정 요약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때, 청소년 유해행위는 일부 성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성적인 접대행위나 접객행위, 음란행위, 학대행위, 다류 배달행위 등을 하게 하거나 이들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은 법적 해석에 근거할 때, 청소년 유해행위는 가출 청소년이나 가정 및 학교에서 소외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리고 성인들의 유해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년 문제 행동은 대부분 성적접대 및 접객행위와 음란행위, 혼숙행위, 빠끼행위, 티켓다방 등에서의 배달행위 및 성매매 행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성인들이 그들의 영업적 이익과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을 이용하고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청소년들은 다양한 형태의 성 위험행동에 노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성매매나 성폭력, 부적절한 임신, 성병 등의 성 관련문제행동을 야기시키며, 이는 또한 사회적 문제행동과 더불어 반영구적인 정신적 장애를 초래한다(한상철, 김혜원, 설인자, 임영식, 조아미, 2003).

성인들에 의한 청소년 유해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청소년정책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목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연구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과 개선책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청소년 유해행위가 청소년들의 행위가 아니라 성인들의 행위이고, 이 또한 음성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이러한 행동의 정확한 실태를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인들의 유해행위로 인해 파생되는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즉, 성관련 행동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들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행위로 인해 파생되는 청소년 성관련 문제행동에 초점을 두고, 이에 영향을 주는 성인 사회의 유해요인을 확인함과 동시에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보호요인의 역할과 영향력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성인들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행위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한 법적 정의와 더불어 유해행위와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함으로써 성인들에 의한 청소년 유해행위가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선행 연구들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성인들의 유해행위로 인한 피해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을 임의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성관련 행동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성관련 위험행동의 정도를 확인하며, 또한 보호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 특정집단의 소수 청소년들에 대해 자유면접을 실시하여 이들의 유해행위 접촉 경위와 문제행동 이후 상황과 요구사항 등을 점검하고자 한다. 넷째,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청소년 유해행위 관련 개선책으로 성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종합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론적 배경에서는 청소년 유해행위의 법적 개념을 해석하고,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한편, 성관련 문제행동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론에 기초하여 개인과 가정, 학교, 또래, 사회 등에 산재해 있는 성 행동의 위험요인들(risk factors)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성 문제행동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성폭력과 성매매에 대해 그 의미와 함께 주요 사례들을 제시하고,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성관련 문제행동의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써 보호요인들(protective factors)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보호요인 강화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성관련 행동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처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 중요한 성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실증적 연구로써 설문조사와 자유면접을 수행하였는데, 그 절차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실업계 여자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전체 1,020명과 특수집단으로서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에 수용 중인 청소년 전체 216명이다. 이들은 성인들의 유해행위로 인한 성관련 문제행동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연구자들이 예상한 집단이며, 임의 선정 방식으로 표집되었다.

실업계 여자고등학생들은 대구지역 5개의 구에서 1개교씩 전체 5개 학교에서 선정된 학생들이며, 학교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연구자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소년원 150명과 보호관찰소 수용 청소년 66명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협조를 통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남자 청소년이었으며 소수의 여자 청소년들은 자료처리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설문지 클리닝 작업을 통해 최종 자료처리 된 대상은 실업계 여자고등학생(일반집단으로 처리) 950명과 특수집단 179명(소년원 130명, 보호관찰소 49명)으로서 총 1,129명이다.

한편 사례연구(질적 분석)를 위해 대구지역 가톨릭직업기술원에 협조를 요청하여 10명의 사례를 확보하였다. 이들에 대해 전문 상담요원(공동연구자)이 자유면접의 형태로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응답은 자유기술식으로 기록되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크게 4가지 측정 영역의 8개 척도이다. 4가지 측정 영역은 피험자의 생활현황과 문제행동, 성관련 위험요인, 성관련위험행동, 보호요인이다. 먼저, 생활현황과 문제행동 척도는 피험자들의 일상생활 수준과 생활만족도 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6개)과 일반적인 문제행동(가출, 흡연, 음란물 접촉, 유흥업소 출입, 성관계 등)을 묻는 문항(14개)으로써, 모두 선다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관련 위험요인 및 성행동 척도는 성관련 행동에 접촉하게 되는 경위와 원인, 성 경험 및 현황, 학교에서의 성교육, 성매매의 원인 등을 묻는 것으로 전체 31개의 선다형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성관련 위험행동 척도는 기존의

위험행동척도(Arnet, 1998; Gullone et al., 2001; 한상철, 2003)에 기초하여 이를 성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문항 내용을 수정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전체 21개 문항의 5점 평정척으로 되어 있으며,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성관련 위험행동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보호요인 척도는 전체 5개의 하위 척도가 포함되며, 전체 문항은 5점 평정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가족기능 척도(20개 문항), 부와 모 각각과 자녀와의 의사소통 척도(각 20 문항), 사회적 지지 척도(15개 문항), 자기 효능감 척도(31개 문항)이며, 이들 각 척도는 독립적으로 처리된다.

2)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1) 피험자 특성과 문제행동 경향성 분석

① 가정에서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특수집단과 일반집단 모두 '친부모 두 분'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 이러한 반응이 특수집단은 36.9%로 나타난 반면, 일반집단은 70.4%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수집단은 '아버지와 새어머니' (17.9%), '아버지하고만' (17.3%)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이 일반집단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따라서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된 특수집단 청소년의 경우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보다 가정의 구조적인 경향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가정의 구조적 결함이 이들의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가정의 구조적 결함은 비행 성향과 관계가 있다.

② 부모님(보호자)의 본인에 대한 관심 정도를 확인해 본 결과, 특수집단은 '관심이 높다' (61.5%)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 일반집단은 '보통 수준이다' (51.3%)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수집단의 경우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거나 보호관찰 대상으로 지속적인 감시 보호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보호자가 관심을 더 많이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해석된다.

③ 자신의 생활수준을 판단해 보도록 했을 때,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으며 전체적으로 ‘중’ 이 5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하’ 가 27%를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조사 대상 청소년들의 생활수준은 낮은 편이며, 중상류층은 전체의 약 12%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집단이라 하더라도 실업계 여자고등학생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예상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④ 현재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특수집단은 ‘매우만족’ 과 ‘만족’ 이라는 응답이 49.2%로 나타난 반면, 일반집단은 35.3%로 나타났다. 일반집단에 비해 특수집단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의 수용 청소년의 경우 가정에 대한 그리움과 수용 이후 부모님의 의도적인 관심이 높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이라고 추측된다. 한편 실업계 여자고등학생들의 경우 생활수준이 낮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가정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⑤ 부모와의 대화시간은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그러나 특수집단의 19.6%가 대화시간이 ‘거의 없다’ 고 응답함으로써 부모님과의 의사소통이 일반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더 부족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과의 대화 시간이 하루에 10분 이상이라는 응답이 전체 피험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높은 비율이며, 전반적으로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피험자들이 부모님 또는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잔소리나 지시, 요구사항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모두 대화에 포함시킨 결과라고 보여 진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재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⑥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해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특수집단은 ‘매우만족’ 과 ‘만족’ 이라는 응답이 26.9%로 나타난 반면, 일반집단은 24.4%로 나타나 일반집단에 비해 특수집단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다소 더 높은 것은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특수집단의 경우 현재 대부분 학교를 중단한 상태이기 학교생활에 대한 동경심이나 그리움이 만족도 반응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생각되며, 상대적으로 실업계 고등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3학년들이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불안 등이 작용하여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족 반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⑦ 가출경험은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특수집단은 '있다' 라는 응답이 78.8%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집단은 18.8%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의 대상 청소년의 경우 비행 개입의 주요 경로가 가출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가출의 원인과 경로는 다양하겠지만, 가출 이후 성인 사회의 유해환경에 접촉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성관련 문제행동과 폭력, 절도 등의 비행에 개입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가출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성인들의 유해행위 즉, 영업적 이익을 위해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유해행위로부터의 피해가 성관련 문제행동을 비롯한 청소년 비행의 주요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⑧ 흡연여부에 대해 특수집단은 '있다' 라는 응답이 52.5%로 나타난 반면, 일반집단은 13.8%로 나타났다. 특수집단 청소년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흡연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가출과 더불어 흡연 역시 청소년비행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다. 가출 후 대부분은 유해환경에 접하게 되고, 이러한 유해업소 및 성인들의 유해행위 상태에서 흡연과 음주는 어쩌면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청소년들의 흡연은 그 자체가 다양한 원인을 지니고 있고 위험행동으로 그칠 수도 있지만, 비행 청소년의 경우 흡연은 비행의 중요한 요인이거나 비행 후 또 다른 비행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⑨ 이성친구(사귀는 사람) 유무에 대해 특수집단은 '있다' 라는 응답이 46.4%로 나타난 반면, 일반집단은 29.2%로 나타나 특수집단이 의미있게 더 높다. 따라서 이성친구는 특수집단 청소년들의 일탈행동과 관련성이 있다고 추측되지만, 양 변인간의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 청소년기에 가출이나 흡연 등의 경험은 유해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성친구 역시 건전한 이성관계라기보다 성욕구나 공격성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⑩ 인터넷이나 잡지 등을 통해 음란물을 관람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특수집단의 경우 78.8%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집단은 51.8%의 반응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음란물 관람은 청소년 비행과 의미있는 관련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음란물이 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음란물 관람은 성인 사회가 조장한 유해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이루어지며, 그것이 청소년들의 성관련 문제행동의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⑪ 모르는 사람과 인터넷 채팅을 해 본 경험은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전체적으로 약 78%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집단의 대부분이 고등학교 여학생들이므로 이들이 익명의 사람들과 인터넷 채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성관련 문제행동 개입 가능성을 높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특수집단의 경우 과거 인터넷 채팅을 통해 그들이 다양한 비행 요인을 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⑫ 아르바이트나 부업 중에 어른들로부터 착취나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험을 알아 본 결과, 특수집단의 16.2%가 '있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일반집단은 9.5%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어른들로부터 착취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어른들의 유해행위를 직접 경험했다는 것으로, 이러한 유해행위가 특수집단 청소년들에게 의미있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성인들의 유해행위가 청소년 비행에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10.5%의 청소년들이 과거 어른들로부터 착취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어른들의 유해행위가 비교적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⑬ 유흥업소 출입경험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특수집단의 69.3%가 출입경험이 '있다'고 한 반면 일반집단은 29.6%가 동일한 반응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흥업소 출입이 청소년 비행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것이며, 이러한 업소에서 청소년에 대한 어른들의 유해행위가 문제행동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⑭ 학교에서 싸워 본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있다’라는 응답이 특수집단은 78.8%, 일반집단은 42.8%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특수집단의 모두가 남학생이고, 일반집단은 여학생이기 때문에 싸움행동의 남녀간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소한 싸움이 폭력과 문제행동의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연구설계를 통해 더욱 신뢰로운 결과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추측컨대 비행 청소년들의 많은 비율이 폭행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교에서의 싸움과 폭력은 그들의 현재 지위상실을 결정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일반집단의 대부분이 여자 청소년들인데, 이들의 학교 내 싸움이 42.8%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여학생들의 폭력 발생빈도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⑮ 부모님을 속인 경험에 대해 특수집단은 ‘있다’라는 응답이 86.6%, 일반집단은 71.4%로 나타났으며, 양 집단 모두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부모님을 속인다는 것은 청소년 위험행동의 한 요인으로써 문제행동 발생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볼 수 있다.

⑯ 휴일에 시내를 배회한 경험에 대해 ‘있다’라는 응답이 특수집단은 27.4%, 일반집단은 14.7%로 나타났다. 휴일에 시내를 배회한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권태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권태가 가출이나 문제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⑰ 특별한 이유 없이 어린 후배나 동료들을 골탕먹인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은 청소년들의 금품갈취나 집단괴롭힘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그 반응은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있다’라는 응답이 특수집단은 37.4%, 일반집단은 8.7%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수집단의 경우 골목이나 학교 주변, 유흥업소 등지에서 후배나 또래들을 대상으로 금품갈취나 폭행, 괴롭힘 등을 더 많이 행사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이 문제행동으로 연결되는 고리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⑱ 부모님 몰래 용돈을 훔쳐 본 적이 경험에 대해, 훔친 경험이 ‘있다’

라는 응답이 특수집단은 68.7%, 일반집단은 40.3%로 나타났다. 용돈을 흠친다는 것은 청소년기의 위험행동에 속하겠지만, 용돈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문제행동으로 비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⑨ 이성친구와의 키스나 포옹 등과 같은 성관계 유무에 대해 ‘있다’라는 응답이 특수집단은 73.7%, 일반집단은 32.0%로 나타났다. 특수집단의 경우 사귀는 이성친구가 특수집단보다 2배 이상 더 많으며, 이성과의 성관계 경험 역시 2배 이상 더 많다. 따라서 이들의 이성관계는 건전한 대인관계 차원으로 해석되기보다 성욕구의 해결이나 유흥의 수단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다.

⑩ 무단결석 유무에 대해 ‘있다’라는 응답이 특수집단은 82.1%, 일반집단은 23.2%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특수집단의 문제행동 개입은 대부분 가정과 학교에서의 이탈과 가출, 흡연, 또래나 후배들에 대한 금품갈취와 폭력, 용돈 흠침, 시내배회, 이성친구 만남, 유흥업소 출입, 업주들의 착취와 부당대우에 희생, 성관계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결국 이들 요인들이 청소년 문제행동의 위험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청소년 성관련 위험요인과 성행동 분석

① 성충동을 가장 많이 느낀 매체를 조사한 결과, 특수집단은 ‘성인용 비디오’라는 응답이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반집단은 ‘TV 영화’라는 응답이 5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비행을 경험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성충동 또는 폭력충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매체는 성인용 비디오와 TV영화, 그리고 성인용 만화 등이며, 이들이 청소년 성관련 문제행동의 주요 위험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매체 이용에 대한 생각을 질문한 결과, 특수집단과 일반집단 청소년 모두 ‘한두 번 정도는 괜찮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특수집단의 경우 ‘자주만 아니면 계속 이용해도 된다’ (17.3%)와 ‘하고

싶을 때 언제나 해도 괜찮다' (16.2%)라는 응답이 일반집단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에 수감 또는 보호대상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보다 유해매체에 대해 더 허용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행 청소년들의 성인용 매체이용에 대한 생각 역시 성관련 행동의 위험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③ 성인용 매체의 내용을 잘 아는 것이 친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두 집단 모두 성인용 매체를 잘 아는 것과 친구관계는 '별로 상관없다' 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특수 80.4%, 일반 83.5%). 그러나 전체적으로 약 17%의 청소년들은 성인용 매체를 잘 알면 인기를 얻을 수 있다거나, 잘 모르면 대화가 통하지 않고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등의 반응을 보임으로써 성인용 매체가 친구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

④ 음란 광고물에 대한 느낌에 대해 조사한 결과, 특수집단과 일반집단 모두 '아무런 느낌도 없다' 라는 응답이 가장 많지만, 특수집단(66.5%)이 일반집단(58.5%)보다 더 높다. 그리고 특수집단의 경우 '성적 충동이 생긴다' (10.6%), '실제 전화를 해 보고 싶다' (9.5%)란 반응이 일반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 한편, 일반집단은 '혐오감과 수치심이 생긴다' 는 응답이 19.4%인 반면 특수집단은 1.1%에 불과함으로써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흥가 뿐만 아니라 학교주변까지 나돌고 있는 음란 전단지에 대해 많은 청소년들이 무감각한 반응을 보일 만큼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특수집단 청소년들의 경우 성적 충동을 느끼거나 실제 전화를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다는 것은 이러한 매체가 청소년 성관련 문제행동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⑤ 밤 10시 이후 TV에서 19세 미만 청소년 시청불가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난 후의 느낌을 조사한 결과, '아무런 느낌이 없다' 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특수집단의 경우 48.6%인 반면, 일반집단은 58.0%로 나타났다. 한편, 특수집단은 '강한 호기심이 생긴다' (33.0%), '모방해 보고 싶다' (7.3%)의 응답이 일반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으며, 일반집단은 '혐오감과 수치심이 생긴다' 의 반응이 12.4%로 특수집단보다 더 높다.

⑥ 채팅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약 7%를 제외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채팅을 한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수집단은 이성친구와의 채팅이 45.3%로 일반집단 19.3%보다 훨씬 더 높으며, 일반집단은 동성친구가 53.1%로서 특수집단 33.0%보다 훨씬 더 높다. 비행경험이 있는 특수집단 청소년들의 경우 주로 이성친구와 채팅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밖에 일반집단과 차이가 없지만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나 ‘전혀 모르는 사람’ 과 채팅을 하는 청소년도 전체 약 18.5%에 이른다. 인터넷 채팅이 성매매나 원조교제 등의 성관련 문제행동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청소년들의 절반가량은 동성친구와 채팅을 하지만 나머지 약 40% 정도는 이성친구나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 모르는 사람 등과 채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이 실업계 여자 고등학생이라는 점에서 여학생들의 성 문제행동이 채팅을 통해 시작되거나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⑦ 채팅 시 이야기 주제에 대한 응답은 두 집단 모두 ‘주제 없이 그냥 재미 삼아 한다’ 라는 반응이 전체 72.7%로 가장 높고, ‘취미 분야의 정보교류를 위해’ 가 12.2%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특수집단의 3.9%와 일반집단의 2.9%의 청소년들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채팅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채팅을 통해 건전한 대화를 나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 채팅이 성관련 문제행동의 주요 통로임을 재확인시켜 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⑧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채팅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세이클럽’ 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지만, 특수집단은 65.4%로 나타난 반면, 일반집단은 86.1%로 나타나 일반집단의 응답비율이 더 높다. 그리고 특수집단의 경우 ‘기타’ 와 ‘메신저’ 사이트 이용이 일반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

⑨ 화상채팅 경험에 대해 두 집단 모두 ‘화상채팅 경험 없다’ 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 이러한 반응은 특수집단(55.9%)보다 일반집단(77.0%)에게 더 높았다. 그러나 특수집단의 경우 화상채팅 경험에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19.0%),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17.3%), ‘얼굴

의 특정 신체부위를 서로 보면서' (3.4%) 대화한 경험이 일반집단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화상채팅을 통해 변칙적인 방법의 채팅과 일탈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는데, 특수집단 청소년들에게 이와 같은 경험이 더 많다는 것은 이러한 방식의 채팅이 문제행동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⑩ 채팅 후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두 집단 모두 '없다' 라는 응답이 가장 높지만, 이런 반응은 일반집단 (72.4%)이 특수집단(48.6%)보다 훨씬 더 높다. 따라서 특수집단의 경우 상대방을 실제로 만난 경험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같은 또래의 이성' (41.9%)과 '이성의 성인' (2.9%)을 만난 경험이 일반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다. 그러므로 채팅이 이성 친구와의 만남과 성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성관련 행동을 시작하게 하는 주요 매체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⑪ 음란, 폭력, 엽기 사이트 접속 장소에 대한 응답은 두 집단 모두 '자신의 집' 에서 접속한 경험이 가장 많지만, '접속 경험이 없다' 는 응답은 일반집단에서 38.3%로 특수집단 14.5%보다 더 높다. 특수집단의 경우 이러한 사이트를 '자신의 집' 이외에 '친구나 선후배 집' (23.5%), 'PC방' (16.8%)에서 접속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⑫ 음란, 폭력, 엽기 사이트를 언제 처음 접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특수집단과 일반집단 모두 '중학교 1학년' 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특수집단의 경우 '초등학교 4-6학년' 과 '중학교 1학년' 비율이 일반집단보다 더 높다. 따라서 음란, 폭력, 엽기 사이트 접속 시기가 사춘기 초기에 시작될수록 비행이나 일탈행동 경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⑬ 인터넷 음란 사이트 접속 경로에 대해 특수집단은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 라는 응답이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집단은 '접속한 적 없다' 라는 응답이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수집단의 경우 '일부러 음란사이트를 찾아서' 라는 응답이 17.3%이며, 이는 일반집단

8.9%에 비해 2배 가까이 더 높다. 따라서 비행이나 일탈 경험이 있는 특수집단은 음란, 폭력, 엽기 사이트를 이용하는 비율도 높고, 자신의 집 뿐만 아니라 선후배 집이나 PC방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비율도 높으며, 대체로 사춘기 시기(초등 4~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에 최초로 접촉하는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⑭ 유흥업소 출입 시 업주들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대해 특수집단은 ‘대부분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켰다’라는 응답이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집단은 ‘이용해 보지 않아서 모른다’라는 응답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이용해 보지 않았다고 응답한 39.0%의 청소년을 제외한 나머지 약 60%는 어떤 형태로든 미성년자로서 유흥업소를 출입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 가운데 9.4%만이 출입시 업주들로부터 연령 확인과 출입 제제를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유흥업소 출입은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업주들의 제제는 매우 형식적임을 알 수 있다. 업주들의 이러한 영업 형태는 청소년 문제행동의 주요 위험요인이며, 청소년들의 성장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⑮ 유흥업소 출입을 주로 누구와 함께 하는가를 조사해 본 결과, 특수집단은 ‘친구들과 함께’라는 응답이 59.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집단은 ‘가본 적 없음’이라는 응답이 5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행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친구들의 권유나 선배들의 유혹 등으로 인해 유흥업소 출입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친구관계는 친구의 양보다 친구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⑯ 키스나 포옹 등의 성 접촉 경위에 대해 특수집단은 ‘내 자신의 성 충동 및 호기심으로’라는 응답이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집단은 ‘해당 없음’이라는 응답이 6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특수집단의 경우 ‘술이 취해서’(21.2%)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들의 음주 욕구가 성 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⑰ 유흥업소나 일터에서 아르바이트(부업)를 하는 중 동료나 업주로부터 성추행이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가를 조사하였는데, 이 질문은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이다. 그 결과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특수집단은 ‘있다’ 는 비율이 6.1%인 반면, 일반 집단은 2.4%이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해당 없음’ 과 ‘없다’ 는 반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 결과만으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도 법적인 청소년유해행위의 실태와 개선책에 대한 연구의 한계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성인들의 유해행위 실태를 확인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유해행위 유형과 정도, 청소년들의 피해상태와 경로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행위와 피해 사례는 얼핏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으며, 또한 그들이 노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⑱ 콘돔과 같은 피임기구 사용에 대한 생각을 질문한 결과, 특수집단은 ‘귀찮아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응답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집단은 ‘피임기구를 반드시 사용할 것이다’ 라는 응답이 6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비행경험이 있는 특수집단의 경우 성에 대한 의식과 피임기구에 대한 생각 또한 그들의 문제행동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⑲ 성에 대한 지식의 습득경로를 묻는 질문에 대해 특수집단은 ‘친구’ 라는 응답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집단은 31.9%가 동일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일반집단 청소년의 경우 ‘학교 성교육’ 을 통해서가 24.1%로 특수집단 13%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의 수용 청소년들은 성에 대한 지식을 인터넷이나 친구 등을 통해 많이 습득하고 있지만, 일반 청소년들은 친구와 인터넷, 그리고 성교육 등이 주요 매개체임을 알 수 있다.

⑳ 성 교육 받은 횟수에 대해 전체적으로 ‘3-4회’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지만, 일반집단의 경우 5회 이상이 전체적으로 약 32%에 이르고 있는

반면 특수집단은 약 21%에 그침으로써 성 교육 경험 횟수에 있어서 일반 집단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교육 횟수는 성관련 문제행동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②1 성교육을 받은 최초의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두 집단 모두 ‘초등학교’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학교 시기이다. 유치원에서 성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전체 2.8%에 그침으로서 조기 성교육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교육은 청소년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년기 동안에도 지속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성교육 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②2 학교 성교육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배운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33.5%), 특수집단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재미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일반집단은 ‘윤리 도덕적인 내용으로 흥미가 없다’에 응답비율이 더 높다. 그러므로 전체 약 48%의 청소년들은 성교육이 이미 알고 있거나 도덕적인 내용이어서 재미가 없다는 반응을 하였다. 성교육이 흥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청소년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내용과 방법으로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②3 성 접촉 경험에 대해 특수집단은 ‘이성친구와 성관계’라는 응답이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집단은 ‘아무런 경험 없다’라는 응답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소수응답이지만, 동성연애 경험(3.1%)과 성매매(1.0%), 성폭력 피해(2.8%), 성폭력가해(0.9%) 등도 확인되고 있다. 특수집단 청소년의 경우 특히 성폭력(강간)을 행한 경우가 2.8%에 이르고, 일반 청소년의 2.9%가 성 피해 경험자라는 것과 전체적으로 원조교제 등의 성 매매도 전체 피험자 가운데 11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청소년의 성행동이 단순히 그들의 자율적인 의지와 선택에 따른 것이라면 위험행동에 속하겠지만, 그것이 성인들의 유해행위에 근거한 것이라면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문제행동으로 해석된다.

②④ 성관계 경험 대상에 대해 특수집단은 ‘이성친구’ 라는 응답이 45.4%로 나타난 반면, 일반집단의 경우 11.7%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 청소년들의 경우 ‘성관계 경험 없음’ 이 전체의 77.2%에 이르고 있음으로써 양 집단간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 한편, 특수집단과 일반집단의 1% 가량은 ‘성매수자’ 가 첫 성관계 경험 대상으로 나타났으며, 특수집단의 2.9%는 ‘우연히 만난사람’ 과 첫 성관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②⑤ 임신 경험 여부에 대해 알아 본 결과, ‘있다’ 라는 응답이 특수집단의 경우 16.9%, 일반집단의 경우 3.6%로 나타났다. 특히 특수집단의 반응은 상대방을 임신시킨 것을 나타내는데, 이 결과로 볼 때 청소년 임신의 후유증과 파장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생각된다.

②⑥ 성매매(원조교제) 제안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 라는 응답이 특수집단은 5.6%, 일반집단은 10.8%로 나타나 특수집단에 비해 일반집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집단의 경우 대다수가 실업계 여고생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며, 여자 청소년들의 성매매와 원조교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②⑦ 성매매(원조교제) 제안을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받게 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기타’ 라는 응답을 제외할 때 특수집단과 일반집단 모두 ‘채팅’ 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채팅을 통한 제안의 경우 일반 집단이 16.1%로 특수집단 9.0%보다 더 높으며, 특수집단은 부킹 5.1%, 전화방 3.9%, 친구나 선배 소개 3.4%, 유흥업소 소개 2.2% 등으로 일반집단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으로써, 다양한 경로에서 제안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청소년들은 성매매가 채팅이 주요 경로라고 한다면, 특수집단 청소년의 경우 채팅과 더불어 부킹, 전화방, 친구나 선배 소개, 유흥업소 등의 다양한 경로에 따라 원조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⑧ 친구가 성매매 제의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는지를 질문한 결과, 특수집단의 63.6%와 일반집단의 81.7%가 ‘만나지 못하도록 한다’ 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지만 일반집단의 비율이 더 높으며, 특수집단의 경우

‘상관 않겠다’ 10.8%, ‘대가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다’ 8.0%, ‘나도 같이 연결 원함’ 6.3% 등의 다양한 응답도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또래 친구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으며, 특히 성관련 행동의 경우 절대적인 영향 요인임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결과는 비행 친구와의 관계가 성관련 문제행동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㉔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발생의 가장 직접적인 동기는 무엇라는 질문에 대해 일반집단의 경우 ‘사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해서’가 55.6%인 반면 특수집단은 42.0%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수집단은 ‘성에 대한 호기심 및 욕구’와 ‘친구의 권유’의 비율이 일반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 따라서 성매매를 할 경우 대부분의 청소년은 원하는 물건과 옷 등을 사고 싶어서가 가장 많지만, 특히 특수집단의 경우 친구의 권유와 성에 대한 욕구도 성매매의 발생 동기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㉕ 우리 사회에 청소년 성매매가 만연하게 된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특수집단은 ‘인터넷 등 음란성 유해매체가 널려 있어서’ (35.4%)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집단은 ‘성인들의 건전한 도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30.2%)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해매체 역시 우리 사회 성인들의 왜곡된 가치관과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성인들의 부도덕성이 가장 심각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성인들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행위가 청소년 성매매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㉖ 성매매 하는 청소년들의 지도 방안과 관련하여 특수집단과 일반집단 모두 ‘학교나 가정에서 지도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청소년 성관련 문제행동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성행동의 경향성을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성인용 비디오와 성인용 만화, 모르는 사람과의 채팅, 채팅 시 성에 대한 이야기, 채팅 후 실제 만남, 음란 사이트 접속, 피임기구에 대한 의식 부족, 성 지식 습득경로의 불건전성, 성교육 부재, 임신, 일탈 친구와의 관계 등이 청소년 성 문제행동의 주요 위험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행 경험이 있는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청소년

들의 경우 성 의식이 부족하고, 성에 대한 충동성과 호기심이 더 높으며, 성관계 경험과 상대방 임신 등의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성관련 위험행동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성관련 문제행동은 성 위험행동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위험행동의 부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위험행동이 곧바로 문제행동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보호요인의 중재에 의해 적응유연성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관련 위험행동의 경우 그것이 특히 열악한 환경과 능력을 지닌 청소년들과 관련되어 질 때, 문제행동을 가장 많이 예언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측정을 통한 수량화가 어려운 성관련 문제행동을 성 위험행동으로 대체하여, 이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① 가출경험 유무와 집단(특수, 일반)을 투입변인으로 하여 성관련 위험행동(21개 문항의 5점 평정척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특수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 성관련 위험행동 수준이 유의미하게 더 높으며, 가출경험이 있는 집단이 가출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위험행동 득점이 의미있게 더 높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성 관련 위험행동 즉, 문제행동은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등의 특수집단 청소년과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의미있게 더 높으며, 이것은 사회 규범의 이탈경험과 가출 경험이 성 문제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② 흡연경험 유무와 성관련 위험행동과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일반집단에 비해 특수집단인 경우 성관련 위험행동 수준이 의미있게 더 높고, 흡연경험이 있는 집단이 흡연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위험행동 득점이 더 높다. 그리고 위험행동의 평균값에 근거하여 집단과 흡연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해 보면, 특수집단이 일반집단보다 전체적으로 위험행동 득점이 더 높지만, 흡연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집단차보다 흡연경험이 없거나 흡연 여부를 잘 모르겠다는 청소년들의 집단차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흡연경험 유무보다 비행 경험이 성관련 위험행동에 더 많은 영

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③ 이성친구 유무가 성관련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특수집단은 일반집단에 비해 성관련 위험행동 수준이 유의미하게 더 높으며, 이성친구가 있는 청소년들이 이성친구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보다 위험행동 득점이 의미있게 더 높다. 따라서 성관련 위험행동 즉, 성 문제행동은 비행경험과 더불어 이성 친구와 사귀 경험의 영향을 받는다.

④ 유흥업소 출입 유무가 성관련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반집단에 비해 특수집단인 경우 성관련 위험행동 수준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흥업소 출입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출입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성관련 위험행동 득점이 의미있게 더 높다. 따라서 유흥업소 출입경험은 성관련 위험행동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

⑤ 청소년기의 키스나 포옹 등 성관계 경험이 성관련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반집단에 비해 특수집단의 경우 성관련 위험행동 수준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관계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에 위험행동 득점이 유의미하게 더 높다. 따라서 성관련 위험행동은 성관계 경험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4) 보호요인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여기서는 성관련 보호요인으로 가정한 5개 요인(가족기능, 부와 모 각각의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이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완충적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특수집단 피험자(소년원, 보호관찰소)와 일반집단 피험자(실업계 고등학교)별로 보호요인 전체가 가출, 흡연, 이성친구, 유흥업소 출입, 성관계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판별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① 청소년들의 가출여부에 대한 보호요인의 영향을 판별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특수집단의 경우 보호요인 전체는 가출경험이 있는 집단과 가출경험이 없는 집단을 판별해 주는 판별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한편, 일반집단의 경우 보호요인은 가출 경험이 있는 집단과 가출 경험이 없는 집단을

판별해 주는 판별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요인들이 가출여부를 판별하는데 있어서 이미 문제행동을 경험한 비행집단에게는 판별적 기능을 갖지 못하는 반면, 문제행동 경험이 없는 일반 청소년 집단의 경우에는 가출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수집단 청소년들의 경우 이들에게 보호요인이 작용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비행에 개입하였고 보호요인의 부재는 가출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문제행동을 야기시켰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반집단 청소년들은 보호요인의 작용이 가출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호요인 각각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확인해 본 결과, ‘모 의사소통’ (-.878), ‘가족기능’ (-.320), ‘자기효능감’ (-.185), ‘부 의사소통’ (-.169), ‘사회적지지’ (-.155) 순으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 청소년들의 가출 행동을 중재하고 감소시키는데 작용하는 보호요인으로서는 모의 의사소통, 가족의 긍정적 기능, 자기 효능감, 부와의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의 순으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② 흡연 유무에 대한 보호요인들의 영향 분석한 결과, 특수집단의 경우 보호요인 전체는 흡연 경험이 있는 집단과 흡연 경험이 없는 집단을 판별해 주는 판별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한편 일반집단의 경우 보호요인 전체는 흡연 경험이 있는 집단과 흡연경험이 없는 집단을 판별해 주는 판별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요인들이 흡연여부를 판별하는데 있어서 이미 문제행동을 경험한 비행집단에게는 판별적 기능을 갖지 못하는 반면, 문제행동 경험이 없는 일반 청소년 집단의 경우에는 흡연 여부를 판단하는데 의미있는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수집단 청소년들의 경우 이들은 이미 문제행동 경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호요인이 흡연 유무 뿐만 아니라 가출이나 그 밖의 다른 문제행동을 완충 또는 감소시키는데 작용하지 않지만, 일반 청소년들의 경우는 가출과 더불어 흡연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의미있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보호요인 각각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확인한 결과,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에서 상대적인 중요도는 ‘모 의사소통’ (-.629), ‘부 의사소통’ (-.503),

‘가족기능’ (-.319), ‘자기효능감’ (-.303), ‘사회적지지’ (-.076) 순으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성관계 경험에 대한 보호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특수집단의 경우 보호요인 전체는 성관계 경험이 있는 집단과 성관계 경험이 없는 집단을 판별해 주는 판별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한편, 일반집단의 경우 보호요인 전체는 성관계 경험이 있는 집단과 성관계 경험이 없는 집단을 판별해 주는 판별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요인들이 성관계 여부를 판별하는데 있어서 이미 문제행동을 경험한 비행집단에게는 판별적 기능을 갖지 못하는 반면, 문제행동 경험이 없는 일반 청소년 집단의 경우에는 성관계 여부를 판단하는데 의미있는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수집단 청소년들의 경우 이들은 이미 문제행동 경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호요인이 성관계 유무 뿐만 아니라 가출이나 흡연 등 그 밖의 다른 문제행동을 완충 또는 감소시키는데 작용하지 않지만, 일반 청소년들의 경우는 다양한 문제행동 뿐만 아니라 성관련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의미있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보호요인 각각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를 산출한 결과, 상대적인 중요도는 ‘가족기능’ (-.736), ‘부 의사소통’ (-.448), ‘사회적 지지’ (-.346), ‘모 의사소통’ (-.172), ‘자기 효능감’ (-.160) 순으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성관련 문제행동 사례분석 결과

성관련 문제행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접촉경로 파악을 위해 청소년 수용시설에 보호 중인 여자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자유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의 결과, 성관련 문제행동의 원인과 경로 및 사후 대책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 10명은 모두 성관련 문제행동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6.1세이며, 이들이 성관련 문제행

동을 최초로 경험한 평균 연령은 13.6세이다. 이들 가운데 8명의 여자청소년들은 결혼가정 혹은 재혼가정 출신이며, 가출 및 성관련 행동의 접촉 경위는 가정폭력, 무관심과 방임, 성폭력, 또래친구들과의 교제, 재혼가정 부적응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 청소년이 성관련 문제행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경위를 분석하였다. 직접적인 동기로는 가출 이후 숙박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유흥비 마련, 친구의 유혹, 고용업주의 빚 독촉 등이 이유로 들고 있다. 이와 같이 성관련 문제행동을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성관련 문제행동에 이르게 된 경로는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

성관련 문제행동 경험을 가지고 있는 10명의 여자청소년 가운데 8명은 해체가정과 재혼가정 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혹은 부모의 무관심과 방임으로 인해 갈등을 겪다가 결국 가출하게 되었고, 가출한 이후에는 생계유지를 위해 단순히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성관련 문제행동에 연루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조사대상 가운데 2명은 친부와 이웃할 아버지로부터 각각 성폭행을 당한 후 사법처리를 하는 과정 중에 가출하여 자포자기 심정으로 성매매에 빠져들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조사대상 청소년의 경우 또래친구와 어울려 놀고 싶은 욕구가 강하여 자발적으로 가출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정 내 역기능 상태가 이들 청소년들을 가정 밖으로 밀어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출 남자청소년의 경우와 달리, 가출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출 이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성매매 유혹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조사대상 청소년의 일부는 채팅을 통한 원조교제를 하였지만, 몇몇 청소년은 티켓다방, 단란주점, 룸싸롱 등에 고용되어 본의 아니게 고용업주에게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고 이를 탕감하기 위해 성매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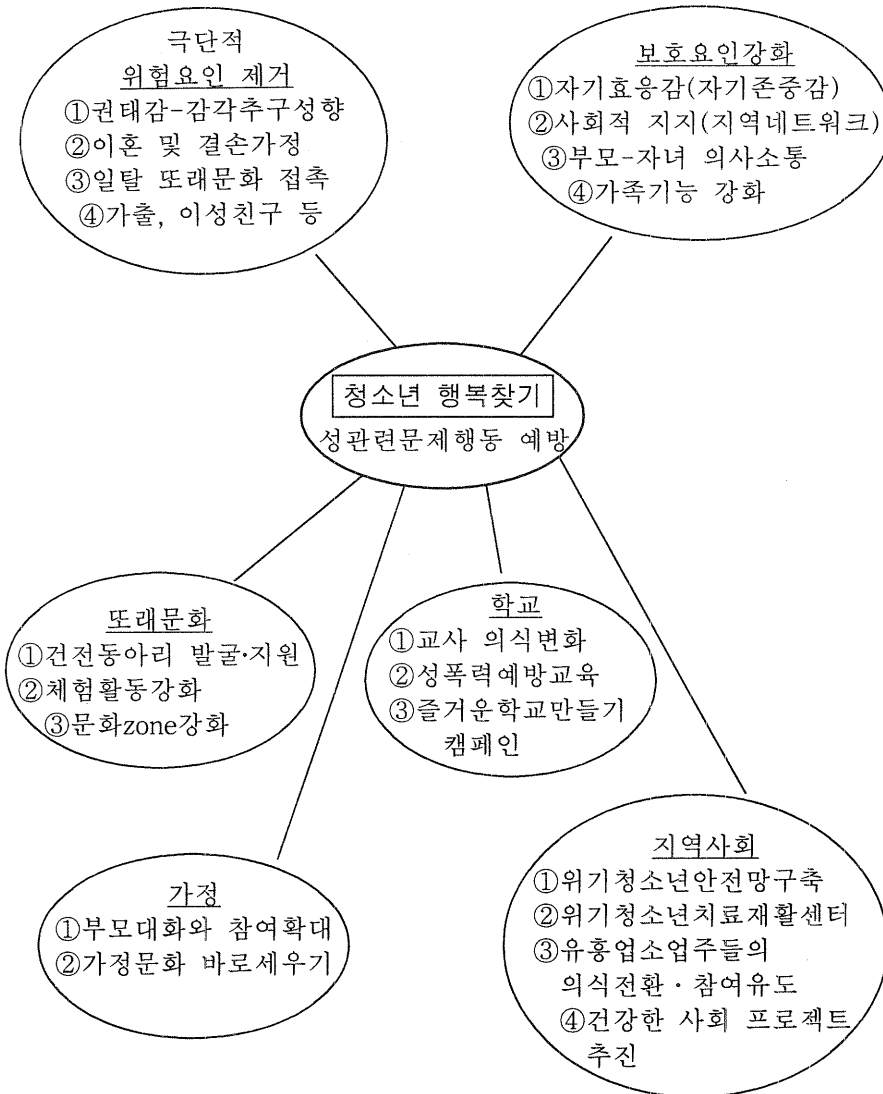
셋째, 이들의 요구를 분석해 보면, 무엇보다 정상적인 학교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고, 예전과 같이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

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이들이 가출 이후 사회의 유해요인으로부터 많은 스트레스와 압력을 받아 왔음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며, 사회적 지원 대책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정에서의 욕구불만과 무관심,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문제행동에 접근했지만 일부는 유흥업소 등에서 폭력과 인신매매 등 신변상의 위협에 처하면서 성인 사회의 비정함을 몸소 체험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가정과 학교로 복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가정은 해체되어 있고, 학교에서는 자신들이 소외의 대상일 뿐이라는 인식 때문에 절망 상태에 놓여 있는 듯 하다. 따라서 이들이 한 인간으로서 인권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재적응해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은 사회의 지원대책 뿐이다. 직업교육과 더불어 자활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소외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상담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2. 정책 제언

1) 정책제안 모형



<그림 VII-1> 청소년성관련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정책제안 모형

2) 정책 제언

이 연구에서는 성인들의 청소년 유해행위로 인해 파생되는 청소년의 문제행동 가운데 성관련 문제행동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선행연구 분석과 조사연구 및 사례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성 문제행동의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① 극단적 위험요인 감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책제안 모형에서 밝혔듯이, 청소년들의 성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영향을 주는 극단적인 위험요인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위험요인은 위험행동 및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특히 성관련 문제행동과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권태감과 열악한 가정환경 및 부모의 역기능적 양육태도, 일탈 또래들과의 관계, 가출, 이성친구 사귀, 낯선 사람과의 채팅 등이다.

청소년들은 다른 어떤 발달단계의 개체보다 감각추구성향(sensation seeking)이 더 높는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권태감(무료함, 따분함 등)을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조금만 무료하고 따분해도 참지 못하고 어디론가 뛰어 나가고 싶은 욕망이 있으며, 여기에는 쾌락적이고 충동적인 성적 자극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감각추구성향이 건전하지 못하고 퇴행적이거나 비생산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억제하고, 오히려 생산적이고 건강한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청소년들에게 활동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들의 감각추구성향이 신기성(novelty)과 창조성, 모험성을 통해 발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청소년 문화를 새롭게 창조한다는 생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성문제행동의 위험요인으로 결손가정, 부모의 무관심과 학대, 가출, 흡연과 음주, 이성친구, 채팅 등이 두드러지게 확인되고 있다. 한 가지 예로서 가출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출 후 성 폭행을 비롯

한 다양한 문제행동에 접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려되는 행동일 뿐이다. 따라서 가출 청소년에 대해 무조건 이들을 찾아서 귀가조치하고, 처벌하는 정책을 전개할 것이 아니라 가출 이후 이들이 문제행동에 접촉하는 과정을 차단하고 완충시켜 줄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체제를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종합 지원센터에서 이러한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흡연과 음주 등도 역시 이들 청소년이 성관련 문제행동에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문제행동 접촉과정을 중재할 수 있는 보호요인을 투입하게 된다면 성 문제행동으로 비약될 가능성을 크게 감소시켜 줄 것이다. 흡연과 음주에 대해 그 자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교육이 가장 중요하며, 효과 또한 크다고 볼 수 있다.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고 있는 사람에게 이를 그만 두도록 한다는 것은 저항은 물론이고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흡연과 음주가 문제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즉, 건강하고 사회 기능적인 방식으로 흡연하고 음주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지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② 보호요인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유해환경 및 유해행위로 부터 비롯되는 성 관련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이것의 부작용을 차단 또는 중재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을 발견하여 이를 처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호요인은 매우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 것도 있고, 특정 문제행동에 작용하는 구체적인 것도 있다. 물론 구체적이고 특수한 요인의 효과가 더 크며, 직접적이다.

선행연구들에서 다양한 문제행동의 보호요인으로 확인되었고 본 연구에서도 성 문제행동의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된 보호요인들은 자기 통제감, 자기 효능감, 자기 존중감, 사회적 지지, 가족 기능강화, 부모-자녀 의사소통 등이다. 이들 요인들은 특정 문제행동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위험요인의 작용을 완충시켜 주며 문제행동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정책은 극단적인 위험요인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특정 문제행동과 관련된 보호요인을 확인한 후, 이를 처치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투입하도록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보호요인들을 중심으로 8차시 동안 진행되는 연속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참조로 청소년관련 단체와 기관, 학교 등에서 보호요인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호요인은 그것이 개인과 집단 특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예컨대, 자기 효능감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효과를 지니고 있지만, 지능 수준이 낮거나 가정환경이 매우 낮은 청소년들의 경우에 그것이 역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사회적 지지는 특히 초기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정서적 지지는 큰 효과를 지니지만, 물질적 지지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특정 문제행동과 개인의 특성 그리고 보호요인의 성격에 따라 이를 처치방법을 달리 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③ 청소년 개인을 둘러싼 사회 맥락적 요인들 역시 청소년 문제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며, 특히 지역사회의 유해환경과 성인들의 유해행위는 성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 맥락적 요인 가운데 먼저, 또래집단의 특성 및 이들의 지도방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들의 건강한 또래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동아리를 중심으로 창조적인 청소년문화가 생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동아리는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모임체이며, 창조적인 활동 공간이 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들의 사회 체험활동을 지원해 주고, 그들의 이성관계가 건강한 사회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청소년의 파티문화, 만남과 대화 문화, 캠핑과 놀이문화 등을 통해 이들이 자연의 밝은 환경 속에서 이성간의 만남과 상호 부딪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이성에 대한 비합리적 또는 환상적인 사고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현재 시행 중인 청소년 문화존 사업을 각 자치단체별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문화 거리조성과 동아리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유해행위가 성인들의 영리 욕구에 의해 청소년들을 이용하는 가운데 발생하며, 성 문제행동 역시 성인들의 왜곡된 문화가 청소년들에게 전이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소년 세대의 노력과 역량에 의해 각 지역별 특성에 부합되는 문화를 창조하고, 이를 유지 발전 시켜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④ 가정의 심리적 기능적 환경을 개선하고 부모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안정적 애착과 관심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것은 청소년상담원을 비롯한 일부 기관에서 추진해 온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그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가정의 구조적 환경은 어찌할 수 없는 과제라고 하지만, 기능적 환경과 가정의 심리적 풍토를 조성하는 작업은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해 나갈 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화기법을 개발하고, 활동과 문화에 동참하도록 독려하는 등의 내용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보다 넓은 관점에서 ‘가정의 건전한 문화 세우기’ 사업과 직결된다. 최근 가정이 경제적으로, 구조적으로 위기에 봉착하면서 붕괴와 해체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가정의 본질적 기능인 애정과 양육, 교육, 보호, 경제 등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가정 문화 바로 세우기는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며, 청소년 자녀로 하여금 개인적으로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적으로는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사회 적응 능력을 발달시키는 원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⑤ 학교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 정책과 교육정책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청소년 정책과 학교 교육정책이 공존하고, 상호 협력적일 때, 청소년 성관련 문제행동의 예방 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청소년들이 사회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간 상호 협력 채널을 구성함과 동시에 학교 내 청소년 전문지도사

및 청소년 상담사의 배치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직자에 의한 학교 내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성폭력을 비롯한 부적절한 교사들에 대해 퇴출 방침을 밝힌 바가 있다. 이를 계기로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들 예컨대, 무자비한 폭행과 과대한 비방 및 욕설 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성 교육은 성 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과 성 문제 치료를 위한 교육으로 이분화 될 필요가 있으며, 학교 외부의 전문가(상담전문가, 의사, 변호사) 팀에 의해 분기별로 의무화 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성 교육이 단순히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성 교육을 통해 성과 인격을 동일시할 수 있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고, 이성과의 대인관계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성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지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성문제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이들이 성적 이상행동으로부터 장기적인 후유증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 학교 내 개입은 물론이고 전문치료 및 재활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⑥ 지역사회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성인들의 유해행위 관련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성인들의 유해행위 관련 요소들은 경제적 요인(금전적인 부분; 용돈, 차비, 숙박비, 생활비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잠자리 제공, 식사 제공, 의복제공, 술과 담배 제공, 기타 요인으로의 유혹(연예계 데뷔) 등 매우 많다. 이들 요인들을 통해 청소년들을 유인하거나 강압적으로 억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성을 상품화 또는 매개하거나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의 행위가 성인들에 의한 청소년 유해행위이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성관련 문제행동이다. 우리 사회의 성인들이 부적절한 의도를 가지고 청소년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 환경을 정화하는 일과 함께 모든 사람들의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매스컴을 이용한 지속적인 홍

보와 국민 토론회 및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행위인지, 그리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비양심적인 일인지를 깊이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을 줄이고 자동차 안전띠 착용을 계도함으로써 자동차 사고를 급격하게 줄일 수 있었던 것 역시 대국민 홍보와 철저한 단속 때문이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대해 높은 경각심을 갖기에 이르렀다.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해서도 성인들의 경각심을 유도해야 할 때이다.

⑦ 가출 청소년에 대한 지원대책과 직업 및 자활교육이 확대 운영되어야 한다. 성인들의 유해행위에 쉽게 노출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가출 청소년이고, 경제적 궁핍과 가정에서의 무관심 및 학대가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가출 청소년 가운데 특히 생계형 가출자와 유기된 가출자들의 경우 이들을 귀가시키는 방법보다 안전한 장소에서 숙박과 생활을 보장 받으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가출과 학교 중도탈락 이후 청소년들의 삶은 궁핍할 수밖에 없으며, 많은 위험요인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된다. 이들이 성인 사회의 유해요인에 의해 희생되지 않고 사회적 안전망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국가의 청소년정책이 추진해야 될 핵심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확대·개선하고 직업자활센터 등 그들의 진로를 도와 줄 수 있는 기관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⑧ 소외 청소년 및 각종 피해 청소년들을 위한 치료 및 재활 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된 청소년은 물론이고 성폭행이나 성매매, 약물, 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 청소년들을 치료하고, 심리적 안정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청소년심리치료센터’ (또는 청소년정신건강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상담사와 의사, 변호사 등을 고용·배치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하고 성인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에 불완전한 정신건강을 유지한 상태로 그들이 성인기로 진입할 때, 이들이 성인 유해행위를 일삼는 주요 인물이 되며, 유해환경을 조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청소년정책은 지금 현재 청소년들의 행복을 확대시키는데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미래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밝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정된 생활터전을 제공하기 위해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국민들 사회에 만연된 유해 환경과 비양심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으며 만성적인 빈부격차와 상대적인 박탈감에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 미래 사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며, 이것은 사회 환경과 시설의 개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하며, 청소년에 대한 투자만이 대안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태순(1999). 여고생의 이성교제, 성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성혜, 전명기, 박창남, 이희길 (1995). 청소년 문제행동의 이해와 지도, 한국청소년개발원
- 권태철(2002). 청소년 비행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따른 학교적응 유연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남성(1995). 교육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두섭, 민수홍(1996).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범죠통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명화(1998). 청소년 강간 가해자의 심리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문조, 이성식(1994). 유해업소와 청소년비행, 고려대학 민족문화연구, 제27호, p.182-193
- 김미애(2001). 청소년 성폭력에 따른 사회복지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개발대학원, 석사
- 김정만(2001). 보호관찰 청소년의 성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아(1999).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집단상담 프로그램.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준호(1994). 청소년비행의 실태와 원인. 형사정책연구, 제17권, pp.63-94.
- 김준호(1995).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관한 연구. 덕성여대사회과학연구, 1, 153-177.
- 김준호, 김은경(1995).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진화 외(2002). 청소년문제행동론. 학지사.
- 김혜원, 이해경(2002). 고등학생들의 성행동 경험 분석 :성별, 학교별,

- 거주지별 비교, 청소년학연구, 제9권 제1호, pp.247-272
- 도종수(1990).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
개발원
- 마홍철(2001).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지역사회환경
을 중심으로, 경상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용린(1994). 청소년의 정서 문화, 그 현실과 처방, 교육월보 제148호,
pp.36-41
- 문화관광부(2004). 청소년백서.
- 민병근, 김현수 (1992). 성비행 청소년의 가족역동, 신경정신의학, 제108
권, pp.604-628
- 박성수(1991). 가정교육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분석. 한국학술진흥재단.
- 박현선(1998). 빈곤 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Resilience) 발달메커니
즘, 청소년학연구, 제5권 제3호, pp.147-165
- 박현이, 청소년 성폭력범의 왜곡된 여성관과 성폭력과의 관계(1997)
- 신기숙(2002).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질적 연
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기숙(2004). 성폭력 예방교육이 청소년 성폭력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
향,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미식(2000). 10대 여자 청소년의 원조교제에 관한 연구, 주성대학 論
文集 9, pp.231-243
- 신정희(2001).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 : 유해환경 접촉을 중심으로, 청
주대 대학원, 석사
- 안권순, 한건환(2001).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변인과의 관계. 상담과
지도, 36, 한국카운슬러협회.
- 유성경(1998). 잠재적 중도탈락학생에 대한 개입체제 개발연구, 한국청
소년대화의 광장.
- 유성경(1999). 적응유연성 발달을 통한 청소년 비행의 예방 및 개입, 청
소년상담연구 제7권 제1호, pp.26-40.
- 유성경·이소래(2001). 청소년 비행수준에 따른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 분

- 석,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13, 2, 187-205
- 이길홍(1985). 청소년들의 성윤리 정립을 위한 개선책, 청소년,
- 이상문(1995). 청소년의 성적 허용성(sexual permissiveness)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성식, 전신현(2001). 가부장적 가정과 여자청소년의 비행: 대립되는 두 가설의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5(5), 173-198.
- 이성조(1997).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 연구-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숙 외(1994). 1993 한국의 청소년지표;청소년 생활지표 개발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pp.84-97
- 이은주(1998).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8, 115-137.
- 이인섭(1987). 學生靑少年과 非行靑少年의 性態度에 關한 比較研究,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규(2005). 학교에서의 집단상담: 실제와 이론. 학지사.
- 이재후(2001). 청소년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안양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
- 이정민(2004). 청소년 성매매의 특성. 성매매 방지대책과 향후 과제 심포지엄 자료집. 부산광역시.
- 이종원 등. (2001). 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춘화, 윤옥경(2003). 여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춘화, 조아미 (2004). 청소년 성매매의 상습화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현정(1997). 청소년의 환경적 변인, 개인적 변인 및 음란매체 접촉도와 성비행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유미, 김득성 (1998). 청소년의 환경적 변인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부산 시내 실업계 여고생을 중심으로. 대한 가정학회지, 36(3), 31-45.
- 조기은(2001). 여자청소년의 성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연 외(2000). 청소년의 원조교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 2, 99-116.
- 조양순 (1999). 비행청소년 성의식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정음 (2003). 수원시 청소년유해환경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승희, 이해성 (2001). 회피형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 과정 및 변화 요인 연구 :애착이론적 조망에서, 한국심리학회지, 13, 3, pp.55-73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식지, 나눔터 19호, 23호, 24호, 28호, 29호, 31호
여기는 상담실
- 한국성폭력상담소 (1998). 성폭력상담원 교육 자료집: 살맛나는 세상으로 가기 위하여.
- 한국성폭력상담소(1996). 어린이성폭력예방 세미나자료집: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 한국청소년학회 (1992).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대책에 관한 연구. 체육청소년부
- 한상철 (2004). 중소도시 청소년의 위험행동 예측요인 분석. 교육심리연구, 18, 3, 193- 210.
- 한상철, 김혜원, 설인자, 임영식, 조아미 (2003). 청소년 문제행동 : 심리학적 접근. 서울: 학지사.
- 한인영, 박인선, 백연옥(2001). 청소년의 성행동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2, 138-148.

Arnett, J. (1998). Risk behavior and family role transitions during the twent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7, 3,

301-320.

- Bandura, A. (1997). *Self 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174-177.
- Bandura, A., Caprara, G. V., Barbaranelli, C., Gerbi-no, M., & Pastorelli, C. (2003). Role of affective self-regulatory efficacy in diverse spheres of psycho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4*, 769-782.
- Bowen, G. L. & Chapman, M. V.(1996). Poverty, neighborhood danger, social support, and the individual adaptation among at-risk youth in urban areas. *Journal of Family Issues, 19*, 641-667.
- Branden, N.(1987). *How to raise your self-esteem*. New York: Bantam.
- Masters, J. C., Burish, T. G., Hollon, S. D., & Rimm, D. C.(1987). Behavior therapy(3rd ed.). Florida: Harcourt Brace Jovanovich.
- Chesney-Lind, M.(1989). Girls' crime and women's place: toward a feminist mode of female delinquency. *Crime & Delinquency, 35*(1), 5-29.
- Cohen, S. & Hoberman, H. M.(199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 of life changed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Colarossi, L. G. (2001). Adolescent gender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Structure, function, and provider type. *Social Work Research, 25*, 233-242.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dom.
- Corder, B. E.(1990). A pilot study for a structured, time-limited therapy group for sexually abused pre-adolescent children. *Child Abuse and Neglect: The International Journal, 14*,

243-251.

Ediger, M.(1995). A study of value. *Clearing House*, 69, 56-58.

Epstein, J. A., Griffin, K. W., & Botvin, G. J.(2000). Role of general and specific competence skills in protecting inner-city adolescents from alcohol us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1, 379-386.

Funk, S.(1999). Risk assessment for juveniles on probation: A focus on gender.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6(1), 44-68.

Garmezy, N. (1993).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 127-136

Gore, S., & Eckenrode, J.(1996). Context and process in research on risk and resilience In R. J. Haggerty, L. R. Sherrod, N. Garmezy, M. Rutter, (Eds.), *Stres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ttfredson, M. & Hirschi, T.(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Gullone, E., Moore, S., Moss, S., & Boyd, C. (2000). The adolescent risk-taking questionnair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5, 2, 231-250.

Hernandez, L. P.(1993).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in the school resilience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Jang, S. J. & Thornberry, T. R.(1998). Self-esteem, delinquent peers, and delinquency: A test of the self-enhancement 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 586-698.

Jessor, R.(1991). Risk Behavior in Adolescence: A Psychosoci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Actio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12, 597-605.

- Ludwig, K. B. & Pittman, J. F.(1999). Adolescent prosocial values and self-efficacy in relation to delinquency, risky sexual behavior, and drug use. *Youth & Society*, 30, 461-482.
- Marshall, M. P. & Chassin, L.(2000). Peer influence on adolescent alcohol use: The moderating role of parental support and discipline.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4, 80-89.
- Moore, M.R. & Chase-Lansdale, P.L.(2001). Sexual intercourse and pregnancy among african american girls in high-poverty neighborhoods: The role of family and perceived community environment, *Journal of Marriage & Family*, 63, 1146-1158.
- Pillai, V. K. & Barton, T. R.(1999). Sexual activity among Zambian female teenagers: The role of interpersonal skills. *Adolescence*, 34, 381-387.
- Rakos, R. M. & Schroeder, H. E.(1980). *Self-directed assertiveness training*. New York: Bio Monitoring Applications.
- Rutter, M.(1979). Protective factors in children's responses to stress and disadvantage. In E. Rahdert, D.C. & I. Amsel(Eds.) *Adolescent drug abuse: Clinical assessment and therapeutic intervention* (pp. 7-38). Rockville, MD: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 Tuner, G. E., Burciaga, C., Sussman, S., & Klein-Selski, E.(1993). Which lesson components mediate refusal assertion skill improvement in school-based adolescent tobacco use prev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s*, 28, 749-763.
- Wisdom, C. S. & Kuhns, J. B.(1996). Childhood victimization and subsequent risk for promiscuity, prostitution, and teenage pregnancy: A prospective study.

부 록

설 문 지

부
록

<부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청소년문제연구소는 대구한의대학교 ‘청년복지상담학과’를 중심으로 개설된 대학부설 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사회의 청소년문제를 연구하고, 정책적 대안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합리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다양한 대외 행사와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대책” 관련 연구의 한 분야를 우리 대학교 청소년문제연구소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정부 차원의 연구과제입니다.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우리 사회의 청소년 유해행위를 개선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응답은 오로지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처리 과정에서만 활용될 뿐 개인의 사적인 사항은 철저히 보호된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솔직하고 빠짐없는 응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청소년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응답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 7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문제연구소

문의처: 청소년문제연구소 (053-819-1361)

다음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V표해 주십시오

1.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2. 신분은?

- ① 중 1 ② 중 2 ③ 중 3
④ 인문고 1 ⑤ 인문고 2 ⑥ 인문고 3
⑦ 실업고 1 ⑧ 실업고 2 ⑨ 실업고 3
⑩ 기타 ()

생활실태와 일반적 문제행동

1.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친부모 두 분 ② 어머니와 새 아버지
③ 아버지와 새 어머니 ④ 아버지하고만
⑤ 어머니하고만 ⑥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 등과 함께
⑦ 형제와 함께 ⑧ 혼자 생활

2. 부모님(보호자)의 본인에 대한 관심정도는 ?

- ① 관심이 높다 ② 보통 수준이다 ③ 관심이 별로 없다

3.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하 ② 중하 ③ 중 ④ 중상 ⑤ 상

4. 현재 가정생활에 만족합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5. 하루를 기준으로 부모(보호자)와 대화시간은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 ① 거의 없다 ② 5분 정도 ③ 10분 정도
④ 20분- 30분 ⑤ 30분 이상

6. 학교생활에 만족합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7. 가출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8. 지금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예전에는 피웠는데 지금은 안 피운다

9. 이성친구(사귀는 사람)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10. 인터넷이나 잡지 등을 통해 음란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11. 모르는 사람과 인터넷 채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12. 아르바이트나 부업 중에 어른들로부터 착취나 부당한 대우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13. 청소년 출입금지 유흥업소에 출입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4. 사소한 시빗거리로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움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5. 부모님(보호자)을 속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16. 휴일에 특별한 볼일 없이 혼자서 시내를 배회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17. 특별한 이유 없이 어린 후배들을 골탕 먹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18. 부모님 몰래 용돈을 훔쳐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9. 이성친구와 키스나 포옹 등의 성관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20. 부모님 몰래 무단결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성 관련 위험요인 및 성 행동에 대한 조사>

다음의 내용은 여러분이 성관련 위험요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1. 다음의 매체 중 성충동이나 폭력충동을 가장 많이 느낀 매체를 한 가지만 선택하시오.

- ① 성인용 만화 ② 성인 소설 및 잡지책 ③ 스포츠신문
④ 성인용 비디오 ⑤ TV영화

2. 청소년이 성인용 매체(19세미만 금지매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절대해서는 안 된다 ② 한두 번 정도는 괜찮다
③ 자주만 아니면 계속 이용해도 된다
④ 하고 싶을 때 언제나 해도 괜찮다

3. 청소년들이 성인용 매체의 내용을 잘 아는 것이 친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잘 알면 인기를 끌게 된다 ② 별로 상관없다
③ 잘 모르면 대화가 안 통한다 ④ 잘 모르면 따돌림을 당한다

4. 명함형태의 광고전단(여자사진과 함께 전화번호가 기재된 전단)을 접촉해 보았을 때 주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 ① 아무런 느낌도 없다 ② 성적 충동이 생긴다
③ 실제 전화를 해 보고 싶다 ④ 혐오감과 수치심이 생긴다
⑤ 본적이 없다 ⑥ 기타 ()

5. 밤 10시 이후 TV에서 19세미만 청소년 시청 불가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듭니까?

- ① 아무런 느낌이 없다 ② 강한 호기심이 생긴다
- ③ TV의 내용을 모방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 ④ 혐오감과 죄의식이 든다 ⑤ 본적이 없다
- ⑥ 기타 ()

6. 채팅을 해 본적이 있는지, 있다면 주로 누구와 많이 합니까?

- ① 채팅한 적이 없다 ② 동성친구
- ③ 친척 ④ 이성친구
- 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 ⑥ 전혀 모르는 사람
- ⑦ 기타 ()

7. 채팅 시 어떤 분야에 대하여 주로 얘기를 많이 합니까?

- ① 주제 없이 그냥 재미 삼아 한다
- ② 취미 분야나 정보교류 등에 대해 이야기 한다
- ③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한다
- ④ 아는 사람에게 말 못할 고민 등에 대해 이야기 한다
- ⑤ 기타 ()

8.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채팅방법(사이트)은 무엇인가요?

- ① 세이클럽 ② 프리챌 ③ 하늘사랑
- ④ 오마이러브 ⑤ 메신저 ⑥ 기타

9. 화상채팅을 해 본적이 있나요? 있다면 다음 예시 중 경험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 ① 화상채팅 경험이 없다
- ② 내 얼굴만 보여주면서 대화했다
- ③ 상대방의 얼굴만 보고 대화했다
- ④ 내 얼굴 외의 특정 신체부위를 보여주면서 대화했다
- ⑤ 상대방의 얼굴 외의 특정 신체부위를 보면서 대화했다 ⑥ 기타

10. 채팅 후(화상채팅 포함) 모르는 사람을 실제로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가? 있다면 상대방은 누구였습니까?
 ① 없다 ② 같은 또래의 동성
 ③ 같은 또래의 이성 ④ 성(性)이 다른 어른
 ⑤ 기타 ()
11. 음란·폭력·엽기사이트를 접속해 본적이 있을 경우 주로 어디에서 접속합니까?
 ① 없다 ② 자신의 집 ③ 친구나 선후배의 집
 ④ PC방 ⑤ 학교 ⑥ 기타 ()
12. 음란·폭력·엽기사이트를 접속해 본적이 있을 경우 언제 처음 접속해 보았습니까?
 ① 초등학교 1-3학년 ② 초등학교 4-6학년 ③ 중학교 1학년
 ④ 중학교 2학년 ⑤ 중학교3학년 ⑥ 고등학교 1학년
 ⑦ 고등학교 2학년 ⑧ 고등학교 3학년
13.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접속하게 되었을 때,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접속합니까?
 ① 접속한 적 없음 ② 스팸 메일을 통해서
 ③ 일부러 음란사이트를 검색해서 ④ 검색 중에 우연히
 ⑤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로 ⑥ 신문·잡지 등을 통해 알게 되어서
14. 비디오방, 호프집, 소주방, 나이트클럽, 락카페 등의 업소를 이용하려고 했을 때, 업소 주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다음 보기 중 하나만 고르시오.
 ① 대부분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켰다
 ② 대부분 나이는 물어보았지만 실제 확인은 하지 않고 출입
 ③ 대부분 나이를 확인한 후 19세 미만은 출입시키지 않았다

19. 성에 대한 지식을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됩니까?
- ① 인터넷 ② 친구 ③ 학교성교육
 ④ 사회교육기관(청소년단체 등) ⑤ 비디오 및 음란영화
 ⑥ 부모 ⑦ 대중매체 ⑧ 기타()
20. 지금까지 학교에서 성교육을 어느 정도 받아보았습니까?
- ① 받아 본 적이 없다 ② 1-2회 ③ 3-4회
 ④ 5-6회 ⑤ 7회 이상
21. 학교에서 처음 성교육을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 ① 유치원 때 ② 초등학교 때 ③ 중학교 때
 ④ 고등학교 때 ⑤ 아직 받아 본적 없음
22. 학교에서 받아본 성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재미가 없다
 ②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배운다
 ③ 윤리·도덕적인 내용 중심으로 흥미가 없다
 ④ 이해가 어려운 내용이 많다
 ⑤ 교육을 받아보지 않아 모르겠다 ⑥ 기타 ()
23. 성관련 행동 중 다음 중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이성친구와 키스, 애무 ②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③ 동성친구와의 키스, 애무 ④ 동성친구와의 성관계
 ⑤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⑥ 타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
 ⑦ 남에게 성폭력 가해 ⑧ 아무런 경험 없다
24. 성관계 경험이 있다면 첫 성관계 경험 대상은 누구입니까?
- ① 이성친구 ② 아는 사람
 ③ 가족이나 친척 ④ 우연히 만난 사람

30.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성매매가 만연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가정, 학교, 사회에서 성교육이 제대로 없기 때문
- ②성 윤리에 대한 의식이 약해서
- ③인터넷 등 음란성 유해매체가 널리 있어서
- ④성인들의 건전한 도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 ⑤기타()

31. 성매매 하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어른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 ②형사처벌보다는 소년원으로 보내서 선도해야 한다
- ③학교나 가정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 ④기타 ()

<성 관련위험행동 척도>

아래의 각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O"표를 해 주십시오.

질 문 내 용

매우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그렇다 이다 아니다

1. 나는 늦은 시간에 이성과의 만남에 대해
부담이 없다 () () () () ()
2. 나는 가벼운 성 접촉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 () () () ()
3. 나는 성에 관한 유머나 농담(음담패설)을
쉽게 하는 편이다..... () () () () ()
4. 나는 선생님이나 다른 어른들의 가벼운
신체 접촉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 () () () ()
5. 나는 야한 비디오나 영화를 즐겨 보는
편이며, 이에 대해 호기심이 많은 편이다..... () () () () ()
6. 나는 다른 사람의 성 행위를 훔쳐보는
것에 대해 강한 호기심이 있다 () () () () ()
7. 나는 자위를 자주하는 편이다 () () () () ()
8. 나는 부모님에 대한 반항심으로 이성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 () () () () ()
9. 나는 이성과 만날 때 담배를 자주 피운다... () () () () ()
10. 나는 이성과 만나거나 음란물을 시청할 때
술을 많이 먹는편이다 () () () () ()
11. 나는 자위를 할 때 가끔 자위기구를 사용한다
..... () () () () ()
12. 나는 집밖에서 늦게까지 머물며 할 일없이
서성대거나 거리를 배회하는 경우가 많다..... () () () () ()

13. 나는 술을 먹고 나면 성충동이 더 많이
생긴다 () () () () ()
14. 나는 성 관계(성교)를 경험한 적이 있다.
..... () () () () ()
15. 나는 성교는 아니지만 키스나 포옹을 한
적은 있다 () () () () ()
16. 내가 만약 이성과 성 관계를 한다면 콘돔과
같은 피임기구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 () () () ()
17. 나는 다른 사람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다 () () () () ()
18. 나는 이성과의 갈등으로 상대방을 모함하
거나 폭행한 적이 있다..... () () () () ()
19. 나는 이성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미행하거나 정보를 훔친 적(스토킹)이 있다... () () () () ()
20. 나는 인터넷 음란물에 빠져 본 적이 있거
나 빠져있다..... () () () () ()
21.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성 관련 문제행동
에 가담해 본 적이 있다..... () () () () ()

<보호요인 조사>

1. 가족기능 측정도구

다음 각 진술문을 읽고 해당 하는 ()속에 ○표를 해주십시오.

전혀	비교적	간혹	자주	항상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않다	않다	(보통)		

1. 우리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도와 준다 () () () () ()
2. 우리 가족은 문제를 해결할 때 자녀의
제안을 따른다. () () () () ()
3. 우리 가족은 각자의 친구들을 알고 있고
그들을 인정해 준다 () () () () ()
4. 우리 집에서는 자녀들도 자기들의 별칭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 () () ()
5. 우리는 무슨 일이든 우리 가족끼리만
하려한다 () () () () ()
6. 우리 집은 일의 성질에 따라 지도자가 바뀐다.
..... () () () () ()
7.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가족끼리 제일 가깝다.
..... () () () () ()
8. 우리집의 일 처리방법은 형편에 따라 다르다.
..... () () () () ()
9. 우리 가족은 자유시간을 되도록이면 함께
보내려 한다 () () () () ()
10. 우리 집의 별칭에 관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의논한다..... () () () () ()

11. 우리 가족들은 서로간에 매우 친근감을 느낀다..... () () () () ()
12. 우리 집에서는 자녀들도 여러 가지일의 결정에 참여한다..... () () () () ()
13. 우리가족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예: 명절, 제사 등)이 있을 때는 가족 모두가 참석한다..... () () () () ()
14. 우리집의 규칙은 일단 정해졌더라도 변경이 가능 하다..... () () () () ()
15. 우리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예: 취미, 오락, 여가활동 등)을 잘 생각해 낸다..... () () () () ()
16. 우리 가족은 집안일에 대한 책임을 서로 돌아가며 맡는다..... () () () () ()
17. 우리 가족은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있을 경우 가족 상의한다..... () () () () ()
18. 우리 집에서는 누가 지도자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 () () () ()
19. 우리 집에서는 가족의 일치단결을 중요시한다.
..... () () () () ()
20. 우리집의 허드렛일(쓰레기 버리기, 화초에 물주기, 청소하기 등)은 꼭 누가 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다 () () () () ()

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질문지

<부(父)와 자녀간 의사소통>

다음 질문들은 아버지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버지와 여러분의 대화에 대해 잘 나타내주는 ()속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대체로 보통 대체로 항상
그렇지 그렇지 이다 그렇다 그렇다
않다 않다

1. 나는 주저함 없이 아버지께 내 주장을
이야기 한다..... () () () () ()
2. 나는 때때로 아버지께 나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믿지 못할 때가있다..... () () () () ()
3. 아버지는 항상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신다.
..... () () () () ()
4. 나는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
요구하기가 두렵다 () () () () ()
5. 아버지는 내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다..... () () () () ()
6. 아버지는 나에게 묻지 않고도 내 느낌이
어떤가를 아신다. () () () () ()
7. 나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방식에 매우
만족한다..... () () () () ()
8.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나는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있다..... () () () () ()
9. 나는 아버지께 숨김없이 애정을 표시한다.
..... () () () () ()
10. 아버지와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종종 아버지께 침묵을 지킨다..... () () () () ()

11. 아버지께 이야기 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 () () () () ()
12. 아버지와 대화할 때 나는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 () () () ()
13. 나의 질문에 대해 아버지는 정직하게
대답해 주신다..... () () () () ()
14. 아버지는 나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 () () () () ()
15.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화제거리가 있다..... () () () () ()
16. 아버지와 함께 문제를 의논하기 쉽다.
..... () () () () ()
17. 아버지께 나의 모든 진실한 감정을 표현하기
쉽다..... () () () () ()
18. 아버지는 나에게 성가시도록 잔소리를 하신다.
..... () () () () ()
19. 아버지는 나에게 화가 나셨을 때 나를 모욕
(욕을 하거나 경멸하는태도)한다..... () () () () ()
20. 어떤 것에 관하여 내가 실제로 느끼는 바를
아버지께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다..... () () () () ()

<모(母)와 자녀간 의사소통>

다음 질문들은 어머니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머니와 여러분의 대화에 대해 잘 나타내주는 ()속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대체로 보통 대체로 항상
그렇지 그렇지 이다 그렇다 그렇다
않다 않다

1. 나는 주저함 없이 어머니께 내 주장을
이야기 한다..... () () () () ()
2. 나는 때때로 어머니께 나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믿지 못할 때가있다..... () () () () ()
3. 어머니는 항상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신다.
..... () () () () ()
4. 나는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머니께
요구하시기가 두렵다 () () () () ()
5. 어머니는 내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다..... () () () () ()
6. 어머니는 나에게 묻지 않고도 내 느낌이
어떤가를 아신다..... () () () () ()
7. 나는 어머니와 대화하는 방식에 매우 만족한다.
..... () () () () ()
8.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나는 어머니께 말씀
드릴 수 있다 () () () () ()
9. 나는 어머니께 숨김없이 애정을 표시한다.
..... () () () () ()
10. 어머니와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종종 어머니께 침묵을 지킨다 () () () () ()
11. 어머니께 이야기 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 () () () () ()

12. 어머니와 대화할 때 나는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이야기 하는 경향이 있다..... () () () () ()
13. 나의 질문에 대해 어머니는 정직하게
대답해 주신다..... () () () () ()
14. 어머니는 나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
하신다..... () () () () ()
15.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화제
거리가 있다..... () () () () ()
16. 어머니와 함께 문제를 의논하기 쉽다..... () () () () ()
17. 어머니께 나의 모든 진실한 감정을 표현
하기 쉽다 () () () () ()
18. 어머니는 나에게 성가시도록 잔소리를 하신다.
..... () () () () ()
19. 어머니는 나에게 화가 나셨을 때 나를 모욕
(욕을 하거나 경멸하는태도)한다..... () () () () ()
20. 어떤 것에 관하여 내가 실제로 느끼는 바를
어머니께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다..... () () () () ()

3. 사회적 지지 척도

각 진술에 대해 자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제시된 5단계 척도에 따라 반응해 주기 바랍니다. 반응 방법은 자신의 생각 또는 의견과 가장 일치하는 () 속에 'O'표를 하는 것입니다.

매우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그렇다 (잘 모름) 아니다

1. 내 주변에는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거나 도움을 줄 사람이 많이 있다..... () () () () ()
2. 나의 부모님은 나를 믿고 지지해 주는 편이다.
..... () () () () ()
3.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나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다. () () () () ()
4. 내 주변에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안아
주고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 () () () ()
5.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내 친구들은 진심
으로 나를 도와 줄 것으로 생각한다..... () () () () ()
6. 나는 내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에 대해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정성을 다해 도와
줄 것이다..... () () () () ()
7. 나는 누구로부터 모함이나 비난을 받았을 때
내 억울함을 하소연할 가까운 친구가 있다 ... () () () () ()
8.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그리
고 애정도 없는 것 같다 () () () () ()
9.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스스로의 능력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과 지원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다 () () () () ()

10.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진심어린 것이라기보다 마지못해 하는
것 같다..... () () () () ()
11. 회의 각종 청소년 전문기관들은 청소년들의
심리적 고통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으로 생각한다..... () () () () ()
12. 인간은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며,
여기에는 협력과 상호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 () () ()
13.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무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 () () () ()
14. 나는 오직 나 혼자이다..... () () () () ()
15. 나는 주변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들을
믿지 않는다..... () () () () ()

4. 자기 효능감 척도

각 진술에 대해 자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제시된 5단계 척도에 따라 반응해 주기 바랍니다. 반응 방법은 자신의 생각 또는 의견과 가장 일치하는 () 속에 'O'표를 하는 것입니다.

매우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그렇다 (잘 모름) 아니다

1. 일은 쉬운 것일수록 좋다..... () () () () ()
2. 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는 우울함을
느낀다..... () () () () ()
3. 나는 복잡한 일을 잘 이해할 수 없다..... () () () () ()
4. 나는 어떤 일이 너무 어려워 보이면 하려고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 () () () () ()
5. 나는 위험상황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다..... () () () () ()
6. 나는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잘 알아낼
수 있다..... () () () () ()
7. 어려운 일이라도 잘 해낼 자신감이 있다..... () () () () ()
8. 나는 일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처리하는
편이다 () () () () ()
9. 나는 큰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 () () () ()
10. 나는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하다..... () () () () ()
11. 마음만 먹으면 과제를 잘 처리할 수 있다... () () () () ()
12.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 () () ()
13.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할 수 있다..... () () () () ()

14. 만일 일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어려운
일 보다는 쉬운 일을 선택할 것이다..... () () () () ()
15. 나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스트레스를
필요 이상으로 받는다..... () () () () ()
16.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실패할 것 같은 느낌
이 들곤 한다..... () () () () ()
17.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잘하
는 만큼 잘 할 수 있다..... () () () () ()
18.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모든 일에서 뛰어난
것 같다..... () () () () ()
19. 어떤 문제에 대한 나의 판단은 대체로 정확
하다..... () () () () ()
20. 나는 항상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따라 일의
진행 상태를 확인한다..... () () () () ()
21. 좀 실수를 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좋아한다.
..... () () () () ()
22. 어렵거나 새로운 일에 매달리는 것은 재미
있는 일이다..... () () () () ()
23. 나는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 () () () ()
24.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 () () () ()
25. 나는 관심 있는 일은 꼭 하는 편이다 () () () () ()

26. 어떤 일이 처음에 잘 안되더라도 나는 될
때 까지 해본다..... () () () () ()
27. 나는 일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빨리
바로 잡는다..... () () () () ()
28.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꾸준히 노력한다. () () () () ()

29. 아주 쉬운 일보다는 차라리 어려운 일을

좋아한다..... () () () () ()

30. 위험상황에 부딪혀도 별로 당황하지 않는다.() () () () ()

31. 나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한다..... () () () () ()

*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김영한(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주동범(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임성택(순천대학교 교수)

남영옥(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5-16

연구보고 05-16-04

청소년 유해행위 개선대책 연구

인 쇄 2005년 10월 20일

발 행 2005년 10월 24일

발 행 처 대구한의대학교

경북 경산시 유곡동 290번지

발 행 인 황 병 태

인 쇄 처 큰빛기획

전화 (053) 521-0590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ISBN 89-7816-587-7(93330)

